

국립국어연구원 2003-1-12

북한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2003

담당연구원 전 수 태
(어문실태연구부)



국립국어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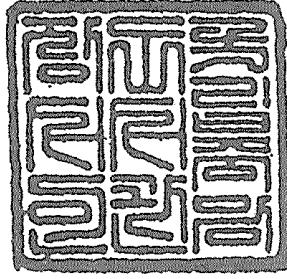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2003

담당연구원 전 수 태
(어문실태연구부)



국립국어연구원



3052125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 발행된 신문, 방송, 문학 작품 등 각종 자료에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과 우리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 약 670개 정도를 모아 풀이하고 예문을 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한 사전에 대한 배려가 없이 북한 사전에 나오지 않은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어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북한 자료에 나오는 말로서 북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으면서 남한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사전 모두에 안 나오는 어휘, 다시 말하면 양측 사전의 미등재어를 모은 자료집이 된 것입니다.

미등재어 수집을 위하여는 신문 자료로서 로동신문 1994년, 2002년, 평양신문 2002년, 문학일보 2002년분과 조선중앙방송(라디오) 1999년~2002년, 평양방송 1999년~2002년, 북경방송, 러시아방송, 북한위성방송 각 1999년~2002년분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정기간행물로서는 북한의 계간지 『문화어학습』 1969년~1995년, 『조선문학』 1991년~1992년, 『조선어문』 1997년~1999년분을 살폈고 문학 작품·기타로서는 1970년대 장편 소설 『고난의 행군』(1976)에서 1990년대의 『통일문학』(1994)에 이르기까지 6,000쪽이 넘는 분량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미등재어는 엄격히 말하면 미등재어와 신어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이전 자료에서 수집된 것은 실제로 쓰였으면서도 사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재어가 되는 것이고 1992년 이후에 수집된 것은 사전 편찬 이후에 나온 말로서 실제로 쓰였기 때문에

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의도는 북한의 신어를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 자료에서 남북한 양측 사전에서 제외된 어휘를 모으는 것이므로 미등재어와 신어를 총칭하여 미등재어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미등재어 가운데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는 것으로서 살려 쓸만한 말은 앞으로 사전을 편찬하거나 보완할 경우에 올림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강시울’(강변, 강가), ‘뒤매’(뒷모습), ‘들먹이’(가득히), ‘망냥딸’(막내딸), ‘무리벌’(여럿이 함께 받는 벌), ‘물피난’(물난리를 피하여 머리 떠남), ‘벗겨쓰다’(닦다), ‘실거품’(실처럼 가늘게 나오는 거품), ‘웅지다’(무리지어 있다), ‘치닥질’(성가신 잔일), ‘툭아오르다’(숨가쁘게 오르다), ‘푸초발’(채소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와 같은 용도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남 기 심

일러두기

1. 이 자료집은 북한의 신문, 방송, 문학 작품 등 각종 자료에서 수집한 사전 미등재 어휘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동광출판사)』과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에 등재되지 않은 사전 미등재 어휘 및 구 670개를 선정해 수록하고 풀이를 달았다. 풀이를 다는 데 사용한 서적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2003), 『북한 용어 400선집』

연합뉴스(2003), 『북한 용어 소사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 용어: <http://unibook.unikorea.go.kr>

국가정보원 북한용어사전: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03210000

MBC 북한 용어 검색: http://search.imbc.com/nsearch/nk/search_nk.php

2. 본 자료집에 실린 어휘 및 구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신문>

「로동신문」 1994년 9월 3일.

「로동신문」 1994년 9월 4일.

「로동신문」 1994년 10월 5일.

「로동신문」 1994년 11년 1일.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 1월 31일.

「로동신문」 2002년 2월 1일 ~ 2월 7일.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 3월 7일.

「로동신문」 2002년 4월 1일 ~ 4월 7일.

「로동신문」 2002년 5월 1일 ~ 5월 7일.

「로동신문」 2002년 6월 1일 ~ 6월 7일.
「로동신문」 2002년 7월 1일 ~ 7월 7일.
「평양신문」 2002년 1월 1일 ~ 1월 31일.
「문학일보」 2002년 1월 1일 ~ 1월 26일.

<방송>

「중앙방송」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평양방송」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중앙평양」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동시에 보도되는 경우)
「북경방송」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러시아방송」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북한위성」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VOA(VOICE OF AMERICA)」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RFA(RADIO FREE ASIA)」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NHK(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99년 1월 ~ 2002년 4월 방송분.

<간행물>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69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69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70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94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문학」 1991년, 1호.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1992년, 1호. 문학예술출판사.

『조선어문』 1997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어문』 1999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어문』 1999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소설 · 시 · 기타>

『고난의 행군』,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76.
『고압송풍』, 한장규, 문예출판사, 1979.
『그들의 운명』, 현희균, 문예출판사, 1984.
『그리운 조국 산천』, 박유학, 문예출판사, 1985.
『근거지의 봄』,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1.
『김정호』, 강학태, 문예출판사, 1987.
『당원의 모습』, 양해모, 문예출판사, 1979.
『대지는 푸르다』,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1.
『두만강지구』,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0.
『뜨거운 심장』, 변희근, 문예출판사, 1984.
『리순신 장군』, 김현구, 문예출판사, 1990.
『먼 길』, 정창윤, 문예출판사, 1983.
『발파소리』, 노영길, 문예출판사, 1979.
『백두산 기슭』,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78.
『붉은 지평선 제1부』, 리병수, 문예출판사, 1981.
『빛나는 모습』, 김창성, 문예출판사, 1979.
『새로운 향로』, 황건, 문예출판사, 1980.
『성벽에 비긴 불길』, 박태민, 문예출판사, 1983.
『세기와 더불어1』,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승리자들』, 단편집, 문예출판사, 1976.
『시대의 기수』, 단편집, 문예출판사, 1979.
『아들은 전선에 있다』, 리상현, 문예출판사, 1976.
『암록강』,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3.
『은하수』,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2.
『잊을수없는 나날에(련시)』, 주광남, 문예출판사, 1979.

『잊을수없는 시절』, 이재남, 문예출판사, 1979.
 『적후의 별들』, 김형지, 문예출판사, 1983.
 『조선개관』, 방완주, 백과사전출판사, 1988.
 『준엄한 전구』,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81.
 『지평선』, 이정숙, 문예출판사, 1975.
 『찔레꽃』, 강효순, 금성청년출판사, 1984.
 『통일문학』, 평양출판사, 1994.
 『해쫄는 바다』, 손응준, 문예출판사, 1979.
 『혁명의 려명』, 4·15 문학창작단, 문예출판사, 1974.

3. 조사 결과는 단어와 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품사를 나타내는 사전 약호 뒤에 주석을 달았고 문맥을 통한 의미 파악이나 유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풀이를 한 경우 * 표시를 하였다. 그 외 풀이를 알 수 없는 표제어의 경우 ?로 표시하였다.

결정으로 박다 ㄷ *확실하게 결정하다. ¶ 《지난날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 우두머리들은 인민들이야 어떻든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도 무엇인가 해낼것처럼 돌아치다가 운동자체를 피투성으로 만들어버렸소. 우리는 그 교훈으로부터 진실한 혁명가가 할일은 연설을 잘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온 겨레가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카룬회의에서 결정으로 박았소. 그런데 동무는 결정을 할 때는 손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자마자 또 인민들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동요한다고 면박을 주고 적과 내통한다고 의심을 했소.》 〈대지는 푸르다, 589〉

피찌 ㄷ ? ¶ 연구소성원들은 누구나 찬동했으며 그 연구에 비상한 정열들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간단한 송풍장치같은것은 모두 달라붙어 자체로 만들기로 했으며 뿔탄에 들어가게 될 피찌를 얻기 위해 시청의 토목과에 찾아가 사정한 끝에 도로공사에 쓰던 나머지를 손수레에 싣고 오기도 하였다. 〈새로운 항로, 283〉

4. 명사는 조사를 뺀 꼴을,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 + -다’의 꼴을 표제 단위로 삼았다.

겉다듬 𣪏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척 하는 것. 𣪏 《그새 술한 날이 지났는데 자신이 서지 않다? 자신이 서지 않는다니... 정군을 어떻게 보아야겠나. 정군도 콩밥신세를 좋아하지 않겠지? 하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후부터 태진은 겹이 앞서고 남의 눈에 떨가봐 겉으로 열성을 내는것처럼 하였으나 여전한 겉다듬이었으며 될대로 되라는 심사였다. <새로운 향로, 48>

게바라나오다 𣪏 게처럼 함부로 돌아다니며 나오다. 𣪏 《그 사람들도 여태 강을 못건너가고 객주집에 잡혀있다는구나. 치잡이가 두만강초입의 삼일객주집에서 밥사먹다가 아무래도 네가 강쪽으로 게바라나올것 같아서 떼를 매놓은채 달려왔다더라.》 <두만강 지구, 132>

5. 표제 단위에는 모두 품사 표시를 하였다. 품사 표시는 표제어 바로 뒤에 표시했으며 이때 사전용 약호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𣪏: 명사 𣪏: 동사 𣪏: 형용사
 𣪏: 부사 𣪏: 구

궁출하다 𣪏 배가 출출하고 무엇이 먹고 싶다. 𣪏 《자, 이젠 떡이나 먹게. 자네가 궁출해할것 같다구 예숙이가 수고스레 만든거네.》 어머니는 들고온 보자기를 풀었다. <적후의 별들, 154>

꺠단물 𣪏 꺠로 만든 주스. 𣪏 《너희들 수고했구나. 어서 여기 앉거라.》 《자, 이건 꺠단물이라네. 목 마르겠는데 한모금 마셔라.》 한 처녀는 방긋 웃으며 나어린 학생의 손에 사탕 한줄을 살며시 쥐여 주었다. 나역시 애들을 꺠에 꼭 안아 주고 싶었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4일 4면>

6. 표제어에 대한 용례는 기본적으로 세 문장 단위로 제시하였으나, 문맥을 보다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문장 이상이나 이하도 허용하였다.

모랭이 𣪏 나무를 파서 조그맣게 만든 그릇. 𣪏 저녁을 물리고 아직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는데 모랭이 담긴 작은 모랭이를 옆구리에 끼안은 꺠단이가

찾아들고 뒤이어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다. 분옥이가 샘물골에 되돌아온 뒤 몸이 추서자부터 다시 열기 시작한 야학생부녀들이다. 곱단이는 들어오던 참 등디목에 모랭이를 내려놓고는 그냥 부엌바닥에 서서 분옥이가 하던 설거지를 빼앗아 제가 마치고서야 구들에 올라앉았다. <압록강, 216>

7. 용례에서 띄어쓰기 및 표기법은 원래의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방송 자료의 경우는 전사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의 방송 대본과 띄어쓰기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흙모가요 ㉠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바치는 가요. ㉡ 종합된 자료에의하면 최근년간 해마다 평균 2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들을 수백여차에 걸쳐 보도했다.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혁명활동모습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흙모가요들을 함께 편집했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들을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지침, 자주시대 당건설의 귀중한 교과서, 사회주의 역량의 위대한 사상이론적 무기, 진보적 인민들의 영원한 고무적 기치라고 지적했다.

<평양방송 1999년 4월 7일 07:00>

8. 출전은 용례의 뒤에 < >로 제시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 1996년 제1단계에 이어 2000년 10월 완공된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이 악전고투 속에서 발휘했다는 투혼을 일컫는 것. ㉡ 돌이켜 보면 지나간 한해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온 나라에 라남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오른 보람찬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창작에서는 이 벅찬 시대의 숨결이 담겨 저 있지 못했으며 필봉은 시대의 전진과 함께 원고지우에서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시대의 선구자들을 형상할수 없었습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3면>

차 례

머리말

일러두기

I.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개관	1
1. 사전 미등재어의 정의와 범위	1
2.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4
3. 품사별 특징과 조어적 특징	5
참고문헌	16
II. 북한 사전 미등재어 본문	19
색인	169

I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개관

I.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개관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본 자료집은 「로동신문」, 「평양신문」, 「문학일보」 등의 신문 자료와 「중앙방송」, 「북경방송」, 「평양방송」, 「러시아방송」, 「북한위성방송」, 「VOA」, 「RFA」, 「NHK」 등의 방송 자료, 그리고 그 외 다수의 정기간행물과 소설 및 시 등의 문학 작품들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을 모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수집된 전체 670개의 사전 미등재어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전 미등재어의 정의와 범위

본 자료집은 북한의 방송 자료와 신문 자료, 문학 작품 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를 찾아보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자료집에서 설정하는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이면서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 및 구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 미등재어 중에서 언중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일부는 신어의 지위를 얻어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미등재어가 곧 신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미등재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되다 사라지는 임시어일 따름이며, 특정한 목적에 의해 잠깐 쓰이고 마는 임시어들과 신어를 구분해 줄 만한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새로운 임시어들 가운데 실제로 어떠한 말이 신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

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임시어가 신어로 인정되는 데에는 빈도의 개념이 도입된다. 이는 곧 특정한 어휘가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일정한 횟수 이상 자주 쓰여야만 그 말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주 쓰인다고 해서 모두 신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쓰인 어휘들도 사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어떤 말이 쓰이는 빈도는 지역이나 연령, 사회 등 언어 외적인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사전 미등재어를 신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어쨌든 사전 미등재어란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새로운 말이면서 곧 신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말들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나온 북한 사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어휘를 포괄한다. 그리하여 엄격한 의미로는 1992의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자료에서 뽑은 어휘는 실지로 쓰이고 있었는 데도 사전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재어가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어휘는 사전에 나온 뒤에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등재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쓰이는 ‘미등재어’라는 용어는 일관성 있게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북한의 신어(새말)과 관련하여 신어의 생성 원인을 살펴보고 『조선말대사전』 이후에 나온 어휘, 말하자면 북한 신어의 특색을 조감해 보기로 한다.

새말이란 기존의 의미와 전혀 유사성이 없이 만들어졌거나 기존 의미의 적용 범위를 확장 또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만든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의 말과 아무런 유사성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새말에 대한 접근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하나의 새말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전 미등재어로 남아 있게 된다.

새말의 생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대상

이나 개념에 대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났을 경우 이에 대한 이름을 새로 지어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대상을 그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기억 부담량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기존의 말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상과 사물의 출현에 대해서 ‘선군령도, 선군혁명, 선군정치’ 등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어들은 그 조어의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단어의 기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신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붙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북한에서도 새말을 만들어내는 한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사람들은 참신한 언어 표현을 위해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참신한 표현으로서의 신어는 대체로 문학 작품이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표현이 대중에게 널리 쓰이는 경우이다. 이전과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본 자료집에서 사전 미등재어의 수집 대상에 소설과 시 등 문학 작품들을 다수 포함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셋째로 외국의 새로운 문물 유입에 따른 말다듬기의 결과로 새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는 특히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꿔 사용하는 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말다듬기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말들이 많이 있다. 모서리공(코너킥), 벌차기(프리킥), 머리받기(헤딩), 차넣기(슛) 등 남한에서는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축구 경기의 몇몇 용어만 보더라도 북한의 이러한 외래어 다듬기의 노력이 엿보인다.¹⁾

1) 그러나 북한에서도 1997년 1월의 방침에 따라 축구, 권투, 농구, 배구 용어 등 스포츠 관련 용어는 국제 공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조선말 띄어쓰기규범』(주체 89, 학우서방)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새말의 형성 원인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새말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언어를 투쟁의 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여 말과 글에 사회성과 계급성, 그리고 규범성과 문화성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하나의 도구로 보는 관점으로, 언어를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정책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북한의 새말들에서 정치적 성향의 어휘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는 남한의 신어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용찬(2002)에 따르면 남한의 2002년 신어에서 가장 왕성한 조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연 외래어이다. 전체 단일어의 40%가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외에도 고유어나 한자어와 합성된 외래어까지 포함하면 외래어를 기원으로 하는 신어는 무려 전체의 64%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서, 총 670개 중에 단일어 10개와 합성어 8개로 그 비율이 고작 2.6%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교즈(만두), 하도메(브레이크), 하오리(웃웃), 도리우찌(모자) 등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다수였고, 서구어는 그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남한의 신어 생산에 영어 및 서구어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 말다듬기가 매우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서구어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 어휘 및 구에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들은 북한의 새로운 말들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성으로 지적될만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말은 670개 중 79개로 전체 조사 대상 어휘의 11.7%나 되었다. 박용찬(2002)에서 제시된 남한의 신어가 대부분 전문어나 일상적인 의미의 신어들로, 민간 언중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신어들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할만한 것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정 어휘들이 접사처럼 행동하여 무수한 수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 선군, 전투, 공장, 정신, 로력, 혁명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단어들만 바뀔으로써 의미의 확장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조어 방식은 남한에서 자주 쓰이는 ‘노래방, 게임방, 찜질방’ 등의 ‘-방’이나 ‘육설병’, ‘침단병’ 등의 ‘-병’과 같은 쓰임새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사처럼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대부분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주도의 정책적 고려에서 생산 양상을 엿볼 수 있다.

3. 품사별 특징과 조어적 특징

본 자료집에서 조사한 북한의 품사별 사전 미등재어의 수 및 비율은 <표1>과 같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는 명사가 가장 많은 전체의 74.4%를 차지했고 동사가 10.5%, 형용사가 9.1% 그리고 부사와 구가 각각 3.2%와 2.8%로 나타났다.

총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구
670	498	69	62	22	19
100%	74.4%	10.3%	9.2%	3.3%	2.8%

<표 1> 품사별 사전 미등재어 분류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일부도 명사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명사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사와 형용사에는 ‘-하다’, ‘-거리다’, ‘-지다’, ‘-나다’ 등 파생어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의 19.5%라는 비율은 박용찬(2002)에서 나타난 2002년 남한 신어의 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또한 본 자료집의 대상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와 구를 모두 포함하는 관계로 박용찬(2002)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사도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3.1. 명사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무한하지만 본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 사전 미등재어의 종류는 대체로 <표 2>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 명사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혼성어	생략어	두어
498	38	37	420	1	1	1
100%	7.6%	7.4%	84.4%	0.2%	0.2%	0.2%

<표 2> 조어별 사전 미등재어 분류

3.1.1. 단일어

단일어는 총 38개로 7.6%의 비율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사상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은 언어 경제적인 면에서나 조어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일어는 그리 많지 않다. 단일어로 이루어진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중에서 ‘가구라, 간즈메, 교즈, 도리우찌, 마꼬, 상발, 아브로라, 하도메, 하오리’ 등은 외국어

를 그대로 받아들여온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고유어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3.1.2. 파생어

파생어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조어 방식으로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접두사에 의한 파생보다 활발한 조어력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명사의 7.4%가 파생의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가) 접두사

파생어에서 사용된 접두사는 손 위로서 첫 자손을 의미하는 ‘만자손’의 ‘만-’, 없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인 ‘무비루스’의 ‘무(無)-’, 익지 않거나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생목’의 ‘생(生)-’, 제일의 의미를 가진 ‘최경지, 최종중’의 ‘최(最)-’가 있다.

(나) 접미사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에 비해 상당히 강한 조어력을 보여 주고 있다. 파생에 쓰인 대표적인 접미사들은 질병의 뜻을 가진 ‘-증(症)’,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쟁이’, 되풀이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질’, 비율의 뜻을 가진 ‘-률(率)’, 기술이나 효과를 의미하는 ‘-발’, 사람을 지칭하는 ‘-자(者)’, 성질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성(性)’, 물품을 나타내는 ‘-품(品)’, 버릇이 많거나 그러한 행동을 자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꾸러기’, 마음의 의미를 가진 ‘-심(心)’, 느낌을 뜻하는 ‘-감(感)’, 그리고 명사 파생 접사 ‘-口/음/기’와 ‘-이’ 등이 있다. 이러한 접미사로 인해 파생된 명사에는 ‘가깝증, 심란증, 두루마기쟁이, 이악쟁이, 엇드레질, 치닥질, 발더듬질, 식사질, 손갈구리질, 홀렁질, 해명률, 말발, 방조자, 쓸림견딜성, 해학성, 거인성, 증병품, 고생꾸러기, 숭배심, 영예감, 개개움, 곡률바로잡기, 걸다듬, 공중뽀, 나래엮기, 나릅잡이, 닭볶이, 뜸엮기, 모랭이, 실두렁짓기’ 등이 있다.

3.1.3. 합성어

합성어는 본 자료집에 실린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보이고 있는 조어 방식이다. 전체 명사의 84.4%가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합성법은 새말(미등재어)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조어 방식이다. 북한 사전 미등재 합성 명사의 합성 유형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로 나타났으며, 외래어+외래어의 유형이나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유형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 합성어	고유어+ 고유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외래어	파생적 합성	다중 합성
420	104	104	2	140	6	44	20
100%	24.7%	24.7%	0.5%	33.3%	1.4%	10.6%	4.8%

<표 3> 합성 유형별 사전 미등재어 분류

(가) 고유어+고유어

<표 3>에서 보면 고유어+고유어의 결합만큼이나 고유어+한자어의 결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외래어가 고유어나 한자어와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이러한 고유어+고유어의 합성어는 대부분 명사+명사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고유어가 포함된 합성어의 비율은 50%로 박용찬(2002)에 나타난 2002년 남한의 고유어 비율인 2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북한 사전 미등재어에서의 고유어 비율은 합성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파생어와 단일어에서 나타나는 고유어의 예까지 포함한다면 남한 신어의 고유어 비율과는 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신어와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 사이에 이렇듯 고유어의 합성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말다듬기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남한이 외래 문물의 명칭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에서의 말다듬기 사업은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외래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이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말도 쉽게 고치고 있으며 또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개념도 포함시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말을 다듬는 대상은 외래어는 물론이고 이미 쓰이고 있던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로 고유어가 많이 양산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유어+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로는 ‘가득누에, 가득잎담배, 가랑잎고깔, 가름옷, 가새당꽃, 가싯대, 가죽멜띠, 감자바우, 감자쪽, 감장메고양이, 강구를, 검들김치, 곱뻐, 공중배기, 길먼지, 길흙타기, 김치밥, 갱쟁이통, 꺾쇠발톱, 낫물, 내기슭, 널밭데기, 녇쿨메밀, 노랑풀, 논두렁매질, 낫나들이, 눈물집, 능개비, 답부리칸, 대갈받기놀음, 덜떡총각, 도투똥, 된탕, 뒤곳, 뒤동갱이, 뒤매, 등가지, 뜯모, 막낭딸, 막사리, 말짱, 맞서기경기, 머리부버리, 모개비, 무리벌, 무웁, 물게, 밀기침, 방아궁치, 배북, 배썩, 벌손, 벼툼, 보따지동무, 봄시위물, 부석잠, 분지미떡, 분틀구멍, 불나래, 불뭉이자리, 붓대포, 비가름, 비길획, 빼물기, 살찌우기못, 삼굿두리, 소매낙지, 손가락글자, 손가시, 손세레, 숙임돌, 솟토리, 실거품, 알모, 어림수, 옆틀, 오가리박죽, 이물머리, 이물벌림, 자갈터, 잠웃음, 잣검불, 첸년, 진겔, 찌까다비, 찻개나물, 천통구리, 칠칠모, 타개피죽, 통말, 특류, 풀엄, 풋낫, 피겔나무, 피겔바, 피찌, 하칠소, 한늬떼, 한방통, 한초, 허리어방, 헤판데, 호추알’ 등이 있다.

(나) 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의 유형도 합성 명사를 만드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전체 24.7%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 비율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순서와는 관련이 없으며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결합 양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고유어와 한자어처럼 그 기원이 다른 유형은 고유어+고유어나 한자어+한자어처

럼 기원이 같은 유형에 비해 결합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사전 미등재 합성어에서는 고유어+고유어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가식모판, 강시울, 강철수리개, 개념마당, 개눈깔잔, 개마대산, 개장변, 개찰가위, 갱내물, 격점내기, 격점옷, 계란탕수, 고기맥, 고치장포, 공땅, 공화국기, 광포벌, 교반봉, 국민모, 굴단물, 그물추개, 기념돌, 길희선, 김정일화춤, 깡패국가, 깨꼬생각, 꼬마가무단, 꼭다리모자, 꽃수건춤, 꽃체조, 나무허덕, 나무화대, 나무활차, 낙지바로, 납패서, 달옷, 닭고기쟁반, 대문통, 도막궁이, 도중대고, 룡갈이, 류행옷, 마감나르기, 마당거우, 말먹이새초, 말총건, 물관리공, 물원천, 물충, 물피난, 밀기반칙, 반간놀이, 방풍나래, 분분가, 불길소독, 뿔대군, 새초밭, 새형, 색사탕, 색실토리, 색천신발, 서강막바지, 세목장, 세밭구, 세소반, 손밀차, 신수놀이, 신파장, 씨실안내기, 아래학년, 알용닭상자, 앵물두상, 어미모판, 엄지넝에, 연덩이, 연로보장나이, 연전띠, 열다리목, 오자바람, 왕별, 외발기, 울뻐, 울장, 잡태기, 장식옷빈침, 재간기둥, 정치난쟁이, 조선글, 종자잔알감자, 줄기밭, 줄전구, 충성동이, 치레식사, 털천, 털향유, 텔레비죤런속소설, 틀경기, 틀동작, 파리찌, 펄대, 푸초밭, 해발서체, 행전끈, 황점, 흙진세’ 등이 있다.

(다) 고유어+외래어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외래어에 의한 조어 방식은 고유어나 한자어에 비해 그 수가 적다. 본 자료집에 실린 고유어+외래어의 예는 단 2개에 불과하며, 그 예로는 ‘빼또칼’과 ‘뿔탄’이 있다. 고유어+외래어의 비율은 전체 합성어의 0.5%에 불과하다.

(라)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의 결합 양상은 북한의 사전 미등재 합성 명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합성 방식이다. 전체 합성 명사의 3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한자어의 합성 예로는 ‘가정도구, 감옥생, 감옥어혈, 감정론리,

강력책, 강성대국, 강탈범죄, 갱기사, 거폭, 검신원실, 격검모, 격검술, 결의기일, 고랑관수, 고려병원, 고려약, 고려의학, 고속도사격체계, 고속도자동어선, 고속도제진기, 고압전주, 고음성대, 공동사설, 공동재부, 과학정책, 관원료, 광복성전, 교예체조, 교통보완원, 구급소생과, 국기훈장, 국제대사령, 그물운동물충표, 급양봉사, 기본집체, 기술개건사업, 기술동작, 기양제, 남남경제관계, 내부예비, 내외량심, 연로보장금, 논물관리공, 다부산자, 단우, 단조기, 답혼서, 대망, 대용열차, 대용자동차, 대중고려약, 대청결, 대학맞잡이, 뜻갈래사전, 량안관계, 련공인사, 련락갱, 련락공작, 련락로, 련락쪽지, 로력혁신자, 록음소설, 록태고, 리발결상, 마당리론, 만전쟁, 문예발표, 문예방침, 민립대학, 민족대국상, 박막, 반미성전, 백색고문, 백색지대, 보탑공원, 부조공농, 부후물소리, 붉은기수호전, 사도지, 사회주의선경, 선산부, 선평, 성립학교, 식료상점, 쌍침재봉, 안탁, 연로보장자, 예비집합, 예비총, 예술선동대, 오동군도, 옥감, 요문, 원간방, 원군미풍, 위력경기, 위탁상점, 유저, 유훈교시, 은물주리, 익측, 인간수업,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원, 인발구, 임진조국전쟁, 자고자대병, 저가치, 적세계, 전승절, 전연선, 전쟁죄행, 조선국민회, 조선반도, 좌경망동, 지식판, 지심, 직외해설강사, 직일기자, 차단봉, 차부, 책임일군협의회, 천만심장, 철봉비행, 체약쌍방, 초아진, 총대가정, 친일주구, 탁상교양자료, 탁상문학, 통보원, 퇴폐호텔, 판판백지, 평양열풍, 허망, 허허통사, 호상비판, 화면음악실, 흙모가요, 희극판' 등이 있다.

(마) 한자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의 경우에도 외래어의 조어력이 아주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박용찬(2002)에 따르면 2002년 남한 신어에서 외래어의 신어 조어력은 한자어를 압도할 정도로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어의 조어력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 남한과 북한의 어휘 형성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예는 ‘그루빠활동, 깃또구두, 당꼬바지, 색텔레

비, 약크림, 포전카드’ 등이 있다.

(바) 파생적 합성어

본 자료집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가 접사처럼 쓰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파생적 합성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남한의 ‘-방’이나 ‘-병’처럼 북한에서도 명사가 접사처럼 쓰이는 예가 발견되고 있다. 전체 합성 명사의 10.4%가 파생적 합성의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일반 명사가 접두사처럼 쓰여 파생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는 ‘로력전선, 로력전투’ 등의 ‘로력-’과 ‘주체문학론, 주체철’ 등의 ‘주체-’, ‘태양국, 태양궁전, 태양기, 태양민족, 태양산, 태양상, 태양서체, 태양성지, 태양위인, 태양절, 태양조선, 태양찬가, 태양화’ 등의 ‘태양-’, ‘선군사상, 선군시대, 선군정치, 선군혁명, 선군혁명실록’ 등의 ‘선군-’, ‘수령송가, 수령영생위업, 수령형상, 수령형상문학’ 등의 ‘수령-’, ‘혁명무용’ 등의 ‘혁명-’ 등이 있다. 또한 고유 명사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뒤에 다른 말을 붙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세기’, ‘김정일식’ 등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 명사인 ‘기지’, ‘전투’, ‘투쟁’, ‘정신’, ‘바다’, ‘폭탄’, ‘폭포’, ‘직장’, ‘바다’, ‘혁명’ 등의 단어가 접미사처럼 쓰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예들에는 ‘가금기지, 봉사기지, 부업기지, 가물전투, 가물투쟁, 강제정신, 기계바다, 노래바다, 노래폭탄, 달걀폭포, 비육직장, 장식불바다, 조선혁명, 중금직장’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단 하나의 단어가 파생 접사화 되어 활발한 조어력을 보이는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치의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대치의 방법을 통해 활발한 신어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임지룡(1987)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기준점이 되는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투쟁, 선군, 전투, 공장, 정신, 로력, 혁명’ 등과 같은 정치성을 포함한 단어가 그러한 새말 생산의 기준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 다중 합성어

다중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합성의 방법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 셋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휘들도 또한 정치성이 포함된 말들이 대다수이며 때로는 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중 합성어의 예로는 ‘2중영예붉은기, 365일위대성자료, 365일은덕자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4·15문학창작단, 5호담당선전, 6월4일문학상, 80년대속도, 국제친선전람관,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 백두산3대장군, 백두산상체육축전, 편지전달이어달리기, 편지전달계주단, 어휘정리사업, 염전염군사상, 웅군애민사상, 총대중시사상, 풀먹는집짐승’ 등이 있다.

3.1.4. 혼종어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혼종어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혼종어의 예로는 ‘만몽(만주+몽고)’ 하나의 예만이 보이고 있다. 남한의 신어에서는 혼종어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이러한 혼종어의 유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남한의 조어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5. 두어

두어의 방식은 서구어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자음만을 나열하여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약간 어색하게 보인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도 이러한 두어는 ‘트.ㄷ’ 하나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맨앞 자음만을 따서 만든 특이한 경우이다.

3.1.6. 생략어

생략어는 생략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가 하나의 어휘안으로 한정되어 일어난다는 점에서 혼종어나 두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생략

어의 예로는 ‘로련(로동련합회)’ 하나만이 나타나고 있다.

3.2. 동사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동사는 전체 어휘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도 명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단일어, 파생 동사, 합성 동사로 나뉘 볼 수 있다. 특히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들어 주는 ‘-하다’,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들어 주는 ‘-거리다’, ‘-대다’ 등의 접미사로 인한 파생 동사의 수가 많이 보이고 있다.

단일어는 ‘결으다, 떠지다, 뚜꾸다, 비끼다, 뿔구다’ 등으로 다른 동사들에 비해 그 예가 그리 많지 않다.

강조의 뜻을 가진 접두사인 ‘치-’가 붙은 ‘치때리다’의 예가 유일한 접두 파생 동사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 ‘갈치락거리다, 계투덜거리다, 교양하다, 굽각질하다, 궁출하다, 별결듯하다, 뭉싯대다, 설동하다, 아앙하다, 용지벌거리다, 쩌임하다, 쫄병쫄병하다, 적작하다, 커하다, 타격하다, 천만락심하다, 첸신못하다, 평끗거리다, 푸르락거리다, 죄겨대다, 호상부조하다, 환등화하다, 할기작거리다, 흥충거리다’ 등은 모두 ‘-하다’, ‘-거리다’, ‘-대다’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는 파생 동사이다. 파생 동사는 명사+접미사, 동사+접미사, 형용사+접미사, 부사+접미사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사의 합성은 주로 명사+동사, 동사+동사, 형용사+동사, 부사+동사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합성 동사의 예로는 ‘가대다, 가로뜨다, 개싸다, 니다, 건숭스치다, 게바라나오다, 결속짓다, 공중들리다, 까부려붙이다, 꿈져넣다, 나부르다, 내려꼰지다, 내배이다, 동져매다, 들이조기다, 벗겨쓰다, 부러져나오다, 색날다, 알쫄다, 여물구다, 와내다, 인찍다, 있어보다, 자갈넣다, 조겨보다, 줌절다, 쨍내다, 찍하다, 탕쳐놓다, 통걸먹다, 툴아오르다, 팡가치다, 품들이다, 허리치다, 허벼내리다, 해발다, 휘갈마들다, 휘여깎다’ 등이 있다.

3.3. 형용사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 형용사의 비율은 9.2%로 나타났다. 형용사 역시 동사와 마찬가지로 단일 형용사, 파생 형용사, 합성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형용사의 경우에도 ‘-지다’, ‘-하다’, ‘-되다’, ‘-나다’ 등의 접미사로 인한 파생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단일한 형용사의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일 형용사의 예로는 ‘고깝다, 단기다, 시글다, 사까랍다’ 등이 있다.

파생 형용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다’, 주로 의성어와 의태어 뒤에 붙는 ‘-하다’,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접미사인 ‘-되다’, 어떤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나다’ 등의 접미사가 붙어 형용사로 파생된 유형이다. 형용사로 파생되는 유형은 명사+접미사, 동사+접미사, 형용사+접미사, 관형사+접미사, 부사+접미사 등이 있다. 북한의 사전 미등재어에서는 이러한 형용사 파생의 유형들이 모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생 형용사의 예에는 ‘갑신하다, 거드러지다, 널찍지다, 느르끼레하다, 느슬느슬하다, 늘직늘직하다, 델롱하다, 뎡굴하다, 도투름하다, 등싯하다, 땅따무레하다, 매심하다, 매칠하다, 모두라지다, 무비루스화되다, 발기우리하다, 병글썩하다, 빨사하다, 빼대대하다, 뽕뽕하다, 빼덩하다, 숙일사하다, 시시부레하다, 씨드러지다, 안준하다, 어석버석하다, 요골요골하다, 용활무쌍하다, 우틀부틀하다, 웅건장중하다, 웅지다, 의미심중하다, 이상되다, 이물어지다, 저려나다, 저쫂하다, 제빠두하다, 즈족해지다, 찌글사하다, 칼날질사하다, 튀여질사하다, 허부러지다, 해발딱하다, 뛰쳐나다, 뜨거워나다, 시려나다, 쪼박나다’ 등이 있다.

형용사 합성의 방법에는 명사+형용사, 형용사+형용사, 명사+동사, 형용사+동사, 부사+동사의 유형이 있다. 합성 형용사의 예로는 ‘거리뜨다, 거머틱틱하다, 깨까사다, 몸나다, 살맞다, 새오루다, 애마르다, 여가있다, 옹굽다, 호불좋다’ 등이 있다.

3.4. 부사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부사는 전체의 3.3%의 비율로 나타났다. 단일어로 이루어진 단일 부사에는 ‘건승, 녀석, 어프덩, 엉글서, 자가룽’ 등이 있고 접미사 ‘-이’, ‘-히’가 결합해 파생 부사를 형성한 예는 ‘늑늑히, 들먹이, 옷뚜럼히, 우뚜럼이’ 등이 있다.

합성 부사의 형성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사전 미등재 어에서 특히 자주 관찰되는 것은 부사+부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개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건승건승, 몸바투, 뿌죽뿌죽, 쉬쭉쉬쭉, 썩썩, 우그그, 으힘으힘, 이룩이룩, 죽탕망탕, 지렁지렁, 쩌들쩌들, 한초한초, 허이허이’ 등이 합성 부사의 예들이다.

3.5. 구

본 자료집에서는 합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의 단어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구로 정리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구를 이루고 있는 예들로는 ‘트.ㄷ 열혈투사, 결정으로 박다, 고르고고르다 쥐고르다, 낡은 사회, 내용 있다, 눈을 뜨다, 달 건너 소식, 담화를 조직하다, 독보할내기다, 라남의 봉화, 말아 안다, 목갈린 소리, 성강의 봉화, 아름다운 소행, 앓을 자리, 조건을 쥐여주다, 조심을 두다, 추겨 내리다, 카툰의 언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영근(1997). “95년 신어의 형태적 구성”. 계명어문학 10집.
 박용찬(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이승명(2001). “신어의 해석적 연구”. 이중언어학 제19호.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1997.

II

북한 사전 미등재어 본문

빈 면

II. 북한 사전 미등재어 본문

2중영예붉은기 [㉮] 북한에서, 삼대혁명붉은기를 두번 수여받은 학교.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노동당의 총 노선인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관철하기 위해 당과 출판보도기관을 제외한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사회를 풍미했던 수많은 노력경쟁운동 가운데서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중운동이다. ¶ 뜻깊은 4월 초하루 봄빛 짙어가는 수도의 거리거리에 학생들의 물결이 흐른다. 그들 속에는 학교전의무교육을 마치고 인민학교의 꽃대문에 들어서신 신입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학교길을 재촉하는 모습도 보인다. 우리는 학생들의 물결에 이끌리어 장경네거리에 자리잡고있는 2중영예붉은기 평양장경인민학교를 찾았다.

〈북한위성 2001년 4월 1일 20:00〉

365일위대성자료 [㉮]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김정일 이상화를 시키기 위해, 주로 김정일의 저작이나 신문과 방송 등에 게재된 외국인들의 김정일 칭송 등을 이용하여 편찬한 자료. ¶ 이 과정에 이들은 대동군에 어려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탁상교양자료들과 365일위대성자료, 365일은덕자료 등 353종에 3만 1천 170여건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5호담당선전활동에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3면〉

365일은덕자료 [㉮] 김정일 이상화를 위해 선전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김정일의 은덕 정치와 관련한 선전자료. ¶ 이 과정에 이들은 대동군에 어려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탁상교양자료들과 365일위대성자료, 365일은덕자료 등 353종에 3만 1천 170여건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5호담당선전활동에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3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다그치기 위한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 그들은 종자혁명을 다그치고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나가며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계속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3면〉

4·15문학창작단 ㉮ 김일성 주석과 관련된 문학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창작해 내는 작가 단체이다. 김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본따 이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1967년 6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기와 주도로 설립되었다. ¶ 희망찬 새 세기의 두번째해가 바야흐로 밝아 왔다. 력사앞에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담당수행해 온 우리 4·15문학창작단의 전체 작가들이 이해의 진군길에 또다시 힘 있는 발걸음을 내짚었다. 우리는 지난해 선군시대의 거세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려 실로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다. 결과 우리는 올해에 백두산3대장군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한 1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독자들앞에 내놓게 된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3면〉

5호담당선전 ㉮ 1958년 7월6일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현지 지도시 제시한 것으로, 농업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가정 단위로 해서 진행하는 독특한 농촌 대중 정치 사업. ¶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1(1962)년 7월 1일 창성군 약수중학교(당시) 교원들과 하신 담화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배워주며 5호담당선전을 잘하자》에서 학생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5호담당선전을 실속 있게 벌려 나갈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2일 1면〉

6월4일문학상 ㉮ 문학통신원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상금과 정식 작가로의 등용 기회를 주는 문학상. ‘문학통신원’이란 공장, 농촌, 인민군대,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면서 문학 창작을 하는 신인들을 가리

킨다. ¶ 시문학통신원들은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한 수백편의 시와 가사들을, 소설문학통신원들은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들을 훌륭히 창조한 수많은 소설들, 아동문학통신원들은 우리시대 아동들의 정서와 생활을 동심적으로 실감있게 반영한 수백편의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해 냄으로써 10년기간에 17,000편의 군중문학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속에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 문학사에 기록될 《6월 4일문학상》 수상작품만도 24편이나 된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2면〉

80년대속도 ㉠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대중적 노력 경쟁 운동의 하나. ¶ 《80년대속도》창조운동은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80년대속도》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위력한 속도이며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는 자력갱생의 속도이며 기성공식과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속도이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7일 2면〉

ㄷ.ㄷ ㉠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약칭으로 김일성이 14세 때인 지난 1926년 10월 만주에서 결성했다는 최초의 공산주의 운동의 청년 조직이다. ¶ 우리 혁명위업은 동지애로 백승을 떨치는 위업이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빛나게 수 놓아 온 혁명적동지애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 피나고 있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동지애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의 동지, 《ㄷ, ㄷ》열혈투사가 되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2면〉

ㄷ.ㄷ 열혈투사 ㉠ 1930년대의 항일 투쟁 시기처럼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투쟁 정신과 변함없는 충성심을 발휘케 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일심단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내세운 인

간형. ¶ 우리 혁명위업은 동지애로 백승을 떨치는 위업이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빛나게 수 놓아 온 혁명적동지애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 피나고 있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동지애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의 동지, 《ㄷ, ㄷ》열혈투사가 되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2면〉

가구라 ㉠ ? ¶ 어디서 70메터탑식기중기를 가져오겠소, 보지두 못하구 듣지두 못하던 것을. 그럼 못세울 것 같소? 가구라루 용광로를 복구한 사람들이 현대화두 자력갱생의 정신으루 해야 하네.

〈빛나는 모습, 176〉

가금기지 ㉠ 가금을 기르는 근거지. 가금은 ‘길들여 기른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주로 알과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며 관상용, 싸움용으로도 기른다. 북한에서는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해 타조를 기르므로 타조를 가금으로 분류한다. ¶ 이번에 새로 개건 현대화되는 서포 닭공장은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에 언제나 마음쓰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해서 수도의 믿음직한 가금기지로 꾸려지게 된다. 지난 시기 이 공장은 일부 생산체계가 수공업적이거나 반자동화체계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건 현대화 되는 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컴퓨터화가 실현되게 된다.

〈평양방송 2001년 3월 6일 09:00〉

가깝증 ㉠ 답답함을 느끼는 증세. ¶ 윤의 어조는 탄력에 넘치던 아까와는 달리 차츰 심드렁해 졌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가깝증이 나게만 해요.》 《이런 탁 트인 논벌에서 가깝증이 나오?》 성결은 웃었다.

〈지평선, 9〉

가대다 ㉠ *건너편에 대다. ¶ 사령부의 자취를 뒤쫓으며 숨가쁜 행군을 해오던 리경준일행은 녹기 시작한 씨하진펄에 맞다들면서부터 사령부일행의 말발굽자리를 잃게 되었다. 모험삼아 진펄에 들어섰다가

도저히 그 위험한 소택지의 건너편기슭까지 무사하게 가낼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할수 없이 되돌아나와서 진펄을 피하여 험한 산밭을 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일행이 진펄을 되돌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 최선금의 눈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맺혔다.

〈백두산 기슭, 87〉

가득누에 ㉸ *가득나무로 키우는 누에. ㉨ 《잘 불긴... 어찌겠소. 좋은 세월이라 애들이 함께 가족경연에 나가자구 성화가 하나같이 김매기가 한창인 바쁜철에 이렇게 가득누에막에 나왔어 연습을 한대요. 잇달아 큰 공사도 한대는데...》 《여기 농장에선 물길을 종전설계대루 짜나가기루 한대우?》 나는 입을 하 벌리고말았다. 방금전까지도 오동나무피리요 뭐요 하더니 지금은 물길공사니 종전설계니 하는 왕청같은 소리를 한다.

〈조선문학 1992년 1호, 43〉

가득잎담배 ㉸ *가득나무 잎으로 피우는 담배. ㉨ 권영벽의 곁자리에 말없이 누워있던 광두섭 중대장이 긴 한숨끝에 몸을 일으키더니 부시럭거리며 가득잎담배를 말아 불붙여 물고는 다시 드러누웠다. 떡판같이 넓은 그의 잔등밑에서 잔 나무가지들이 와삭거리며 부서지는 소리를 내다가 잠잠해졌다.

〈압록강, 60〉

가랑잎고깔 ㉸ *가랑잎으로 만든 고깔. ㉨ 그는 처녀를 데리고 샘터에 이르렀다. 네면에 푸른 이끼가 오른 바위틈에서 쉬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 지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였다. 유희림은 넋떡 그 앞에 꿇어앉드려 벌컥벌컥 들이킨 다음 가랑잎고깔에 철철 넘치도록 물을 떠서 처녀에게 내밀었다. 《자.》 《아이, 망측해...》

〈그들의 운명, 14〉

가로뜨다 ㉸ *의중을 떠보다. ㉨ 프레스턴은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제독은 의아적인 눈길로 프레스턴을 힐끔 치며보고는 외면해 버렸다. 특사의 수족이 되어 여직껏 그 짓을 해오던 주제에 이제 와서 무

슨 판 수작이야 하고 가로떠보는 태도이다. 허지만 프레스톤 자신을 놓고 볼 때 국무장관이나 벨링캠 특사의 대조선 전략에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성벽에 비낀 불길, 211〉

가름옷 ㉮ *외출할 때나 일이 끝난 후에 갈아 입는 옷. ㉮ 천하에 이름만 들어도 왜놈들이 설설 기는 우리 장군은 돌아왔는데 웬일로 형님은 안계신단말이요? 형님이 단벌 나들이옷을 팔아 우리 칠성이 약을 사다주셨을때 가름옷 없이 어떻게 바깥출입을 하시겠느냐고 걱정하니까 사람이 옷이나 돈이 없어 못사는게 아니라 명이 모자라 못산다고 하시더니 그 말씀 틀린데 없구만.

〈준엄한 전구, 139〉

가물전투 ㉮ 가물을 막기 위해 벌이는 전투, 북한에서 전투의 의미에는 무장충돌이라는 의미 외에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는 의미도 있다. ㉮ 이렇게 가물현상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황사 현상이 나타날수 있지 않은가. 지난 3,4월에 중국의 내몽고 지방이나 또는 황하유역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이 들면서 황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황사현상을 관측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전민이 떨쳐나서 가물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간 가물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농촌 경리 부분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가물을 극복하기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다.

〈북한위성 2001년 5월 9일 20:00〉

가물투쟁 ㉮ 가물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북한에서 투쟁이라는 어휘에는 자연의 힘을 이겨내고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실천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 물을 주는데는 선후차를 선정해서 메마른 포전부터 또 가물이 타는 강냉이밭부터 먼저 주어야 한다. 강우물을 비롯해서 고랑관수 굴포 졸짱 등을 최대한 물원천과 설비들을 동원해서 가물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 농장 현 실태를 볼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강우관수와 고랑관수로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인 것이다.

〈북한위성 2000년 7월 10일 20:00〉

가새당꽃 ㉮ ? ㉮ 장식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에 아찔해지고 얼굴은 갑자기 무섭게 이그러졌다. 《이세상을 떠나간 서분녀가 하두 가엾어 그 불비속에서 살아난 저 가새당꽃을 그대로 가지고 왔네...》 최선달의 마지막 목소리는 폭 젖어 있었다.

〈리순신장군, 311〉

가식모판 ㉮ 임시로 옮겨심기 위해 만든 모판. ㉮ 포태산마루에 솟아 오른 아침해가 태양열온실에 흘러 들 때면 어미모판에 돌아 난 감자싹들이 유난히도 푸른 빛을 내뿜는다. 어서빨리 싹을 잘라 가식모판에 옮겨 달라는듯 어미모판을 짝 채운 감자싹들을 바라보는 김창호동무를 비롯한 이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쁨은 더없이 크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3면〉

가싯대 ㉮ *설것이하는 작업대. ㉮ 다시 말해서 배의 근육과 엉덩이 부분의 근육이 허리로 쏠리는 힘을 받아내기 때문에 허리에는 적은 힘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가싯대 앞에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바짝 갇다대고 곧바른 자세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곧바른 자세도 유지할 뿐 아니라 작업대가 가까이 놓여 있기때문에 일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것이다.

〈북한위성 2001년 11월 30일 19:00〉

가정도구 ㉮ *가재도구. ㉮ 내가 사상이나 정신면에서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것이 많지만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고향집에 전시해놓은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세기와 더불어1, 129〉

가죽멜띠 ㉮ *어깨에 멜 수 있게 달린 가죽끈. ㉮ 잔디밭 한쪽에는 군복저고리와 가죽멜띠가 달린 목갑총과 야전가방을 벗어서 아무렇게

나 한군데 무저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관하에 7련대장 오중훈이만큼 다사분망한 지휘관이 누가 또 있으랴만 지금은 이렇게 양지바른 잔디밭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한가롭게 노전일을 곁는다.

〈준엄한 전구, 33〉

가풀 ㉠ 꺼풀. ㉡ 그놈이 어찌도 살기에 차서 갈구리채로 내려쳤던지 아버지의 부서진 쇠골뼈가 허영게 드러났고 갈구리채에 스친 귀박죽이 이지러져 꺼뎡게 죽었다. 무서운 고열에 시달릴대로 시달려 입술은 갈래갈래 터졌고 죄다 가풀이 일었다. 볼수록 복통이 터져올라 춘권은 떨리는 두손길을 뻗쳐 아버지의 한손을 감싸쥐며 목메인 목소리로 피타게 부르짖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97〉

간즈메 ㉠ *통조림. ㉡ 이미 여기를 떠나기로 작정했던 마음은 쉬이 돌아서지도 않았다. 《자아! 이리 가까이 나왔소. 여기 간즈메도 있소.》 하고 춘석이는 소고기통줄임통도 내놓았다.

〈붉은 지평선, 309〉

갈치락거리다 ㉠ *거들먹거리다. ㉡ 감사는 담담하게 말했으나 중군은 감사가 여느때없이 근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물론 감사가 밑의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릴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찌르고드는 때는 거의나 없었다. 감사 박규수는 서윤이 뒤도 못꼬는 주제에 점잖게 자기만이 레의도덕을 지키는 사람처럼 갈치락거리며 한치앞도 내다보려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알뜰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성벽에 비낀 불길, 302〉

감옥생 ㉠ 낡은 사회에서: 감옥으로 징역살이를 가는것.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감옥어혈 ㉠ 감옥에서 생긴 피가 뭉치는 병. ㉡ 요즈음 한성옥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몸을 너무 무리한탓인지 감옥어혈이 도지기 시작했다. 기침은 서서히 몰려갔으나 얼굴에선 비오듯이 땀이 쏟아졌다.

〈그리운 조국 산천, 251〉

감자바우 ㉮ *산골짜기에서 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불쌍한 고아로 자라는 꺾두섭중대장과 세상에 입쌀이나 배, 사과, 꽃감 따위가 있는줄도 모르는 개마고원에서 감자바우로 자라난 최성필이 그리고 거의 모든 대원들이 난생처음 보고 처음 그 이름을 알게 된 약밥과 수정과까지 있었다.

〈압록강, 540〉

감자쪽 ㉮ 감자를 쪼개놓은 부분. ㉮ 고방에 있을줄로 알았는데 왕청 같은 옷방에서 대답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는 잉걸불을 가득 퍼담은 등뒤에서 곱돌장사기를 내놓으며 감자쪽들이 다 호지겠는데 어째서 아직 오지 않느냐고 원술이를 욕하기도 했다. 이젠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무엇때문에 새벽에 일하러 보냈느냐고 령감한테까지 푸념질이다.

〈붉은 지평선, 1〉

감장메고양이 ㉮ *검은색 산고양이. ㉮ 마차 안이 으시시해졌다. 죽음의 마귀가 감장메고양이같이 마차의 지붕이나 소창옆 어디엔가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듯싶었다. 어딘가 멀리에서 우구구-하는 괴이한 비명이 들려왔다. 무인지경을 헤매는 무리승냥이들의 울음소리인것 같다.

〈근거지의 봄, 192〉

감정론리 ㉮ *감정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리. ㉮ 시문학에서 감성적, 정서적 체험방식의 특성은 다음으로 인간의 사상감정의 생활적 표현 형태와 그 감정론리가 형성되는 것을 미세하게 체험한다는 것이다.

〈통일문학, 292〉

갑신하다 ㉮ *몸무게가 가볍다. ㉮ 그이께서는 얼른 걸어가시여 인순이를 품에 안아올리시였다. 무게가 갑신했다. 《너 학교에 가는것때문에 나왔지? 학교에 가야지.》

〈은하수, 107〉

강계정신 ㉮ 강계정신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6회 생일기념 노동신문 사설 “위대

한 당의 영도에 따라 최후승리의 강행군을 다그치자”에서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계혁명정신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절대숭배의 정신, 둘째는 영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셋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이다. ¶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마다 높이 발휘되었던 불굴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혁명의 각이한 년대마다 높이 발휘되었던 불굴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을 새로운 총 돌격전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발휘된 강계정신은 새 세기에도 우리 로동계급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5일 1면〉

강구를 ㉠ ? ¶ 떠오르는 아침해인양 강구를 우를 굴러나간다.

〈잊을수 없는 나날에(련시), 314〉

강력책 ㉠ *강력한 대책. ¶ 아베는 제국의 병참기지요. 생명선이요 하면서 조선과 만주의 치안숙정에 강력책도 내밀었다. 그는 관동군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으로 《공산군》과의 10년대결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확신하였으나 그 역시 허망한 꿈처럼 깨여지고 말았다.

〈준엄한 전구, 336〉

강성대국 ㉠ 강성대국이란 북한이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시한 국가전략목표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에 존엄을 떨치는 나라를 의미하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사상과 신념이라고 말한다. 강성대국 건설의 유일한 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일관되게 관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2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새 소식들을 련속 전해 오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3면〉

강시울 ㉮ *강가. 강변. ㉮ 춘권이 달려나가 주낙줄 앞쪽을 잡았다. 그러나 고기가 하도 요동을 치는바람에 줄을 잡은채 강시울로 내려서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며 줄을 놓쳐버렸다. 선생님이 물창에 뛰어드시었다.

〈성벽에 비긴 불길, 27〉

강철수리개 ㉮ *쇠로 만든 술개. ㉮ 《철의 수림우에 강철수리개 난다!》 누군가 철기둥에 기여오르며 손을 휘젓는다.

〈당원의 모습, 250〉

강탈범죄 ㉮ 강도 등 강력 범죄. ㉮ 도쿄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3월 30일 일본최고재판소는 일본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에 16-19살나이의 청소년들속에서 살인을 초래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59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살인을 초래한 강탈범죄증대률은 10년전에 비해 5.7%나 더 늘어 났다 한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3일 6면〉

개개움 ㉮ *부대끼는 일. ㉮ 자신의 역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고싶지 않아 그적 콩밭에 눈길을 보내고있던 춘권은 꿀도 별로 있을 상싶지 않는 콩꽃을 찾아 우거진 콩잎들속에 드나드는 벌들을 보노라니 자연속에서 별로 개개움이 없이 먹이를 구하는 벌레들조차 살아가기가 저처럼 고달픈 것일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성벽에 비긴 불길, 194〉

개념마당 ㉮ 의미장 이론. ㉮ 개념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초기 마당리론의 요소는 본질상 과학적개념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 과학이전에 얻어진 일반생활적개념에 기초한 마당이였다. 이것은 사실상 의미마당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용어들을 기초로 하는 개념마당은 앞에서 말하는 《개념마당》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용어로 구성되는 개념마당은 과학기술용어 시소라스를 구성한다. 1993년에 발행한 《표준실마리어사전》이 바로 그러한것이다.

〈조선어문 1997년 4호, 27-29〉

개눈깔잔 ㉮ *작은 술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여보게 갑산

총각, 이 개눈깔잔으로는 성이 차지 않네, 어때 이게.》

〈붉은 지평선, 417〉

개마대산 ㉮ 백두산을 달리 이르는 말. ㉮ 력사연구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조선의 큰 산의 이름인 《개마대산》에서 《개마》는 《검은색》을 리두식으로 표기한것이며 신라의 왕 이름인 《혁거세》에서 《혁거》는 《붉은색》(또는 《빨다》)를 리두식으로 표기한것이다. 또한 신지의 다음가는 벼슬이름을 《검측》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검다》는 뜻이다. 이 산이름, 사람이름, 벼슬이름들은 아득히 먼 옛날에 쓰인 단어들이다.

〈조선어문 1999년 4호, 8-10〉

개부리 ㉮ 담뱃대에서 입에 무는 부분. ㉮ 아편은 되기도 잘되었다. 잎사귀마다가 손바닥만큼씩 넓적넓적 한 것이 척척 처져있고 시꺼멓게 독을 쓴다. 아편대마다 은록색 개부리가 삐죽삐죽 나와서는 머리를 꽃꽃이 세우고 입을 벌리려고 했다. 아편밭 여기저기에는 먼저 핀 하얀 꽃이 점점이 보인다.

〈붉은 지평선, 336〉

개싸다니다 ㉮ *마구 돌아다니다. ㉮ 《길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쪽은 더 위험하우다. 거기에 요즘 노다지가 난다는 굴이 있어서 감독놈들이 개싸다니 듯하는데 그 감독이라는 것들이 다 특무들이고 태반이 무기를 가지고 있소다.》

〈두만강 지구, 622〉

개장변 ㉮ ? ㉮ 《혜윤이 애비가 일군 논판이네. 그 애 애비가 갓장가들었을 때니까 40년은 못돼도 30년은 훨씬 전일이니. 그때에는 여기까지가 개장변이었어. 돌자갈투성이구.》

〈지평선, 18〉

개찰가위 ㉮ *개찰구에서 검표할 때 쓰는 가위. ㉮ 《일없어요. 내가 차표를 사겠어요.》하고 한영희는 서슴없이 개찰구로 나갔다. 개찰가위로 손바닥을 다독거리다가 무료함에 못이겨 누런 이를 드러내고 하품을 하던 젊은 역부가 한영희를 보고 흠칫 놀라 똑바로 섰다.

〈대지는 푸르다, 22〉

갱기사 ㉸ *갱에서 일하는 기사. ㉨ 문소리와 함께 로무계장 길곰보와 일본인 갱기사가 나타났다. 사또는 리성을 수습하기 위해서인지 잠시 몸가짐을 형클지 않고 서 있다가 두녀석에게 지시했다. 《이 비상사태앞에서 우리는 꾸물거릴 권리가 없는거다》 그는 이제 당장 손을 써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굴형편부터 알아봐야 한다는것을 이야기하고 《신의》에 찬 목소리로 말투를 바꾸었다. 《당신들의 수고를 빌자는거요 … 로무 계장, 갱기사, 당신들은 이 어려운 일에 당신들 두사람을 지목한 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요.》 두 하줄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머뭇거리던 끝에 재난이 벌어지고있는 굴간현장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운명, 216〉

갱내물 ㉸ *갱 안에서 흘러 나오는 물. ㉨ 멀지 않아 갑산광산에는 갱내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수력발전소가 또 늘어나게 된다. 갱내물은 겨울철에도 쉽게 얼지 않으며 발전소를 거칠 때마다 그 온도는 조금씩 높아진다. 때문에 갱내물을 리용하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03〉

거드러지다 ㉸ 거만하다. ㉨ 차역만은 눈길을 떨구더니 어쩔수 없는 듯 실토했다. 우세영의 첩년은 입이 거드러진 년이라 밥상에 숭어국이 나 숭어찜이 오르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식성이라 춘희가 매일 저자 거리에 나와 차역만의 아버지한테서 숭어를 사가는데 오늘아침에 춘희가 한발 늦게 나와서 숭어를 못사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낚물에 숭어를 건져왔기 때문에 가져다주려는길이라고 했다.

〈성벽에 비긴 불길, 181〉

거리뜨다 ㉸ *멀리 떨어져있다. ㉨ 《동무의 몸이 회복되었다니 매우 기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자결에 그대로 서있는 중열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저만치 거리뜨게 서있는 두 부총리와 과학관계책임일

군들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들속엔 오래동안 외국에 가있던 함박사도 있었다.

〈먼 길, 370〉

거머틱틱하다 ㉸ 거무스름하다. ㉡ 향옥은 한성옥이가 편별장의 떼군들을 피해온 자기의 처사가 온당치 않은것이라고 점잖게 이르는 말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이전에도 한성옥은 떼를 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머틱틱하고 불쌍사납게 굴어도 마음은 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숲속에서 향옥이를 훔쳐가려던 녀석들은 떼를 타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신파소장대 부랑배들이라고 일깨워주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89〉

거인성 ㉡ (보통사람에 비하여) 지식이나 행동 등이 크게 뛰여난 특성.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7-9〉

거폭 ㉡ 큰폭. 광폭(廣幅). ㉡ 백두산장군 김정일동지께서 이 땅우에 이런 거폭의 경륜을 펼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거인적심장과 세기적안목을 안겨 주시고 우리 조국의 어깨에 강성대국의 억센 나래를 달아 주시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8일 2면〉

견승 ㉡ 어떤 일을 대충 하는 모양. ㉡ 좀 더 노력을 들이면 미끈한 살결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견승 굶때는것은 그의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형보는 담배 한가치를 붙여물고는 더욱 재계 일손을 놀리웠다.

〈해쑈는 바다, 54〉

견승견승 ㉡ 어떤 일을 대충 하는 모양. ㉡ 원술이는 순탄이네 일을 꼬치꼬치 물었지만 박춘석이라는 그 사람 말이 나올가 봐 전중모는 견승견승 대답했다. 몇 마디 더 묻던 아들은 아버지가 졸려서 그러는 줄 알고 잠자코 말이 없다. 림성재는 깊이 잠들었다.

〈붉은 지평선, 140〉

견승스치다 ㉡ 대충 지나쳐버리다. ㉡ 배수리, 기관은 배의 심장이다.

이런 긴요한 문제를 기철이 건승스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는가! 결국 기철은 선원들의 광범한 의견도 그리고 배의 구체적 실정도 고려함이 없이 유독 자기 한개인의 주관적욕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선원들을 모험으로 추동하는것이 분명했다.

〈해솔는 바다, 41

검들김치 ㉠ 무있이 달린 그대로 담근 김치.

〈문화어학습 1969년 4호, 10〉

검부럭지 ㉠ 검불. ㉡ 리풍우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무시와 함께 언론인을 향해 가해진 사회의 압력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나약하고 우유부단함을 통감하였다. 자기를 굳건히 방비하지 못해 생겨난 조그마한 틈새기로 탕수가 밀려들어 감탕과 검부럭지들이 쌓이고 덧쌓인것이다. 누구를 탓하라.

〈그리운 조국 산천, 460〉

검신원 ㉠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 ㉡ 그들 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그들은 밥보자기를 검신원에게 맡기고 갯안으로 들어갔다.

〈발파소리, 53〉

검신원실 ㉠ 검신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 바빠 돌아가는 김준걸의 마음만 괴롭힌게 아닌가? ...그가 이렇게 혼자 묻고 대답하며 굴입구로 가는데 검신원실앞에서 누군가 소리쳐 물었다. 《어떻게 하겠대? 소대장이 동의해?》

〈잊을수 없는 시절, 100

겔다듬 ㉠ *겔으로만 열심히 일하는척 하는 것. ㉡ 《그새 술한 날이지났는데 자신이 서지 않다? 자신이 서지 않는다니... 정군을 어떻게 보아야겠나. 정군도 콩밥신세를 좋아하지 않겠지? 하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후부터 태진은 겔이 앞서고 남의 눈에 떨가봐 겔으로 열성을 내는것처럼 하였으나 여전한 겔다듬이었으며 될대로 되라는 심사였다.

〈새로운 항로, 48〉

게바라나오다 ㉸ *게처럼 함부로 돌아다니며 나오다. ㉡ 《그 사람들도 여태 강을 못건너가고 객주집에 잡혀있다는구나. 치잡이가 두만강 초입의 삼일객주집에서 밥사먹다가 아무래도 네가 강쪽으로 게바라나 올것 같아서 떼를 매놓은채 달려왔다더라.》

〈두만강 지구, 132〉

게투덜거리다 ㉸ *불평을하며 투덜거리다. ㉡ 목구멍에서 술탄내가 풍기고 종다리가 매시시해져 허둥지둥 달려가던 프레스톤은 웅덩이에 발을 내짚어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가 게투덜거리며 일어서는데 우뚝 앞에 검은 형체가 막아섰다. 공포감에 미칠듯이 신경이 곤두선 그자는 《어이호!》 하며 땅을 짚고 도로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성벽에 비낀 불길, 341〉

격검내기 ㉸ *검도 시합. ㉡ 장쇠는 아직도 한쪽눈이 시원치 않아 옆에서 들어오는 놈의 칼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송희립의 구원을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송희립과 칼씨름하듯 격검내기로 싸우던 그 왜적의 목은 장쇠가 마지막으로 끝장을 냈다. 싸움은 더 오래 가지 않았다.

〈리순신장군, 325〉

격검모 ㉸ *검도 시합을 할 때 쓰는 모자. ㉡ 무술련습이 한창이던 무덕관은 삼시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격검옷과 격검모를 쓴 채 창문을 넘어 달아나는 놈들, 유술복을 입은 채 복도로 달아나는 놈들, 어디로 뿔지를 몰라 무덕관안에서 뉘을 잃고 뱅글뱅글 맴도는 놈들, 움짹달짝을 못하고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두손을 짹짹 비비는 놈들… 《뿡!》 하고 무덕관안에서 수류탄이 튀었다.

〈짚레꽃, 335〉

격검술 ㉸ *검도 기술. ㉡ 다께가와는 섭생에 철저하며 하루 세 번 주재소뜨락에 나와서 체조를 하였으며 도장을 꾸리고 격검술을 장려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위인이었다. 박수원은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당직경관을 제외하고 올수 있는 주재소의 인원 중에서 두명이 오지 않은것을 미루어볼 때 조마조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근거지의 봄, 561〉

격검옷 ㉮ *검도 시합을 할 때 입는 옷. ㉮ 무술련습이 한창이던 무덕관은 삼시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격검옷과 격검모를 쓴 채 창문을 넘어 달아나는 놈들, 유술복을 입은 채 복도로 달아나는 놈들, 어디로 떨지를 몰라 무덕관안에서 뉘을 잃고 뱅글뱅글 맴도는 놈들, 움작달삭을 못하고 그자리에 폴썩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두손을 싹싹 비비는 놈들… 《짱!》하고 무덕관안에서 수류탄이 튀었다.

〈짚레꽃, 335〉

결속짓다 ㉮ *마무리하다. ㉮ 처음 한동안은 복잡하게 헝클어져서 언제 가야 끝을 볼지 전망이 막연하였으나 금성동지의 능숙한 회의지도로 어느새 논의는 제궂으로 모여들고 마치 뒤엎겼던 실꾸리가 풀려나가듯이 술술 풀려나갔다.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명백하게 갈라졌으며 전반적으로 회의를 결속지을 때가 되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의 전망이 뚜렷해진 오늘 일찌감치 모임을 끝내시고 적과 대치된 일선경제진지를 몸소 돌아보시었다.

〈고난의 행군, 89〉

결으다 ㉮ *엮다. ㉮ 잔디밭 한쪽에는 군복저고리와 가죽멜띠가 달린 목갑총과 야전가방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한군데 무저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관하에 7련대장 오중훈이만큼 다사분망한 지휘관이 누가 또 있으랴만 지금은 이렇게 양지바른 잔디밭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한가롭게 노전읖을 곁는다. 하기는 다행히 오늘은 노전이라도 곁을 궁리가 떠올라서 일감을 손에 잡았지만 어제까지 사흘동안은 호젓한 이 림시병원 골짜기에서 하는 일 없이 꼬바기 빈손으로 놀았다.

〈준엄한 전구, 33〉

결의기일 ㉮ 실행하기로 뜻을 품은 기한. ㉮ 종전의 방법대로 로정부 분부터 차례로 하나하나 해체하는 방법으로 하자면 도저히 결의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3면〉

결정으로 박다 ㄷ 확실히 결정하다. ¶ 《지난날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 우두머리들은 인민들이야 어떻든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도 무엇인가 해낼것처럼 돌아치다가 운동자체를 피투성으로 만들어 버렸소. 우리는 그 교훈으로부터 진실한 혁명가가 할일은 연설을 잘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온 겨레가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카뮈회의에서 결정으로 박았소. 그런데 동무는 결정을 할 때는 손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자마자 또 인민들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동요한다고 면박을 주고 적과 내통한다고 의심을 했소.》

〈대지는 푸르다, 589〉

계란탕수 ㄷ 계란을 이용해 만든 요리의 하나. ¶ 달구지를 타고오던 수십마리의 닭들이 런쇄반응을 일으켜 《꼬꺼거》 《꼬꺼거》하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하, 이거 달구지우에서 계란탕수 만드는 것 아니야??》 리방은 그제야 정신이 펴쩍 들어 제 동가슴 아픔보다도 달구지에 처실은 계란상자 걱정이 더러 낫던 모양 달구지군을 닦아 세웠다.

〈성벽에 비긴 불길, 290〉

고기맥 ㄷ *고기 입질. ¶ 한시간 가까이나 참을성있게 기다려도 고기맥이 없으니 꼬마들은 벌써 싫증이 나는지 더 떠들어댄다.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

〈두만강 지구, 545〉

고랑관수 ㄷ 밭고랑에 물을 대주어 밭을 적시는 물대기 방법의 하나. ¶ 물을 주는데는 선후차를 선정해서 메마른 포전부터 또 가물이 타는 강냉이밭부터 먼저 주어야 한다. 강우물을 비롯해서 고랑관수, 굴포, 쫄짱 등을 최대한 물원천과 설비들을 동원해서 가물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 농장 현 실태를 볼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강우관수와 고랑관수로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북한위성 2000년 7월 10일 20:00〉

고려병원 ㄷ 한의원. ¶ 의약품은 3천여종이 전시되었다. 그중의 대다수가 고려약들이다. 특히 도고려병원에서 만든 위 및 십이지장질병

치료와 대상포진치료에 효과가 좋은 약들을 비롯하여 도의약품관리소, 도인민병원 그리고 강령, 웅진군의 보건기관의 의약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3일 4면〉

고려약 ㉠ 고려의학에서 사용되는 약. ㉡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강계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재보, 고려약공장에서 보다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생산해 낼 불 같은 충성의 결의를 가다듬으며 새해의 첫 걸음을 크게 내짚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25일 4면〉

고려의학 ㉠ 서양에서 발달한 양의와 대비하여 쓰이던 동의학을 새로 고쳐 부르는 말. ㉡ 고려의학 개강식이 6월19일 에콰도르의 모로나 썬띠아고주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개강식에는 모로나 썬띠아고 주 장관을 비롯한 주정부인사들, 에콰도르의사협회와 조선에콰도르친선문화센터 성원들, 청강생들, 우리 나라 고려의학강의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3일 6면〉

고르고고르다 ㉠ 쥐고르다 ㉡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 잘못된 선택을 하다. ㉢ ‘무색투명’한 황도주의자를 찾아낸다는것이 이렇게 혼해빠진 파쑈분자들가운데서도 쉽지 않았다. 결국 고르고고르다 ㉠ 쥐고르다는격으로 아베노브유끼라자를 골라놓고보니 고른자들까지 어처구니없는 맹물단지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일제로서는 력사의 회오리바람에 태질을 당하여 동서남북을 분간 못할 방향상실의 시기였다.

〈두만강 지구, 639〉

고생꾸러기 ㉠ 고생을 심하게 많이 하는 아이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일을 못하게 말려내자는 자신이 잘못인것 같으시였다. 이악스럽기도하고 귀엽기도 하시였다. 제 오빠의 가족신을 아궁앞에서 말려주면서는 언제 이 고생꾸러기들 발에 비단같이 보드라운 신발을 신겨볼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착하고 이악한것한테 언제 이 막

막한 고생을 캉그리 앓아낸 밝은 날을 가져다 안겨줄수 있을까!

〈은하수, 255〉

고속도사격체계 ㉸ 빠른 속도로 사격할 수 있는 체계. ㉡ 이 구축함은 이지스 체계외에 고속도사격체계와 미사일들을 장비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6면〉

고속도자동어선 ㉸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무인 조종 어선. ㉡ 《무인정이라면 모선에 있는 지령실 같은 데서 전파를 발신하여 원격 조종하는 사람이 타지 않는 고속도자동어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인정은 조타나 투망, 양망, 속력조절 등을 사람이 하는 조타나 투망, 양망, 속력조절 등을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모선에서 수행하게 되지요.》

〈해돋는 바다, 118〉

고속도제진기 ㉸ *빠른 속도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 ㉡ 우관 섭은 그대로 앉아있기가 괴로웠다. 창가로 다가갔다. 습식청정탑이며 고속도제진기들...

〈고압송풍, 149〉

고압전주 ㉸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지탱하는 전신주. ㉡ 고압전주가 우는 소리, 호각소리... 건설장은 싸우는 맹수들의 울부짖음처럼 심술궂은 바람이 우세하는가.

〈당원의 모습, 234〉

고음성대 ㉸ 높은 음을 소리낼 수 있는 성대. ㉡ 선생은 전문가들을 무색케 할만한 희한한 고음성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대를 가지고 선생이 《전진가》나 《소년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온 교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감상하곤하였다.

〈세기와 더불어1, 88〉

고치장포 ㉸ *고추장에 절인 포. ㉡ 그런데 막상 벗었던 군교복을 다시 펼쳐입고 나서니 어쩐지 거치장스럽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것이였다. 춘권이 고치장포에서 광술까지 여러단 신포내려온 사공의 성의에 감심해서 그에게 감영의 직인과 감사의 실인이 찍힌 인수증을 내주고

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측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성벽에 비긴 불길, 401〉

고깝다 ㉸ 기울기가 급하다. ㉨ 《마지막 추위가 쫓겨가는것 같수다.》 고카운 올리막길에 숨이 찼던지 잠간 걸음을 멈춘 럽성제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숨이 차기는 그를 따르고있는 전중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붉은 지평선, 165〉

곡률바로잡기 ㉸ 흰 부분을 바로 잡는 것. ㉨ 2주일동안에 410여메터의 레루바꾸기, 1,210여정의 나무침목바꾸기, 분기기보수, 자갈청소, 놀틈바로잡기, 곡률바로잡기, 이음목해체검사 등 실로 많은 작업량을 해제졌다.

〈로동신문 1994년 9월 4일 3면〉

곶벨 ㉸ *배가 아픈 병. ㉨ 《야학선생이 간 뒤로 아이를 돌씩이나 떼웠다우. 하나는 곶벨을 앓아서 떼우고 큰놈은 광차에 깔려죽었다우.》

〈두만강 지구, 62〉

공동사설 ㉸ 공동으로 발표하는 사설. ㉨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은 올해에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5일 5면〉

공동재부 ㉸ *공중의 재산. ㉨ 위대한 인간의 력사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참된 위인의 삶일진대 그 발자취는 사말사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남겨져야 한다. 그러한 위인의 삶은 영원불멸한 전 인류의 공동재부이다. 그 생활의 아주 3작은 일조차도 범상한 인간들의 웅군 한생과도 비할수 없을만큼 고귀한것이다.

〈백두산 기슭, 169〉

공땅 ㉸ 허탕. ㉸ 날씨가 사나와서인지 손님이 없었다. 주인은 모처럼 외국손님을 맞이한 김에 손님이 없어 하루종일 공땅을 친 봉창을 할렘인지 굉장한 요리상을 차려내왔다. 주머니속이 빈약해서 종일 허술한 3등마차속에서 덜덜 떨면서 온 토마스로서는 기가 질리는 요리상이다.

〈성벽에 비긴 불길, 47〉

공중들리다 ㉸ *허공으로 들어올려지다. ㉸ 한껏 죄여붙인 그물 안에서 청어들이 서로 몸뚱이를 부시대며 와글와글 끓는다. 그 속을 2톤짜리 산대가 비집고 들어갔다가 공중들린다. 파다닥파다닥 가늀이 철철 넘게 청어를 듬뿍 담은 산대가 좌악-좌악 물을 쏟으며 천천히 어창우에 돌아와 똑 멎는다.

〈해쫂는 바다, 342〉

공중뿔 ㉸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양. ㉸ 결국 정지천에 의해 일이 터졌고 그이께서 엄중한 물질적단서와 함께 체포되었다는것을 알게 된 한성옥은 터져오르는 분노를 참을수가 없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현상액을 풀어놓은 범랑그릇이 공중뿔을 하다가 뒤집히고 책상우에 주련이 널려있던 잡다한 사진자재들과 기구들이 한꺼번에 나뒹굴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551〉

공중배기 ㉸ 공중제비. ㉸ 그는 누구에겐가 허공중에 건둥 들렀다가 공중배기로 땅바닥에 내려박히운데다가 뒤통수까지 발로 사정없이 밟히우는 심정이였다. 《대체 어디서 온 전보예요? 무슨 전보예요?》

〈새로운 항로, 427〉

공화국기 ㉸ 북한에서 자신들의 국기를 부르는 말. 남한에서는 흔히 인공기라고 부른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기를 대열 중심에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억센 기상을 안고 뚝뚝하고 당당하게 개막식장을 행진해가는 주체 조선의 청년들에게 군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남홍색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며 전진하는 대열속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친선 단결, 반제 연대성 평화 발전 등의 힘찬 외침이 연이어

올려나오고 장새납과 꿩과리, 중북의 경쾌한 장단에 맞추어 민속무용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씩씩하고 늠름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미더운 모습에 감동을 금치못해하며 군중들은 코리아, 코리아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중앙방송 2001년 8월 11일 06:00〉

과학정책 ㉠ *과학적 발전을 위해 세운 방책. ㉡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랭기를 풍기던 그들의 살기찬 눈에서 시봉은 공산당 정치인들의 ‘철저성’을 보았었다. 또한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과 같은 지식인들과는 손잡고 일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선언에서 공산당의 과학정책이 그런줄 알았었다. 따라서 시봉은 자기의 ‘금속공학연구소’가 번영할 래일을 이북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먼 길, 137〉

관원료 ㉠ *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 그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유희자재를 수집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려 관원료를 해결하였고 관생산을 진행할 때에는 밤을 새우며 전투를 벌려 불과 며칠동안에 수도관을 뽑아 냈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5일 3면〉

광복성전 ㉠ *독립운동. ㉡ 때이른 소년기에 벌써 백두산에 걸터 앉으시여 동해에 발을 씻으셨다고 하여도 말이 모자랄만치 담대무쌍한기개를 나타내신 장군님이시다. 10대에 벌써 구국의 장점을 비겨드시고 광복성전의 진두에 나서신 희세의 청년장군님이시다.

〈백두산 기슭, 152〉

광포벌 ㉠ *넓은 들판. ㉡ 끝없이 처절씩거리면서 밀려오는 파도는 그 무엇을 속삭이는가. 이제는 늪지로 되어버린 수백정보의 드넓은 광포벌을 한가슴에 시원히 안아보면서 우리는 뜨거움에 젖어 내 조국의 전변을 자랑높이 바라본다. 수백 수천년동안 바다에로 흘러가는 물줄기들이 합쳐져 끝없이 파도를 일구던 거세찬 물결이 언제 어디로 다 밀려나고 지금은 여기에서 풍만한 대지에 흰김이 무럭무럭 피어나고 있는가.

〈중앙방송 2001년 5월 31일 20:15〉

교반봉 ㉸ 휘저어 섞을 때 사용하는 막대모양의 도구. ㉡ 그들은 시약과 석탄에 온통 옷과 얼굴들이 어지러워져서 교반봉을 저었으며 쇠절구질을 하였다. 그런데 착화제 연구에서도 뿔탄제작에서도 좀해 전진이 없는것이였다. 산화제를 리용하면 무연탄에 불이 쉽게 달릴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뿔탄을 만드는데서도 소성방법이나 수선법이 곧 탐구되지 않았다.

〈새로운 향로, 283〉

교양하다 ㉸ 교육하다. 북한에서 교양의 의미는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중시정책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청년문제를 중심에 내세우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정치의 위대성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청년문제는 혁명의 다음 대를 키우며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중대한 문제이다.

〈평양방송 2002년 3월 22일 20:45〉

교예체조 ㉸ 북한에서, 체육과 교예예술이 결합된 체조 종목의 하나. ㉡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상업 성 체육선수단에서 교예체조에대한 훈련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음악 선율에 맞춰 우아하고 조화로운 동작으로 진행되는 교예체조는 체육과 교예예술이 결합된 종목인 것만큼 그 특성에 맞게 이곳 선수단에서는 무용기초훈련을 강화하하는 것과 함께 조형과 균형을 비롯한 체조기초훈련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특히 조선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우리식의 활달하고 교치성있는 기술동작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킴으로써 선수들의 교예체조 기술수준을 높이고있다.

〈북한위성 2000년 10월 15일 20:00〉

교즈 ㉸ 교자. 만두. ㉡ 민족음식뿐만아니라 매일 1만개의 교즈를 봉

사하기 위하여 자체로 마련한 1,000여평의 푸초밭을 새해에 들어와 배로 늘이고 땅을 걸굴 자급비료도 10여t이나 마련하였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8일 3면〉

교통보완원 ㉠ 교통 경찰. ㉡ 그때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에서 교통보완원들이 웃음 짓고 지휘봉을 들어 평양쪽을 가리킬 때, 절반길쯤 왔을가 저를 위하여 수도에서 승용차가 마중오고 새로 장만한 군관례복을 가슴에 안겨 줄 때 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양신문 2002년 1월 6일 2면〉

구급소생과 ㉠ 응급실. ㉡ 영예군인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김만유병원에서는 중태에 빠졌던 영예군인인 모란영예군인 악기공장 노동자 안창남 동무를 소생시켜서 초소에 설 수 있게 했다. 지난 8월 영예군인 안창남 동무는 급성 뇌막염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김만유병원 구급소생과에 실려오게 되었다. 과장 박종호 동무를 비롯한 구급소생과의 의료일군들은 여러 차례의 의사협의회를 진행하고 뇌기능 회복과 합병증을 미리 막기 위한 여러가지 치료대책을 세웠다.

〈북한위성 - 20011103 20:00〉

국기훈장 ㉠ 북한에서, 국가에 공훈을 세운 개인과 집단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 제1급, 제2급, 제3급이 있다. ㉡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선수단이 훌륭한 선수 감독들을 망라한 위력한 체육선수단으로, 튼튼한 기술 지도 역량과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춘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강화 발전된데대해서 지적했다. 평양시 체육선수단은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으며 수많은 체육선수들이 영웅으로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으로 자라났다고 그는 말했다. 보고자는 체육선수단의 일군들과 선수들 감독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체육방침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체육경기마다에서 더큰 성과를 이룩해 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대해서 강조했다.

〈중앙방송 - 20020415 13:35〉

국민모 ㉮ ? ㉮ 외양에 어울리게 고개를 끄덕거려보인 다음 그 화려한 양간을 펼쳐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윽고 당꼬바지를 입고 ‘국민모’를 쓴 사나이가 양복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땀을 흘리며 나무그늘속에 나타났다. 양산기슭으로 얼핏 눈길을 돌려본 진옥은 흠칫하더니 얼굴이 핏색하게 질리었다.

〈두만강 지구, 478〉

국제대사령 ㉮ ? ㉮ 얼마전 국제대사령은 창립 40돐을 맞으며 발표한 년례보고서에서 미국을 《세계인권분야에서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2일 6면〉

국제친선전람관 ㉮ 김일성·김정일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종합선물전시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계곡에 1978년 8월 26일 세워졌고 북한에서는 『영광의 선물관』·『세계의 보물고』라고 부른다. 연 건축면적 4만 6,000m²에 100여개의 전시실을 가진 전람관은 김일성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6층 규모의 한식건물과 김정일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2층짜리 양옥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일 선물 전시관은 1989년 3월 31일 개관되었다. ㉮ 옥돌로 정교하게 가고한 돛배와 상아조각 룡배, 지구의, 장점을 비롯한 진귀한 선물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운명의 구원자 수호자로 믿고 따르려는 세계인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두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대보물고, 세계적인 국보관, 위인칭소의 대보물관, 대중합박물관, 세계문화예술의 대중합체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못한 수많은 외국 참관자들의 반영 자료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흠모하고 따르는 인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국제친선전람관은 수령이 위대하면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해진다는 역사의 진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인칭송의 보물고인 것이다.

〈평양방송 2001년 10월 21일 13:00〉

굶각질하다 ㉸ ? ㉸ 《아니 전 팬찮아요.》 《자 어서 드우다. 전에 배를 탈 때엔 이렇게 굶각질하는것이 하나의 재미였수다.》 성룡은 정림에게 기어코 한토막을 주고는 자기것을 몇토막 더 내여 곁에 있는 선원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해쑷는 바다, 116〉

궁출하다 ㉸ 배가 출출하고 무엇이 먹고 싶다. ㉸ 《자, 이젠 떡이나 먹게. 자네가 궁출해할것 같다구 예숙이가 수고스레 만든거네》 어머니는 들고온 보자기를 풀었다.

〈적후의 별들, 154〉

꿀단물 ㉸ 꿀로 만든 주스. ㉸ 《너희들 수고했구나. 어서 여기 앉거라》 《자, 이건 꿀단물이란다. 목 마르겠는데 한모금 마셔라.》 한 처녀는 방긋 웃으며 나어린 학생의손에 사탕 한줌을 살며시 쥐여 주었다. 나역시 애들을 품에 꼭 안아 주고 싶었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4일 4면〉

그루빠활동 ㉸ 함께 행동하거나 공통점이 있어 함께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동. ㉸ 특히 함흥일판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지난해에 신파로 자리를 옮겨온 한성욱에 대한 자료는 매우 상세히 기입되어있었다. 함흥에서 민학선공산주의운동 그루빠활동을 전문으로 맡아보던 형사가 어제저녁 한성욱의 뒤를 미행해왔다가 신파경찰서에 그를 인계해주고 돌아간것이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223〉

그물운동물충표 ㉸ *그물이 움직이는 물층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 ㉸ 얼추 보아도 30여톤은 되겠다. 그런데 그 청어 떼는 전방 100여메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그물이 끌리고 있는 물층보다 10메터나 더 깊은데를 회유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급한 정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미 그물운동물충표를 만들어 놓은 기철은 당황함이 없이 신심에 찬 얼굴로 권양기 조종대에 붙어선 태일에게 지시하였다.

〈해쑷는 바다, 303〉

그물추개 ㉡ 그물에 달린 추. ㉢ 그물이 어느새 다 풀리고 조임줄이 빠드등거리며 천여 메터의 둘레로 행하니 뚫린 그물 밑이 천천히 배설으로 죄여든다. 그것이 끝나자 그물추개가 고르로운 동음을 퍼뜨리며 육중한 그물뚝음을 감아올리었다. 그전 같으면 썰노야의 구성진 가락에 맞추어 손힘으로 천천히 끌려나와 더디고 굼뜬것이 성능좋은 기계들로 당기니 미구하여 보장가까이까지 그물이 무난히 올라왔다.

〈해숫는 바다, 188〉

급양봉사 ㉡ 북한에서, 급양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일. ㉢ 그리고 5백여 평방의 온실도 건설해서 매 호동마다 3모작을 해서 사계절 신성한 남새를 키워냈고 버섯재배장도 만들어 연간 많은 버섯을 따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체 부업기지에서 생산한 생산물로 구역안의 급양봉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날에는 특별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보다 해야할 일이 더 많다.

〈북한위성 2000년 7월 2일 20:00〉

기계바다 ㉡ 북한에서, 기계가 아주 많음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북한에서 '바다'는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물건이나 어떤 현상이 넘쳐나도록 매우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 오익제 선생은 희천공작기계공장, 구월방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 등 도내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 기계바다 펼쳐진 작업장들에서 공작기계들이 흐름식으로 조립되어 나오는 모습을 본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천리해안의 예지와 필승의 담력을 지니신 위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이 공장에 찾아오시어 노동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주시면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기에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공장을 보란듯이 꾸리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 2000년 5월 30일 08:00〉

기념돌 ㉮ 북한에서, 기념탑에 붙이는 기념석. ㉮ 이로부터 지난해 8월 15일을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 현장의 평양에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을 건립할 것을 받기하였고 그 건립 과업을 힘있게 벌여 현재 기념탑은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북과 남, 해외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기념탑에 붙일 기념돌들을 수많이 보내오고 있으며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에서는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돌 제작 의식을 가지고 탑건설자들에게 격려편지를 보낸데 이어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여러점의 기념돌들을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평양에 보내려 하였다.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 건립에 기울이고 있는 그들의 이러한 통일 지성은 응당 높이 찬양받아야 할 민족애의 발현이다.

〈평양방송 2000년 5월 4일 21:55〉

기본집체 ㉮ *여럿이 함께 모인 집단이나 조직. ㉮ 다시 쓸어들것입니다. 그때 든든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이쳐야 합니다. 그래야 단꺼번에 적의 기본집체를 허물어 뜨릴수 있습니다.

〈두만강 지구, 29〉

기술개건사업 ㉮ *기술 개발 업무. ㉮ 실장 라봉빈 동무를 비롯한 이곳 과학자들은 새로운 벼품종 육성에서도 좋은 전망을 열어놓고 있다. 과학원 레이자 연구소의 학사 박학철 동무는 레이자에 의한 금속 및 합금의 열처리 방법을 주체적 입장에서 연구 완성해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중앙방송 2001년 5월 17일 06:00〉

기술동작 ㉮ *기술이 필요한 동작. ㉮ 음악 선율에 맞춰 우아하고 조화로운 동작으로 진행되는 교예체조는 체육과 교예예술이 결합된 종목인 것만큼 그 특성에 맞게 이곳 선수단에서는 무용기초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조형과 균형을 비롯한 체조기초훈련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특히 조선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우리식의 활달하고 교치성 있는 기술동작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

시킴으로써 선수들의 교예체조 기술수준을 높이고있다. 하기에 이곳 선수들은 지난기간 국내경기는 물론 제1차 아시아 교예체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 교예체조 명수급 경기대회에서도 높은성적을 쟁취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오늘도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북한위성 2000년 1월 15일 20:00〉

기양제 ㉮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내는 제사. ㉮ 《9월에는 구일이 이름있는 날인데 어찌된노릇인지 고장들에 따라 풍습이 다르거던요. 팔월추석에 햇곡식바심을 할수 없는 고장들에서는 이날 햇곡식으로 피밥을 지어서 산소에 가는가 하면 이날 돼지를 잡아 강가에서 기양제를 지내는 고장도 있거던요.》 《난 그런걸 모르고 지내왔구만.》

〈성벽에 비낀 불길, 23〉

길먼지 ㉮ *길에서 일어나는 먼지. ㉮ 주창범은 통절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문턱안에 가리워선 종다리어방에 가 밟았다. 색날은 바지에 각반을 탄탄하게 감아올렸는데 각반틈사리에 길먼지가 뽀얗게 끼고 무릎우 후렁후렁한 허벅다리어방에는 풀씨들이 매달려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250〉

길흠타기 ㉮ *길 옆에 움푹 패이거나 갈라진 곳. ㉮ 그는 안왔던 계사니를 내동댕이치고 골목으로 달려들어가며 무엇이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길흠타기에 떨어진 계사니가 날개를 푸득푸득거리며 시궁창물에 튕기였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달려나오는 사람들, 달려들어나는 사람... 온 거리가 와글와글 끓어번졌다.

〈근거지의 봄, 489〉

길희선 ㉮ 길림과 회령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 세차례에 걸치는 산동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대륙에 족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길희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길희선이란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회령사

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것은 명치시대 부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세기와 더불어1, 278〉

김일성민족 ㉠ 북한에서,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을 김일성우상화의 관점에서 이르는 말. ㉡ 위대한 영장을 높이 모신 김일성민족의 영광과 긍지가 한껏 넘쳐나는 내 나라 내조국 땅에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이 왔다. 백두광명성탄생을 소리쳐 자랑하던 역사의 그날부터 60번째의 연륜을 아로새기며 찾아온 뜻깊은 2월의 명절. 눈덮힌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도, 력사의 맹세가 새겨진 유서깊은 용남산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은 뜻깊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경축하는 우리 인민들의 명절맞이 기쁨으로 끝없이 끝없이 설레였다.

〈중앙방송 2002년 2월 16일 20:00〉

김정일세기 ㉠ 북한에서, 21세기를 김정일우상화의 관점에서 이르는 말.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으로 빛을 뿌리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은 재일조선인 예술단이 70만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에서도 잘 찾아볼수있다. 새 세기에 밝은 태양 우리 장군님 그 이름은 총련의 전진입니다. 고난이 겹쳐와도 미래만 있는 찬란한 새 세기는 김정일세기 아~ 70만은 햇빛처럼 빛내가리. 새 세기에 밝은 태양 우리 장군님 그 이름은 총련의 승리입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만 있는 찬란한 새 세기는 김정일 세기 아~ 70만은 햇빛처럼 빛내가리.

〈평양방송 - 2000년 12월 20일 19:50〉

김정일식 ㉠ 북한에서, 김정일의 광폭정책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들의 건축양식. 북한은 90년대 들어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선전하기 위해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가리켜 『광폭정책』으로 불려왔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유경호텔, 5·1경기장 등 그동안 김정일의 대표적인 치적물로 선전하여 온 것들이 김정일의 광폭정책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주장된다. ㉡ 영도자와인민이 사상의지

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되어 땀해야 땀수없는 혼연일체를 이룬것으로해서 주체조선은 가장 힘있고 영광넘친 사회주의 나라로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우리조국에 솟아난 대기넘비적 창조물들도 다 김정일식 창조물들이다. 20세기의 60년대에 이어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에 나라의 경제와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룩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설계로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아래 솟아 난것이다.

〈중앙방송 2001년 5월 23일 11:00〉

김정일화춤 ㉮ 북한에서, 김정일화를 들고 추는 춤. ㉮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수천명 예술인들이 펼친 환영의 춤물결 꽃물결은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루고 있었다. 예술인들은 김정일화춤과 장고춤, 조중 친선춤 등의 춤가락으로 자기들의 끝없는 환희와 격동을 한껏 펼쳐보였다. 손님들은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이렇게 쓴 횡단 구호가 걸려 있는 칠성문 거리를 지나 천리마 동상앞을 거쳐 창전네거리로 향했다.

〈중앙평양 2001년 9월 3일 17:00〉

김치밥 ㉮ 김치를 썰어 넣고 볶다가 쌀을 두고 지은 밥.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다. ㉮ 신문은 3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수원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쁨과 감격, 불타는 결의에 대해 쓴 기사들을 집중 편집하고 여러건의 국제소식을 전했다. 평양신문은 4면에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녀들에게 정서교양을 잘 하고있는 시 안의 여러 가정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구수한 김치밥 만들기에 대한 상식과 여성들의 머리단장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사회문화 기사를 실었다.

〈북한위성 2000년 12월 10일 17:15〉

깃또구두 ㉮ 새끼양(영어로 깃드)의 가죽으로 지은 구두를 이르던 말.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7-9〉

까부러불이다 ㉮ 조금 구부러서 불이다. ㉮ 녀자군대는 놀랍다는듯이

한걸음 비켜서서 필네를 새삼스럽게 뜯어보더니 새끼손가락을 까부려 붙인 손을 들어 군모채양밑으로 흘러내린 굵슬굵슬한 머리를 조용히 모자속으로 쓸어넣었다.

〈두만강 지구, 494〉

깡패국가 ㉸ 깡패의 성격을 지닌 국가. 북한에서 깡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으로 행패를 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놈 또는 그런 나쁜 놈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북미간 새로운 관계를 위한 미국, 인들이라는 긴 명칭을 가진 이 모임을 이끌고있는 찰리 그로스먼씨는 이 자리에서 북한을 방문한 자신의 소감을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북한이 서방사회와 협력국가관계가되는데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운동의 선결적인 조건으로 미국정부가 북한을 이른바 깡패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94년부터 이 같은 운동을 시작해 이끌어왔다는 그로스먼씨는 자신이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로 우선 아시아 민족에 대해 백인들이 가지고있는 우월감이나 인종차별에 대해 백인으로서 죄책감을 느껴왔으며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VOA 2001년 2월 11일 22:00〉

깨까사다 ㉸ ? ¶ 《애고오- 조캐사 그새 통 깜짝 안했소? 안조캐랑 다 깨까사오?》 설것이를 하다 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휘저으며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온 안씨는 그 건강하고 가무스름한 얼굴에 진심으로 반가와하는 미소가 어리었다.

〈붉은 지평선, 318〉

깨꼬생각 ㉸ ? ¶ '그러더니 이어 또 부엌문밖으로 나서며 인제 생각이 미친다는듯 다시 웨쳤다. 《애개, 내가 깨꼬생각을 했네. 부엌안에 까지 동이를 들여다줄 생각만 하고... 선생님, 여기 물동일 놔요. 어서 빨리 놔요.》

〈은하수, 100〉

깡깡이통 ㉸ 해금통. ¶ 《저게 무슨소리요?》 흥치도도 놀란듯 눈만

끔찍끔찍하더니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하였다. 《무슨 락화류수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 껍껍이통을 메고온 사람같습니다.》

〈두만강 지구, 497〉

꺂쇠발톱 ㉮ *구부러진 발톱. ㉮ 다시 보니 그놈은 번대수리가 아니라 우죽뿌죽 뿔이 난 대가리가 아홉 개인데다가 다리와 날개들이 뒤엉켜 요동치는 구렁이떼를 방불케 하는 세상없는 괴물이었다. 날창같은 주둥이들과 백 개도 넘는 꺂쇠발톱들 … 송아지는 어느새 이리저리 각이 뜯기워 절망어린 비명으로 피를 쏟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 203〉

꼬물 ㉮ 북한에서, 주로 ‘꼬물도, 꼬물이나, 꼬물만큼’과 같은 형태로 쓰여 보잘 것 없이 아주 적은 분량을 이르는 말. ㉮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 집권자는 어느 한 공개장소에서 자기의 임기중에는 통일이 되지않을것이라느니 북의 전쟁도발을 방지할것이라느니 하는 온당치 못한 소리를 제쳤다. 정말 온민족이 끓어오르는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 대결을 고취하는 극히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언사라고 하지않을수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집권자가 있지도 않은 그누구의 도발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자기 임기중에서 통일이 되지않을것이라는 그런 반통일적 언사를 함부러 내뱉는데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남조선 집권자가 통일할 의지가 꼬물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소리까지 망탕 할수있겠습니까.

〈평양방송 1999년 3월 6일 09:25〉

꼭다리모자 ㉮ 모자의 한 종류. ㉮ 동네가 이렇게 떠들며 분위기가 달라지자 큰마을에 있는 지주 연가는 이게 무슨 자기네 담장을 무찌르고 들어올 힘이라도 생겨나서 웅성거리지 않는가 해서 가병들을 단속시키며 비단다부산자에 꼭다리모자를 쓰고 마을을 어실렁거리며 걸어다녔다.

〈은하수, 95〉

꽃수건춤 ㉮ *북한에서, 꽃무늬가 있는 수건을 들고 추는 춤. ㉮ 4월의 밤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축포가 터져 오른다. 드넓은 광장에 환

회의 춤바다가 펼쳐진다. 지금 야회 참가자들이 꽃수건춤 율동을 아름답게 펼치면서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평양 1999년 4월 15일 19:24〉

꽃체조 ㉠ 집단 체조의 한 종류로 193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 이어 삼성학교의 전교학생들이 출연하는 《꽃체조》가 시작되었다. 리세호가 풍금을 타고 기영동이의 바이올린에 곽병호와 허재륜이가 하모니카로 받쳐서 《조선의 노래》를 연주하였다.

〈대지는 푸르다, 573〉

공저넣다 ㉠ 단단히 묶어서 넣다. ㉡ 《어제아침에 우리사령부성원들이 산천어국을 맛봤지.》 《틀림없이 철구아주머니가 그 산천어를 더러 소금을 쳐서 비상용으로 배낭속에 공저넣어뒀을겁니다.》 두사람이 자기네를 두고 수근거리며 수상쩍게 웃는것을 본 장철구와 김확실은 웬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압록강, 17〉

깎 ㉠ 끼움. ㉡ 조직들의 적극화되는 투쟁을 전일적으로 조직화하며 한계단 더 높이 이끌어올려야 한다. 개개로 흩어져 빛을 뿜기 시작하는 보석을 한깎에 끼고 그 보석깎을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핵이 있어야 한다. 그이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던 끝에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시었다.

〈혁명의 려명, 303〉

나래엮기 ㉠ *논과 밭을 판판하게 고를 때 쓰는 농기구인 나래를 엮는 일. ㉡ 우리는 농장의 작업정량표나 농장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것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모내기철에 많이 쓰이는 《논판고르기, 논두렁짓기, 논두렁매질, 실두렁짓기, 모뜨기, 모꼴기...》란 말을 비롯하여 《나래엮기, 뜸엮기 (벼)모뭉기, 도랑치기, 논물대기...》 같은 말들을 수많은 들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를 널리 해왔고 일찍부터 모내기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한 말들이 매우 풍부히

발전했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나름잡이 ㉸ 나이가 네 살이 된 가축. ㉨ 그는 여러해전부터 자기의 끈으로 청나라 지푸에 드나들며 밀무역을 하는 같은 서양오랑캐 교도인 김자평에게 부탁해서 마구일식을 값진것으로 마련했다. 이제 부사를 사냥놀이에 초청하여 늘씬하게 생긴 나름잡이 백마를 이채로운 마구들로 장식시켜 슬그머니 바친다면 밀구멍으로 호박씨 잘 깐다는 부사의 입이 함지만큼 벌어질것이다.

〈성벽에 비긴 불길, 99〉

나무허덕 ㉸ 널빤지나 나무로 만든 광. ㉨ 집은 미제놈들이 들어오자 《치안대》 사무실로 되었다. 그놈들은 원채만은 사무실로 쓰고 굽돌이의 고간, 나무허덕, 방아간 등은 《류치장》으로 만들었다.

〈아들은 전선에 있다, 278〉

나무화대 ㉸ 나무로 만들어진 불을 켜두는 도구. ㉨ 방안 나무화대에 불이 켜지고 저녁상이 들어온것은 얼마 안가서였다. 저녁상에는 어머니와 안해가 다심한 손길인양 대순볶음에다 닭볶이와 송이버섯찌개, 도라지생채, 고사리나물이 정성껏 차려져있었다.

〈리순신장군, 25〉

나무활차 ㉸ 나무로 만들어진 도르레. ㉨ 그러나 일단 바깥에 나서자 역시 변태익의 딸이라 표일한 기상을 드러내고 어디다 분풀이를 할것인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우물에서 오빠인 변인섭이가 나무활차의 손잡이를 돌려 우물틀우에 올라온 드레박의 물을 길다란 말구유에 쏟으려다가 이쪽을 돌아본다.

〈대지는 푸르다, 404〉

나부르다 ㉸ *나타나다. ㉨ 《제 애비는 그래도 우리 독립군부대에서 누구보다 예견성도 있었고 활동도 잘했소. 그런데 저건 어디서 저따위가 나블러졌는지 모르겠단말야.》 고인호는 그전 독립군때 일을 회상이라도 하는듯 한윤의 아버지를 추면서 한윤을 죽일놈이라고 또 한마디했다.

〈은하수, 20〉

낙지바로 ㉠ 낙지잡이. ㉡ 경애는 웃으며 다시한번 들여다본 다음 음료수통에서 물 한주걱을 떠내여 손수건을 적셔서는 박박 문질렀다. 《그러니까 동무도 낙지바로에 동원되었소?》 태일은 웃으며 바라보다가 물었다.

〈해쑥는 바다, 231〉

낡은 사회 ㉠ *사회주의 수립 이전의 봉건적 사회. ㉡ 오랜 세월 내려 오던 낡은 사회의 유물인 뽕기논들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됨으로써 2,310여정보의 논면적이 더 늘어났다. 이제는 어제날 지주들이 토지문서를 들고와도 《제 땅》을 찾을수 없게 되었다. 낡은 사회의 유물로 남아 있던 뽕기논들이 위대한 선군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없어졌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2일 1면〉

남남경제관계 ㉠ 북한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관계를 이르는 말. ㉡ 그리고 발전된 나라들과 다국적 투자업체들 국제무역 및 금융기구들이 이러한 남의 기준을 존중하도록 공동의 행동을 벌여 나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집단적 자력갱생에 기초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남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남남경제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가장 큰 후과의 하나는 남나라들을 각계에 분산시켜 남남협조의 기초와 분위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양방송 2000년 4월 15일 20:15〉

남박 ㉠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 시아버지도 맞동서도 찬동했다. 그래서 시아주버니가 밥함박을 달구지채우에 얹혀잡고 맞동서는 피조개 볶음을 담은 뚝배기를 옆에서 받쳐들고 그들 가운데 설매가 무친 도라지를 담은 남박을 들고서서 아버지에게 진지를 대접해드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입안이 헐어서 고추양념을 좀 많이 친 도라지반찬을 달게 몇입 받아 자시더니 입을 싸쥐었다.

〈성벽에 비긴 불길, 104〉

납패서 ㉠ 신부집에 혼례를 위해 보내는 서신. ㉡ 《그렇소? 그거 잘

됐구만! 늘 우리 집안을 돕는다더니 이젠 사둔간이 되고 말았소구려!
그래 납패서와 답흔서는 교환했소!》 《그런건 다 절차대로 했어요.》

〈김정호, 240〉

낫물 ㉠ 낫에 고기를 잡아오는 일. ㉡ 차역만은 눈길을 떨구더니 어쩔수 없는듯 실토했다. 우세영의 첩년은 입이 거드러진 년이라 밥상에 송어국이나 송어찜이 오르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식성이라 춘희가 매일 저자거리에 나와 차역만의 아버지한테서 송어를 사가는데 오늘아침에 춘희가 한발 늦게 나와서 송어를 못사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낫물에 송어를 건져왔기 때문에 가져다주려는 길이라고 했다.

〈성벽에 비낀 불길, 181〉

내기슭 ㉠ ? ㉡ 원술이는 경표를 보낸 그 자리를 뜰 생각을 못하고 내기슭의 돌우에 오금을 꺾고 앉았다. 그는 시름없이 흘러가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붉은 지평선, 60〉

내려쫓지다 ㉠ *내리쫓다. ㉡ 엇비스듬히 가로누워 내리던 비줄기는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에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렇게나 땅에 내려쫓진다. 마을 경내를 벗어나서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붉은 지평선, 385〉

내배이다 ㉠ 겉으로 배서 보이다. ㉡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채벌 현장에서 우리는 불이 번쩍나게 나무를 모으는 작업소부문당비서 김동수동무를 만났다. 이마에 구슬땀이 내배인 그의 온몸엔 왕성한 혈기와 정력이 넘쳐 난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6일 3면〉

내부예비 ㉠ 북한에서, 재생산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생산의 요소들로서 동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새해 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해설해주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조

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질 좋은 거름과 수많은 소농기구, 영농자재들을 장만했다.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이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평천구역안의 근로자들은 주인다운 입장에서 모두가 떨쳐나서 거름원천을 찾아내고 내부예비를 탐구 동원해서 많은 거름과 활창대를 비롯한 영농자재와 소농기구를 마련했다. 선교구역, 대동강구역, 용성구역, 모란봉구역을 비롯한 다른 구역 근로자들도 농촌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있다.

〈북한위성 2001년 1월 11일 20:00〉

내외량심 ㉮ 북한에서, 나라 안과 나라 밖의 양심 있는 사람들. ¶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당치않은 감투를 씌워 계속 붙잡아두고 박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내외량심의 일치한 요구대로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로인들을 비롯한 공화국 북반부에 가족을 둔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의 인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이 괴뢰당국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들이 살고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하루빨리 송환하기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평양방송 1999년 4월 3일 07:10〉

내용 있다 ㉮ 내실 있다. ¶ 교원들을 더욱 분발시키고 학부형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회의들이 시당일군들의 참가밑에 내용 있게 진행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널밭데기 ㉮ 넓은 밭. ¶ 《백암리에서 살다가 제가 있던 널밭데기에 이사온 한 집에 저한테 글을 배우러 다니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총각이 백암리서당에서 자기에게 글 배워주던 사람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소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지만 독학으로 중학강의를 툴 유식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고 말입니다.》

〈압록강, 180〉

널퍽지다 ㉮ 넓고 판판하다. ¶ 게 무어라고 귀속말을 하자 안해는

질겁을 해서 돌아앉아 있는 딸을 가리켜보였다. 녀인의 주먹이 남편의 널찍진 잔등을 때렸다. 선장의 너털웃음 소리가 들렸다.

〈통일문학, 232〉

넙석 ㉠ 넙죽. ㉡ 《아버님 나오셨습니까? 어머님도 나오셨군요...》 리풍우는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넙석 허리를 굽혔다. 《먼 길에 탈은 없었는가? 예화의 전보를 받고 오는 길인가?》

〈그리운 조국 산천, 462〉

넝쿨메밀 ㉠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메밀의 한 종류. ㉡ 해발높이 1,200m이상 되는 지대들에는 가라지, 메귀리, 솔풀, 넝쿨메밀, 털향유가 많다. 이 지대에 나는 김들은 벌방지대에 나는 김들에 비하여 잎, 줄기의 질량이 비교적 가볍지만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많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7일 3면〉

넌로보장금 ㉠ 국가에서 주는 연금. ㉡ 글쎄 무슨 사연이 있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에 나를 찾아 와서 자기가 30년나 마 주물직장일을 한 사람인데 우리 기업소 주물직장에 와서 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앞으로 식량도 받고 넌로보장금도 받으니 그런 건 걱정 말고 주물직장에 나올수 있게만 해달라는게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평생소원이라고까지 말하면서...처음에 로동법상 안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다가 눈물까지 눈에 어려 가지고 한숨을 계속 쉬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승인해 주고 말았습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26일 제3호 3면〉

노랑풀 ㉠ 바다 밑에 사는 해초의 한 종류. ㉡ 정해놓은 것처럼 매번 홀렁 끓은 부꺼리가 올라오는가 하면 더러 무뚝한 때도 레외없이 물고기보다도 거미삼발, 노랑풀과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있군 하였다. 밀물처럼 거밀거밀 밑바닥을 뒤덮군하던 명태떼가 자취를 감춘지도 어언 달포가 되었다.

〈해쫂는 바다, 902〉

노래바다 ㉠ 노래로 가득찬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북한에서 바다는 물건이나 어떤 현상이 넘쳐나도록 매우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라 통일이 동터온다고 통일의 새 아침을 부르며 민족의 정서가 구수하게 넘치는 통일 노래가 울린다. 통일 돈돌나리, 통일의 광장에서 7천만 겨레가 한데 모여 노래바다, 춤바다를 펼치며 민족의 슬기와 녀을 온세상에 자랑할 그 날을 부르며 울리는 이 노래. 우리 인민이 대대로 부르며 전해오는 함경도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 돈돌나리에 시대의 숙원이고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이 동터온다고 형상적으로 반영한 보천보 전자악단의 가수 김정녀가 부르는 통일 돈돌나리는 통일의 열기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달구어준다.

〈중앙방송 2001년 7월 6일 08:00〉

노래폭탄 ㉮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한 노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누가 누구를 하는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를 위한 결사의 투쟁으로 산악처럼 일떠세우는 힘으로, 원수들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로, 노래폭탄으로 된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 참으로 그것은 얼마나 큰 힘을 안겨 주었던가.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4면〉

논두렁매질 ㉮ 논두렁에 흙을 바르는 일. ¶ 우리는 농장의 작업정량표나 농장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것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모내기철에 많이 쓰이는 《논판고르기, 논두렁짓기, 논두렁매질, 실두렁짓기, 모뜨기, 모뿔기...》란 말을 비롯하여 《나래엮기, 뜯엮기 (벼)모뿔기, 도랑치기, 논물대기...》 같은 말들을 수많이 들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를 널리 해왔고 일찍부터 모내기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한 말들이 매우 풍부히 발전했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논물관리공 ㉮ 논이 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노동자. ¶ 그들은 토양의 성질과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비료를 주어 농작물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1일 3면〉

늦나들이 ㉸ ? ㉡ 이런 날에는 옥안에서도 생의 희열을 느껴 보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봄날은 곳은비가 하루종일 늦나들이로 철철 내리는 날 밤은 이 옥사안에서 죽어나간 원귀가 되살아나듯 목메여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아 밤새 곡의 심연에서 잠못이루다가도 한밤중에 비가 멎고 휘영청 밝은 유정한 달빛이 흘러들어올 때는 한산섬 달 밝는 밤의 나날들이 그리워지군하는것이였다.

〈리순신장군, 462〉

눈물집 ㉸ *눈물샘. ㉡ 황토먼지속에 떠도는 기름내, 파내, 한마디도 가려들을수 없는 떠들썩한 소음들이 빈속을 우려내고 눈물집을 아프게 해집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네는 입술을 앙다물고 지친다리를 뻗디디고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만강 지구, 377〉

눈을 뜨다 ㉸ 씨눈을 떼어 내다. ㉡ 감자농사에서는 통알감자를 심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감자를 눈을 떼서 심지 말고 통알채로 심는 방법이 파악된것만큼 감자농사에서는 통알채로 심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동요없이 확신성 있게 내밀며 감자역병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3면〉

느르끼레하다 ㉸ 누르스름하다. ㉡ 모룩한 소나무 숲속에 아늑한 공지가 있었다. 새 잔디가 아직도 느르끼레한 색을 띠고 있는 한 무덤가에 스무나문명나마 되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 와썹 떠들어대고 있다.

〈두만강 지구, 284〉

느슬느슬하다 ㉸ 험겁게 풀어져있다. ㉡ 늙은이는 그 체구하고 여원몸에 비해서 목소리는 왜가리청이였다. 한성옥은 한발 뒤로 물러나 로인의 행색을 바라보았다. 폐목군의 저고리라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마대짝 겹옷을 하나 걸치기는 하였으나 오리가 느슬느슬하게 헤어졌고 아래 종아리는 살이 들여다보이는 험 바지를 행전으로 감았는데 발에는 발가락이 비죽비죽 솟아나온 낡은 로동화를 걸치고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71〉

늑늑히 ㉮ 녀늑하게. ㉮ 《원, 한다는 놀음이, 밥값 늑늑히 물지 않으리오.》 옥점 할머니는 너그러운 웃음을 머금고도 혀를 끝끝 찼다.

〈그리운 조국 산천, 50〉

늘직늘직하다 ㉮ 널찍널찍하다. ㉮ 숙미는 대답이 없다. 아마 원술이의 말이 수궁되는 모양이다. 그녀자의 발랄한 성미에는 어울리지 않는 침울한 빛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같이 얼굴에 어리어있었다. 그러한 빛으로 그는 원술이의 늘직늘직한 자국을 따라짚는다.

〈붉은지평선, 364〉

능개비 ㉮ 안개보다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조금 가는 비. ㉮ 구질거리는 비안개속에 차가수물동이 저만치 바라보이자 필네의 발걸음은 절로 떠졌다. 찌르르하고 무엇인가 아픈정이 명치끝을 훑어내리는것 같았다. 일행은 능개비에 축축히 젖어서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친다.

〈두만강 지구, 34〉

다부산자 ㉮ ? ㉮ 프레스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쪽대문밖에 다부산자의 옷차림을 하고 머리도 중국식으로 단장을 한 림름한 어른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서있었다. 프레스톤은 우세영을 반가이 맞아들이며 사과의 말부터 했다.

〈성벽에 비긴 불길, 63〉

단기다 ㉮ 성격이 강하다. ㉮ 리병모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심각히 뉘우쳤다. 사실 리병모는 성격이 단기고 고집이 세여서 ‘요지부동’이란 별명을 듣는 청년이었다. 길림의 대시위때 시민들속에 베두루마기에 통영갓을 쓰고 나온 령감들을 공연히 따로 골라 내세우고 시위행진에 못참가한다고 우겨서 하남가쪽 대렬이 전체 멈춰서서 반나절동안이나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다.

〈은하수, 143〉

단우 ㉮ *같은 모임에 속한 친구들. ㉮ (청년단과 같이)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에 자기와 함께 들어있는 벗을 이른다. 같은 학교에 다닐 때 사귄 친구를 교우라고 하는것과 같은 형식의 말이다.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단조기 ㉠ 금속의 단조 작업에 이용되는 기계. ㉡ 지심을 올리는 단조기들의 우렁찬 함마소리, 기대마다에서 흘러 나오는 가공품들과 제관품들, 신심과 열정에 넘친 발걸음 발걸음, 비상한 결의로 충만된 얼굴들, 격조높이 올리는 현장방송원의 열띤 목소리. 어디를 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무격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불 타는 마음과 마음들이 거세찬 열풍을 안아 오고 있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3호 2면〉

달 건너 소식 ㉠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 ㉡ 《김일성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공작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소. 강건너 장군님의 부대가 압록강연안을 휩쓸고돌아가면 왜놈들을 삼대 버이듯한다는 소리를 달건너 소식으로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적도 여러번 있소만 이렇게 장군님의 군사를 눈앞에 대하리라고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소. 내가 바로 김명순이요.》

〈그리운 조국 산천, 318〉

달걀폭포 ㉠ 달걀이 매우 많음을 형상화한 말. 북한에서 '폭포'에는 〈해당단어가 나타내는 대상이 막 쏟아져 흐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종금직장, 비육직장, 알낳이직장, 가공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요해하시고 도내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닭공장을 단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랭동고 마다에 차고 넘친 먹음직스러운 닭고기와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달걀폭포의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평북도 인민들에게도 고기와 알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공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도내 공업부문의 전반적인 실태를 요해하신데 기초하여 도의 책임일군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데

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중앙방송 2001년 12월 17일 06:00〉

달웃 ㉠ ? ㉡ 정월 대보름날에는 마을사람들이 의례 렬성재네 집으로 가겠거니 생각했다. 쟁반같은 둥근달이 둥둥 떠오르면 마을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달웃을 쳤다. 소반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절을 한다.

〈붉은 지평선, 56〉

닭고기쟁반 ㉠ 닭고기를 쟁반에 깔고 그 위에 국수를 얹어 만든 북한 요리의 하나.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류관에서도 옥류관에서와 똑같이 닭고기쟁반을 봉사하도록 해주시었고 메기탕 잉어탕도 봉사하도록 해주시었다.

〈중앙방송 2000년 11월 30일 22:00〉

닭볶이 ㉠ 닭을 볶아서 만든 북한 요리의 하나. ㉡ 방안 나무화대에 불이 켜지고 저녁상이 들어온것은 얼마 안가서였다. 저녁상에는 어머니와 안해가 다심한 손길인양 대순볶음에다 닭볶이와 송이버섯찌개, 도라지생채, 고사리나물이 정성껏 차려져있었다.

〈리순신장군, 25〉

담화를 조직하다 ㉠ 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이거나 집단을 이루다. ㉡ 《그동안에 박정호기사와 몇번이나 담화를 했소.》 《별로 의도적으로 담화를 조직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기사들과는 담화를 하오?》

〈뜨거운 심장, 326〉

담부리칸 ㉠ ? ㉡ 베에 오르니 배우에도 안개가 진하게 덮여있다. 어둠과 안개속에서 한사람 두사람 담부리칸의 승강구로 떨어져 내려갔다. 배밑창 선실은 침침하고 습했다.

〈은하수, 171〉

답혼서 ㉠ 혼인을 위해 교환하는 서신의 하나. ㉡ 《그렇소? 그거 잘됐구만! 늘 우리 집안을 돕는다더니 이젠 사돈간이 되고 말았소구려! 그래 납폐서와 답혼서는 교환했소!》 《그런건 다 절차대로 했어요

...》

〈김정호, 240〉

당꼬바지 𐇧 숨을 두어 지은 핫바지. 𐇡 외양에 어울리게 고개를 끄덕거리보인 다음 그 화려한 양간을 펼쳐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윽고 당꼬바지를 입고 ‘국민모’를 쓴 사나이가 양복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땀을 흘리며 나무그늘속에 나타났다. 양산기슭으로 얼핏 눈길을 돌려 본 진옥은 흠칫하더니 얼굴이 헬썩하게 질리었다.

〈두만강 지구, 478〉

대갈받기놀이 𐇧 서로 험하게 싸우며 힘을 겨루는 짓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사환이는 명망이 높은 교수요, 희귀한 재능을 가진 설계가였다. 그러니 정치싸움에 휘말려 들어 가지고 대갈받기놀이를 하다가 어느 놈의 음모에 걸려 씨. 아이. 씨특공대의 신세를 지게 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는 관여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씨. 아이. 씨특공대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것쯤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2일 4면〉

대망 𐇧 대나무로 만든 망. 𐇡 주창범은 제풀에 허허 웃고 머리를 설레설레 내젓더니 통나무덕대우에 놓인 대망에다 채를 딱딱 박아넣었다. 채가 랑쪽에 달린 요란히 큰 대망은 수십명 떼군들의 패식거리를 타개느라 주창범이 장몇달 품을 팔아 열심으로 장만한것이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155〉

대문통 𐇧 *대문이 있는 곳. 𐇡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재간기 등에 기대놓은 지게 등태를 밟고 서서 편별장아근을 눈이 빠지게 살펴보고있던 안해는 회나무지팡이를 몽둥이처럼 끌면서 지척지척 집으로 돌아오는 령감이 뒤 울바자기슭을 돌아 협문을 스쳐가는것을 띄워보고 집을 지나치는것 같아 대문통으로 내달아 나왔던것이다.

〈그리운 조국 산천, 248〉

대용열차 𐇧 북한에서, 정식 연료가 아닌 대용연료로 가는 기차. 𐇡 그 가운데서 대용열차에 도입한 보조감속기는 전국에 도입 일반화 할 만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대용열차들이

많은데 이 대용열차들은 만짐을 실은 조건에서 35도내지 40도되는 높은 경사들중 휘발유나 디젤을 조금씩 보충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시중 광산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자동차변속기에 보조감속기를 만들어 달므로써 아무리 급한 눈길에서도 휘발유나 디젤유를 전혀 쓰지않고 쉽게 넘을수있는 기술혁신안을 성공시켰다.

〈중앙방송 2000년 4월 12일 17:00〉

대용자동차 ㉠ 북한에서, 정식 연료가 아닌 대용연료로 가는 자동차. ㉡ 특히 노천분광산 광부들이 회전식 착정기들과 굴착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정광 생산에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운광사업소의 여러 직장들에서는 강추위속에서도 대용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매일 광석운반 계획을 넘쳐해내고 있다. 선광계통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2 파쇄갱의 덕형, 원추형 파쇄기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해서 철정광 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평양방송 2002년 1월 28일 22:00〉

대중고려약 ㉠ 북한에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한약. ㉡ 그리고 모란봉구역과 보통강구역 제약공장들에서는 용추출공정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개조하여 고려약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관리국에서 생산한 내심환과 우황청심환, 당양환 그리고 영신환과 폐덕산을 비롯한 수십가지 대중고려약은 효능높은 것으로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당의 보건정책을 높이받들고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우리나라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고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평양방송 2000년 12월 21일 07:00〉

대청결 ㉠ 대청소. ㉡ 박경학은 이쯤 해놓고 최승보네 집에 달려가서 팽이와 삼태기, 비자루를 들고 나왔다. 어느새 금실이라도 연락을 받았는지 이웃집 순이를 부르며 당장 대청결을 해야 한다고 귀뜸하고있었다. 박경학이가 남가거리의 도랑을 한창 쳐올리고있는데 사람들을 내모는

박창세의 목소리가 꺽꺽 하더니 하나들 골목길에 비자루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대지는 푸르다, 569〉

대학맞잡이 ㉸ ? ¶ 《참 고난의 행군이 대학맞잡이란 말들을 하더니 비슷한 소리같군.》 장경수는 펄대에 달고다니는 리발결상에 다리를 꼬고앉아 곰방대를 빼금빼금 빨며 실눈을 해가지고 중얼거렸다. 《그건 무슨 소리요?》

〈두만강 지구, 455〉

덜먹총각 ㉸ 막된 행동을 하는 총각. ¶ 머리가 터부룩하고 소매머가랭이가 불품없이 짧은 베적삼에 베바지를 입은 덜먹총각을 앞세운 삼십대 초입의 아름다운 부인이 강아지를 이고 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별에 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운 살결, 수수한 옷이라 하지만 이 산골의 장마당에서는 역시 못사람들의 눈에 띠일 차림새를 한 숙미는 먼데서 보아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붉은 지평선, 369〉

덜컬 ㉸ ? ¶ 사람이 찾아온 인기척을 알고나 있는지 그는 끄끄 신음소리를 내고있다. 실로 사람이 사는 정상이 아니다. 때를 꿰이는 덜컬이 얹은 솔이 있고 질그릇 두개이다. 봄에도 본바 있는 살찐 암소를 그린 소고기통줄임통이 이 집안의 살벌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 천연색 도금을 한것이 벗겨지지 않은채 가마목에 땡그랗게 놓여있다.

〈붉은 지평선, 336〉

델룽하다 ㉸ 덩그렁하다. ¶ 쫓쫓 혀를 차며 사나운 바다를 바라보던 형보는 문득 문 앞 벌림판에서 델룽하니 드리운 쇠바줄에 눈길을 멈추었다. 전번에 바다에 나올 때 벌림판과 끌줄을 이어주고 있는 이음새의 나사못이 삭은것 같아서 바뀌대도록 일러둔다는것이 그만 잊었다.

〈해숫는 바다, 124〉

땡굴하다 ㉸ 동그랗다. ¶ 갑자기 떠나자는 말이 아닌 밤에 흥두께 같은지 경훈은 눈이 땡굴해졌다. 《미국놈들이 여기까지 기여든 걸 보니 옥야벌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물러선 게 분명해. 그러니 당위원장이

말한대로 곧장 방진으로 들어가잔말이야.》

〈적후의 별들, 16〉

도리우찌 ㉸ ‘도리우찌모자’의 준말. 사냥모. ㉨ 송치환은 시에미 역정에 개 옆구리 차는격으로 구덕기에게 불호령을 하고나서 탁가에게 거리에 나붙은 뼈라를 몽땅 뜯어오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뼈라와 정학의 학습장을 한데 말아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코지에 걸어놓았던 도리우찌를 벗겨 대머리우에 올려놓았다. 그때 고추봉이가 막아섰다.

〈적후의 별들, 132〉

도막궁이 ㉸ 통나무 토막을 파서 배로 이용하던 물건.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11-14〉

도중대고 묻다 ㉸ 사람들에게 대고 묻다. ㉨ 《무슨일이요?》 정학은 경훈이와 차병덕의 사이에 끼여앉으며 도중대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웬일인지 경훈은 머리를 모로 틀며 끄하고 흐느꼈고 차병덕은 괴로움을 씹어삼키는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적후의 별들, 289〉

도투똥 ㉸ 돼지의 똥. ㉨ 《앙이, 이 클아배사 워쩐 사설이 이리두 많지오다. 참 내 추져버서...》 《젊은이 말버릇이 수수발머리의 도투똥 같당이.》 하고 침을 뱉는다. 숙미는 그들의 주고받는 걸직한 사투리를 들으면서 저도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어리었다.

〈붉은 지평선, 369〉

도투름하다 ㉸ 도툼하다. ㉨ 명진이와 같이 아이들의 방으로 올라온 철민은 한참동안 명순의 곁에 앉아 딸의 잠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검고 길다란 눈썹, 오똑한 코, 도투름한 앵두입술... 명순의 모색은 신통히도 제어미를 벗겨냈다. 갓 피기 시작한 꽃봉오리처럼 방석이 열린 입가에 방시레 잠웃음이 어린다.

〈뜨거운 심장, 64〉

독보할내기다 ㉸ *소리내어 읽어줄 작정이다. ㉨ 《하하... 됐다 됐어. 그럼 편지속을 한번씩 다 읽어보구 나중에 모두 독보할내기다.》 성룡이 큰 몸을 흔들며 깔깔댔다.

〈해솟는 바다, 337〉

동저매다 ㉮ 동여 매다. ㉮ 그런데 이튿날아침 잠에서 깨어난 현철은 어리둥절해졌다. 어느새 일어났는지 김지성은 벌써 세수까지 말끔히 하고 앉아있는데 이상한것은 어제 걸머지고 온 그 배낭을 다시 뽕뽕 동저매고있는 것이였다. 어떻게 된 셈인가?

〈승리자들, 44〉

된탕 ㉮ ? ㉮ 《어제밤 딱총이 약이 된것 같소. 오늘은 걷기가 한결 편찮소.》 《그러게 무슨 일이든 된탕을 먹여야 하오.》 김성주동지의 말씀에 강창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어댔다.

〈은하수, 1〉

두루마기쟁이 ㉮ *두루마기를 자주 입고 다니는 사람. ㉮ 전중모는 그뒤를 따르는 당나귀를 탄 회색 두루마기쟁이를 보고 저으기 놀랐다. 《아니? 저놈이 여길 어떻게?》 도평의원 서광재였다. 전중모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였다.

〈붉은 지평선, 125〉

뒤곶 ㉮ 뒷부분. ㉮ 열일여덟살 돼보이는 목이 쭉 빠지고 허리가 늘씬하며 키도 몸매에 알맞춤한 녀자였다. 저고리는 비록 뒤곶을 깎기는 했으나 단정히 견어입은 탕으로 오히려 그 소박한 몸가짐에 어울리였다. 몸에 딱 맞는 저고리우로는 팽팽한 가슴이며 어깨의 윤곽이 드러나서 변성기가 지나 청춘시절의 건강미가 흘러넘치고있었다.

〈붉은 지평선, 75〉

뒤동갱이 ㉮ 뒤쪽의 찢막하게 된 부분. ㉮ 봉식은 담배연기를 시름없이 날리며 이제는 잔잔해진 흐름을 타고 랑기슭에 늘어진 목은 채양버들사이를 누벼나가는 세폭의 떼를 바라보았다. 에헤 어허루야 물길이 좋다. 첫째의 뒤동갱이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지난밤에 삼일객주집에서 부랴부랴 달려왔다는 치갑이의 목소리가 분명하였다.

〈두만강 지구, 132〉

뒤매 ㉮ 뒷모습의 생김새. ㉮ 어찌면 태일이 그들처럼 밝고 양양한 행복을 안고 돌아올것 같은 생각이 솔깃이 드는것이였다. 그래 해바라

기처럼 웃는 얼굴로 멀어져가는 태일의 뒤매를 바라며 이윽도록 한자리에 서있었다. 용택은 성과 충국을 통하여 새로 무은 드랄선 한척을 먼저 받기로 아귀를 지어놓고 밤차로 늦게 돌아왔다.

〈해쑷는 바다, 238〉

들먹이 ㉠ 가득히. ㉡ 첫여름의 이른저녁녘의 켜켜한 석양을 받아 눈부시고 생기로운 자연풍치에 안겨있는 장안을 바라보느라니 지치고 침울하던 춘권의 가슴은 확 띄여지고 밝고 생신한 기분이 한가슴 들먹이 차오른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푸른물줄기며 강반을 굽이돈 성벽이며 련광정과 대동문루의 고색창연한 풍치며 지어 평양중영의 허름한 군영마저 그지없이 정답고 살뜰하게 안겨오면서 마치 꽃밭속에 서있기라도 한듯 감미로운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것이였다.

〈성벽에 비낀 불길, 178〉

들이조기다 ㉠ 갑자기 마구 때리다. ㉡ 송도원에서 붙은 싸움이 더욱 무서운 혈전이였다. 곡괭이, 삽, 철근지레대를 든 로동군중이 숲에 엎드려있다가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들이조졌다. 술한 말다리도 꺾어놓았다.

〈은하수, 289〉

등가지 ㉠ 말린 삼대로 만든 것으로 불이 잘 붙어 등불로 쓴다. ㉡ 《그새 원수께서 병석에 누우신 시간은 책을 읽으시는 시간이였으며 어두운 등불은 등가지를 몇번이고 바꾸어가며 새벽이 올 때까지 그의 머리맡을 밝히시였다.》

〈문화어학습 1969년 3호, 28.〉

등싯하다 ㉠ ? ㉡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人〉 지구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등싯한 얼굴의 두볼은 홍조가 어려 얼마나 왕성해보였겠습니까.

〈고압송풍, 158〉

땅굴막 ㉠ 땅굴 움막. ㉡ 우리는 눈보라 사나운 가독령의 오막살이 땅굴막과 조날가리에 피신하시였다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시며 하산포여울목으로 가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욱을 심장으로 따

르며 하산포 여울목으로 향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5일 2면〉

땅따무레하다 ㉸ 키가 작고 몸집이 옆으로 딱 바라지다. ㉡ 놈이 가리키는대로 헌병대의 한 어둡시그레한 북향방에 들어서니 소좌견장을 단 한놈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방안에 들어서는 태진을 꼬리드리운 찌글사한 눈으로 맞갖지않게 바라보고있었다. 뽕족한 아래턱에 어딘가 쥐상을 련상시키는, 몸집이 땅따무레한놈이었다. 《거기 앉으라.》

〈새로운 항로, 49〉

떠지다 ㉸ *걸어지다. ㉡ 구질거리는 비안개속에 차가수물동이 저만치 바라보이자 필네의 발걸음은 절로 떠졌다. 찌르르하고 무엇인가 아픈정이 명치끝을 훑어내리는것 같았다. 일행은 능개비에 축축히 젖어서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친다.

〈두만강 지구, 34〉

뚜꾸다 ㉸ 겨루다. ㉡ 《그러니까 너하구두손을 잡구 또 술한 막돌들과두 힘을 합치자는게 아니냐.》 《좋다! 우리 막돌들이 손을 잡구 놈들과 뚜꾸보자. 까짓거.》

〈필레꽃, 222〉

뛰쳐나다 ㉸ 힘있게 밖으로 뛰어나가다. ㉡ 아버지는 그 가련한 모습을 지켜보다가는 옷방으로 올라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지었고 창억이는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형님들의 원수를 백배천배로 갚고야말겠다고 이를 갈았다. 창억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시였다는 소문이 왕청땅에까지 퍼져왔을 때 친구들과 작당을 하여 두번이나 집을 뛰쳐난 일이 있었다. 한번은 연길현과 안도현의 현계에서 경찰에게 잡혀 죽도록 매를 맞고 돌아왔으며 다른 한번은 도중에 열병에 걸려 동무들에게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던것이다.

〈근거지의 봄, 27〉

뜨거워나다 ㉸ 더 뜨거워지다. ㉡ 《대단한 일이요. 공작원에게 이쯤 한 토대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수행할수 있는거요.》 더없이 만족해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권영벽은 눈굽이 뜨거워났다.

〈그리운 조국 산천, 280〉

뜯모 𐇧 모내기를 할 때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물 위에 떠버리는 모. 𐇧 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가 정확히 보장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그의 눈에는 드문드문 뜯모들이 있는 것이 보였다. 자책감이 갈마들었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뜯모들이 있을가. 우리 당원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뜯모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손으로 다시 정성들여 쫓기 시작했다.

〈로동신문 1994년 9월 3일, 1면〉

뜸배 𐇧 동력 설비가 없이 끌려다니는 배. 𐇧 겨우 위기를 모면했으나 불안은 가시여지지 않았고 더우기 집주인 내외가 공포에 질려 밀어내다싶이 하는통에 우세영은 그 밤으로 토마스선교사를 달고 아랑포에 있는 김자평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 역시 어느 순간에 수색의 손길이 미칠지 몰라 불안스러운터이라 그길로 김자평이 토마스를 뜸배에 태워 지푸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선교사는 웬일인지 산해관을 거쳐 돌아가겠노라고 했다.

〈성벽에 비낀 불길, 77〉

뜸엮기 𐇧 비, 바람, 별을 막는데 쓰는 짚으로 만든 뜸을 엮는 일. 𐇧 우리는 농장의 작업정량표나 농장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것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모내기철에 많이 쓰이는 《논판고르기, 논두렁짓기, 논두렁매질, 실두렁짓기, 모뜨기, 모쫓기...》란 말을 비롯하여 《나래엮기, 뜸엮기 (벼)모뭇기, 도랑치기, 논물대기...》 같은 말들을 수많이 들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를 널리 해왔고 일찍부터 모내기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한 말들이 매우 풍부히 발전했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뜻갈래사전 𐇧 의미 분류 사전.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말을 다듬는데서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같다고 할지라도 뜻의 폭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잘 고려하여 처리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은 뜻폭을 비롯한

의미구조연구의 지도적지침이다. 의미론에서 뜻의 구조화, 체계화 문제는 오늘날 뜻갈래사전(언어시소라스)의 편찬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자동정보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언어학에서는 뜻의 구조화, 체계화를 위한 이론으로 《마당》 이론이 널리 퍼지고 있다.

〈조선어문 1997년 4호, 27-29〉

라남의 봉화 ㉮ 2001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제기된 경제건설 슬로건. ‘라남의 봉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후 귀로에 라남 탄광 기계연합 기업소(함북 청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발휘했다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 아래 발기됐다.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이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농업 생산을 늘임으로써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가랑찬 로력적성파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3면〉

량안관계 ㉮ 중국과 대만의 관계. ¶ 그는 또한 새해에 중국인민이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계속 다그치며 《평화통일》, 《한나라, 두 제도》의 기본방침과 량안관계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평화통일과정을 다그칠데 관한 8가지 항목의 주장을 견지하며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2일 6면〉

련공인사 ㉮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나가는 인사.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련락갱 ㉮ 터널이나 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접 터널이나 갭으로 사람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설치된 터널이나 갭. ¶ 《동무,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에 창규는 우뚝 멈췄다. 넓은 련락갱쪽에서 지레대를 든 전차운전공처녀가 반달음으로 달려오다가 멈춰섰다. 《아이 갭장동지시네.》

〈발파소리, 55〉

련락공작 ㉠ *서로 관련을 가지며 어떤 일을 꾸밈. ㉡ 《다른게 아니라 그 철성동무말입니다. 작년가을에 제 마지막으로 련락공작 나왔을 때 바로 곰바위근처에서 헤어지면서 저에게 충닥는데 쓰라고 오소리기름을 한병이나 주지 않았겠습니까.》 철범은 유난히 윤택나는 소대장의 어깨에 걸쳐있는 총신을 바라보았다.

〈준엄한 전구, 405〉

련락로 ㉠ 두 곳을 서로 이어주는 길. ㉡ 대암촌은 이번 고유수에서 카툰으로 오시다가 하루밤 묵으면서 보시니 혁명화의 보습을 댈 필요가 있는 동네였다. 더구나 이 동네는 카툰과 고유수의 련락로를 여는 의미에서도 혁명화를 해야 했다. 그 다음 그이께서는 또 《남만청총》 산하의 동요가 일어난 단체들에 조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아울러 추진시키시였다.

〈은하수, 173〉

련락쪽지 ㉠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는 쪽지. ㉡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기철이가 제1보초선에서 걸린걸보니 만데가 아니라 여기 백초구로 오는 길이였던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무슨 련락쪽지를 가지구 오는 길이였을가요?》 《그러게말이다. 우린 그걸 빨리 알아내야 하겠다.》

〈절레꽃, 251〉

로력전선 ㉠ 북한에서, 노동력으로서 이바지하는 사회적 활동 분야. ㉡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 해방전쟁시기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청년들은 모든 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라고 하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달려나가 가렬처절한 격전장마다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피로써 지켜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시기 조성된 정세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민주청년동맹이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청소년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노력 전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당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사회주의 공업화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노동당시대를 자랑하는 청춘기념비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으며 계급적원수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을때마다 반종파투쟁의 앞장에 서서 당과 수령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건결히 옹호 보위했다.

〈평양방송 2001년 1월 17일 19:30〉

로력전투 ㉮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군인가족들은 매일과같이 건설장을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축하공연, 가족예술소품공연 등 경제선동활동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많은 원호물자를 넘겨주며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적지않은 군인가족들은 자기들도 남편들과 같이 공장건설을 맡은 전투원들이라는 자각밑에 가족소대를 묻고 건설자들과 함께 힘찬 로력전투를 벌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따듯히 돌봐주었다. 조선인민경비대 리복남소속부대 출판물 보급원 리현희는 최근 연간 맡겨진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근 80차에 걸쳐 원호품을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금릉동굴, 4.25여관, 9월 27일 닭공장 등 중요대상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중앙방송 2001년 11월 5일 06:00〉

로력혁신자 ㉮ 북한에서,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 창조적 재능을 다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올린 사람. ㉮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황해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군중대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군중대회들에는 지방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했다. 황해남도 군중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김운기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해주신발공장 지배인 한상순, 해주시 석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성현옥, 해주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이송길, 도청년동맹 1비서 권명호가 토론했다.

〈중앙방송 2000년 8월 8일 06:00〉

로련 ㉔ 로동자들의 투쟁조직인 로동련합회의 준말.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록음소설 ㉔ 테이프나 시디로 내용을 녹음하여 음성 자료 형태로 판매하는 소설. ㉕ 일부 나라들에서 록음소설에 대한 수요가 비상이 높아 지고 있다. 록음소설을 처음 만들어 낸 어느 한 나라에서는 오래동안 록음소설이 독자들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화술배우들에 의해 록음테프나 씨디판에 록음된 이러한 소설의 청취자들은 대체로 노인들이나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 맹인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록음소설에 대한 인기가 비할바없이 높아져 그 생산량이 해마다 25만개 이상씩 증대되고 있으며 그 제작업에 돌려진 투자액은 총 170억팔라에 달하였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4면〉

록태고 ㉔ 사슴의 뱃속에 든 새끼로 만든 약재. ㉕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산원이 개원된때로부터 지금까지 산모들을 위해서 30여차례에 걸쳐 보내주신 산꿀의 양은 수십톤에 달하고있다. 그리고 곰열과 록태고, 검정닭, 산천어를 비롯한 귀중한 보약재들과 영양식료품들을 산원에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온 나라 여성들은 행복한 나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우리 여성들을 생활의 꽃, 나라의 꽃으로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사는 값높은 긍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더욱 억세게 떠밀고 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다.

〈평양방송 2002년 2월 5일 07:00〉

룽같이 ㉔ 두꺼운 얼음이 갈라져 금이 가는 모양. ㉕ 다다다다... 송

련은 창밖에서 울리는 요란한 총성을 다시 듣는 순간 두터운 얼음장 밑에서 소용돌이치던 물줄기가 봄시위때 쪼그리고 얼음을 헤가르며 룡갈이를 시작하듯 강하고 참신한 하나의 생각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 남편도 살았으면 북으로 갔을 것이 아닌가?)

〈승리자들, 153〉

류행옷 ㉠ *널리 퍼진 옷. ㉡ 옷을 시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 본정거리 상점들에서 보내온 견본천을 보고 옷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전히 신식 류행옷 사진들과 견본품을 보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성옥은 신파일판의 이름난 혁명가이기는 하나 역시 감옥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양복일을 해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혁명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84〉

리발결상 ㉠ *머리를 깎아 다듬을 때 쓰는 의자. ㉡ 《참 고난의 행군이 대학맞잡이란 말들을 하더니 비슷한 소리같군.》 장경수는 펄대에 달고다니는 리발결상에 다리를 꼬고앉아 곰방대를 뽀뽀뽀 뽀뽀뽀 실눈을 해가지고 중얼거렸다. 《그건 무슨 소리요?》

〈두만강 지구, 455〉

마감나르기 ㉠ 베어낸 나무를 마지막 수송 수단으로 싣는 일. ㉡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라남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다. 참모부에서는 긴장한 연유사정을 고려하여 각 립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 여러가지 합리적인 운반수단들과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 들이도록 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풍서립산사업소 룡문작업소에서 이동참모회의를 열고 연유를 전혀 쓰지 않고 산지나무베기로부터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를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실속 있게 조직하였다. 풍서립산사업소 룡문작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생산을 정상화한 경험을 살려 올해에 통쏘이와 소발구에 의

한 사이나르기를 더 대담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대용연료에 의한 림철기관차로 마감나르기도 잘 보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4일 1면〉

마꼬 ㉠ 담배. ㉡ 눈물이 그렇해서 새삼스럽게 떠나온 길, 아득히 멀어진 정든 산발들을 돌아보던 필네는 옆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심상한 목소리에 오히려 놀라서 귀를 기울였다. 《내가 이자 상점에서 마꼬한갑을 샀는데 한대 피워보오.》 장대선아바이가 김인수에게 하는 말이다.

〈두만강지구, 121〉

마당거우 ㉠ 중국 동북쪽에 있던 밀영의 하나. ㉡ 그이를 바래고난 4중대원들은 부쩍 승기가 나서 흥성거리었다. 구대원들한테서 마당거우며 동강에서 있었던 동기군정훈련때의 재미있는 일화를 듣느라 떠들썩하는 때도 있고 자습반대원들한테서 공책에다 가나다표와 구구표를 써받느라고 분주히 돌아가는 때들도 있었다. 최관섭은 불무지옆에 앉아서 담배를 붙여물고 옆에서 신대원들한테 에워싸여 마당거우며 밀영학습때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김영규 소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등을 꼭 찌르며 수군거렸다.

〈준엄한 전구, 309〉

마당리론 ㉠ 의미장 이론. ㉡ 오늘날 언어학에서는 뜻의 구조화, 체계화를 위한 리론으로 《마당》리론이 널리 퍼지고있다. 《마당》리론이 세상에 나온지가 60년세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리론상통일을 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론평가들은 《마당》리론을 두고 근대의미론가운데서 수확을 가장 많이 남긴 실험의 하나였다고 하고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의미마당의 인정은 의미의 구조성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로, 의미구조화를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고까지 하고 있다.

〈조선어문 1997년 4호, 27-29〉

마세 ㉠ 말썽. ㉡ 《그래서 레방비장이 선사포로 부랴부랴 내려간건가?》 《그렇다더군. 그런데 것처럼 마세를 일으켜놓고도 그 물건짝들

을 돌려달라구 폐질을 쓰는통에 소동이 벌어졌다지 않겠나.》 《아니 그런 뻔뻔스러운놈들을 그냥 놓아둬? 남의 나라법을 어기고 흥정하려 들다니?!》

〈성벽에 비낀 불길, 158〉

막냇딸 ㉠ 막내딸. ㉡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들의 관계도 노상 좋은것만 같지 않았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수련이는 청렴한 학자 리경하의 막냇딸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순진하고 쾌활한 처녀였다. 그러던게 도회지에 나가 학교물을 먹고나더니 신사조에 물이 들어 만나면 의례 까다로운 질문을 들이대여 사람을 끓리려들었다.

〈두만강 지구, 310〉

막사리 ㉠ 마지막 사리. ㉡ 아버지는 하도 썩썩해서 석썩해진 목소리로 조용히 뇌였다. 《내가 허술한 막사리까지 대주면서 임자더러 찾아오랄제야 설마 이 늙은게 주책없이 승어나 몇마리 팔아먹자는 욕심에서 그랬겠나. 임자를 꼭 한번 집에 데려다 생선국이나마 푸짐히 먹이고싶어서였지.

〈성벽에 비낀 불길, 42〉

만몽 ㉠ 만주와 몽골.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만전쟁 ㉠ 걸프전. ㉡ 주체 80(1991)년에 있는 만전쟁때였다. 당시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만전쟁의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속에서는 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였으며 이라크가 다국적군을 수세에 몰아 넣을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사전문가들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으로 끝날것이며 이라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6일 2면〉

맡자손 ㉠ 장손. ㉡ 그나마 일자리에서 해고당한 저는 1950년 7월에 의용군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제가 잠

간 집에 들렀을때 어머니는 집안의 말자손이 되려거든 군대복무를 계속하고 못되겠거든 애미앞에 나타나지도말라고 불호령으로 저를 크게 나무람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당부를 명심하고 총천 인민군대의 본분을 다하기위해서 노력했다.

〈평양방송 2001년 10월 15일 11:00〉

말먹이새초 ㉠ 말을 먹이기 위한 풀. ㉡ 외진데를 찾아서 두필의 말을 끌고가던 봉길은 밋밋하게 비탈진 산언저리에 이르러 맞춤한 새초밭을 찾아냈다. 마른풀을 뜯어먹게 말들을 놓아준 봉길이는 호주머니에서 칼집이 달린 빼또칼을 꺼내들고 새초를 베기 시작하였다. 자기한테는 새초를 베라는 과업이 차례지지 않았지만 길잡이 늙은이가 타는 말까지 합쳐 두필의 말먹이새초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자기가 결코 어린애가 아니라는것을, 자기를 늘 어린애취급하듯하는 경의중대장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그들 못지않는 당당한 어른이라는것을 보여주리라는 배심이다.

〈백두산 기슭, 9〉

말발 ㉠ 말의 효과. ㉡ 그는 이 3세나라를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 플로리다주에 미공군기지에서 한 부시의 말발은 일반서신 연설의 복사판이라고 말할수있다. 우리는 부시가 내외에 항의 비난과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론을 올해 미국의 침략적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려하는 조건에서 그의 부당성, 허황성,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시하고 논박하지 않을수 없다.

〈중앙방송 2002년 2월 14일 13:47〉

말짱 ㉠ 말뚝. ㉡ 반장은 인호의 말허리를 끊었다. 《그런데 말짱은 언제 오고 말짱을 실러 간 장정로력들은 언제 돌아오오? 낮이면 땅이 녹군해서 퇴비반출하는 트랙도르가 몇시간이나 논판에 들어서지 못해서 밋어있다는것 모르나?》

〈붉은 지평선, 39〉

말총건 ㉠ 말총으로 만든 모자. ㉡ 그리고나서 그는 말총건을 다시한

번 바로 쓰며 문을 나서려고 서둘렀다. 산림경관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있다.

〈붉은 지평선, 14〉

맞서기경기 ㉮ 북한에서,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들을 겨루는 경기. ㉮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브에서는 정일봉, 향도봉 등 12개 태권도 구락부 선수들이 참가한 태권도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는 수많은 관람자들이 모인 가운데 틀경기, 맞서기경기, 위력경기 등 여러 종목의 태권도 종합경기가 조직되었으며 찰스타운 고등중학교와 골든그로브 초등학교 교원학생들은 운동회를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가이아나에서는 이름난 경찰군악대가 출연하는 텔레비전경축 음악연주회를 조직하였다.

〈중앙방송 2000년 10월 30일 07:00〉

맡아 안다 ㉮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 시당위원회 교육사업부 책임일군들은 여러 학교들을 담당하여 내려 갔다. 그들은 학생 교육사업을 직접 맡아 안은 교원들도 만나고 학부형들을 찾아 가 담화도 하면서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겨 안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매셈이 ㉮ *가슴. ㉮ 《나는 어떻게면 좋소. 어디가 소값을 받아내오? 돈이 없으면 고향에 못가오. 딸애도 찾아오지 못하오. 으흐흐...》한 로동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매셈이를 치는 사나이를 부축하여 겨우 일떠세웠다.

〈그리운 조국 산천, 313〉

매심하다 ㉮ *피곤하다. ㉮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는지 싸락눈을 뿌리고 있는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 눈이 길바닥을 두텁게 묻어버리기전에 종리원까지 가됐으면싶었지만 매심한 다리를 쉬워야 길을 마저 걸어낼것 같았다. 박도정은 늙은이가 원하는대로 삼작문안으로 들어섰다.

〈압록강, 249〉

매칠하다 ㉸ ? ㉸ 《의진동문 요즈음 설계실에서 일을 잘한다고 평이 좋더구만.…”》 《…?》 그 말에 의진은 이전 일도 있어 자기를 혹 빈정대지 않는가싶어 눈길을 다시 매칠하게 지으며 성국을 피땀 쳐다보았다. 성국은 히죽이 웃고있었다.

〈새로운 향로, 244〉

머리부버리 ㉸ *머리를 묶은 부분. ㉸ 그는 남편과는 달리 가슴속 한 권구석에 청춘이 그대로 간직되어있을상싶었다. 술이 많은 새까만 머리를 간간히 땅아서 정수리에 얹었는데 그 머리부버리가 주먹만큼은 컸다. 안씨는 전중모앞에까지 서둘러 다가와서는 그 검실검실한 눈섭 아래에서 부리부리 빛나는 눈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성미대로 부산을 피우기 시작했다.

〈붉은 지평선, 82〉

메사구 ㉸ 메기. ㉸ 앞에는 키작은 아주머니들 몇이 모여서 가설 무대처럼 만들어놓은 연설대가 뻗히 내다보였다. 연설대에서는 송치환이가 메사구입같은 큰 주둥이를 사람키만큼 세워놓은 마이크에 가까이 들이대고 뭐라고 지껄이고 있고 그 뒤에는 아버지가 월드놈과 나란히 지팡이를 짚고 위엄있게 서있었다. 또 그뒤에는 이십여미터 사이를 두고 총을 꼬나든 미국놈들이 한줄로 죽 늘어섰다.

〈적후의 별들, 365〉

모개비 ㉸ 막벌이꾼, 광대 등의 우두머리. ㉸ 이때 씨름판두리에 구름처럼 모여든 구경꾼들이 와, 와 떠들며 들고일어났다. 《편심이다!》 《모개비 들어내라!》

〈성벽에 비긴 불길, 7〉

모두라지다 ㉸ ? ㉸ 이 전투에서 아군부대는 놈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는데 적지않은 힘을 들였다. 그것은 린접부대와외의 접촉점인 좌측 릉선우에 모두라지게 올라붙은 봉우의 적 한개 소대가량이 발악적인 측면사격을 해옴으로써 애를 먹었던것이였다. 적들이 많은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자 대대장은 그쪽 중대장에게 접촉지점에 강력한 잠복조를

배치할것을 명령하였다.

〈승리자들, 97〉

모랭이 ㉾ 나무를 파서 조그맣게 만든 그릇. ¶ 저녁을 물리고 아직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는데 모랭이 담긴 작은 모랭이를 옆구리에 끼안은 곱단이가 찾아들고 뒤이어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다. 분옥이가 샘물골에 되돌아온 뒤 몸이 추서자부터 다시 열기 시작한 야학생부녀들이다. 곱단이는 들어오던 참 등디목에 모랭이를 내려놓고는 그냥 부엌바닥에 서서 분옥이가 하던 설거지를 빼앗아 제가 마치고서야 구들에 올라앉았다.

〈압록강, 216〉

목갈린 소리 ㉿ 쉼 목소리. ¶ 《어서 반소. 그러지 말고 어서 반소.》 강세호는 다시 뒤로 물러서며 목갈린 소리를 하였다. 《사령관동지, 천이야 어떻게 구할수 없겠습니까.》

〈백두산 기슭, 256〉

몸나다 ㉿ *몸에 살이 붙다. ¶ 《일이야 아무데서나 맘먹고 하기에 달린거니까.》 《여, 동문 정말 몸날 기질이구만. 그저 가라는대로 와서는 펄쩍 주저앉고말았구만.》

〈시대의 기수, 66〉

몸바투 ㉿ 몸 가까이. ¶ 향옥이가 지금까지 한성옥이를 그렇게 가까이 대하면서도 예전이나 다름없이 존경하는 마음외에 딴 감정은 전혀 품지 않았듯이 한성옥이 역시 향옥이를 몸바투 느끼면서도 이웃간의 지극한 동정외의 딴 감정을 품어본적은 없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119〉

무리벌 ㉿ *여럿이 함께 받는 벌. ¶ 《이것은 영림서가 당신들이 무허가개산을 한 그 죄를 용서해주는 증거란말이요. 오늘 하루를 나무를 곰상곰상 심으면 당신들의 죄가 용서되겠지만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무리벌을 받게 된단 말이요.》

〈붉은 지평선, 243〉

무비루스 ㉿ 바이러스가 없음. ¶ 우리들은 짧은기간내에 이런 품종

을 만들어서 농촌 감자농사 혁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종알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있다. 우리는 감자농사 혁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 일해나가겠다.

〈북한위성 2000년 4월 7일 20:00〉

무비루스화되다 ㉸ 바이러스가 없게 되다. ㉡ 대단히 큰 규모의 감자원종생산온실이 이미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 훌륭히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어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농업과학분원들에도 이런 온실들이 멋지게 건설되고 있다. 앞으로 여기서는 공업적방법으로 무비루스화된 잔알감자를 생산하게 될것이다. 토양에서 감자를 자래우는것이 아니라 공간상태에서 영양액을 뿜어 주어 감자를 자래우게 되어 있는 이 온실들이 건설되어 운영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서 무비루스 잔알감자에 의한 감자농사를 더 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된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6일 1면〉

무움 ㉸ 무를 저장하기 위해 땅을 파고 거적 따위를 덮어 만든 구덩이. ㉡ 저것이 무엇인가?... 무심히 주위를 둘러보시니 어떤 짐승이 땅을 뚫고 강냉이알을 파먹은 자리가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강냉이알이 흩어진 자리를 들여보시였다. 동삼의 무움같은 구덩이에 쫓단이 박혀있는데 그사이로 다람쥐길이가 나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145〉

문가림보 ㉸ 문을 가리기 위해 달아놓은 보. ㉡ 명절전후의 바쁜 기사들을 쏘노라고 오늘이야 휴식의 하루를 얻었다. 문가림보를 헤쳐놓고 오랜만에 집앞거리를 내다본다. 길건너 고층건물의 옥상에 썬붙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의 큼직한 수자들이 신년벽두부터 사람들을 전투장으로 부르고있다.

〈먼 길, 47〉

문예방침 ㉸ 문학과 예술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계획. ㉡ 우리 시대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무용들을 만들어 낼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무용예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무용예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무용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섬세한 예술적 룰동이 현대적 미감에 맞게 창조되고 집체적인 조화와 개별적인 기교가 잘 결합된 매혹적인 조선의 민족무용은 내외무용애호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조선개관, 205〉

물게 ㉠ *물정. ㉡ 그러나 림영택이 보기에다 그의 사업방법과 작품에는 심중한 결함이 있었다. 차병진은 야금공업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한것만큼 이 부문에 대한 물게도 밝았고 경험도 많았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는데로부터 언제부터인가 자고자대병에 걸려 사업하는데서도 주관주의적편향이 심하였다.

〈뜨거운 심장, 150〉

물관리공 ㉠ 수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 ㉡ 제4작업반의 물관리공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논두렁을 물이 새지 않게 잘 손질하고 논물온도를 정상적으로 재여 보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물을 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3면〉

물원천 ㉠ 물이 나오는 곳, 혹은 나올 만한 곳. ㉡ 가물피해면적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군안의 포전들을 일일이 밟으면서 가물타는 밭의 면적도 요해하고 물원천도 찾았다. 그리고 강우기, 양수기 등 관수설비들에대한 긴급동원대책과 기관 기업소들의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중앙방송 2001년 5월 3일 06:00〉

물층 ㉠ 비슷한 깊이의 수심대. ㉡ 얼추 보아도 30여톤은 되겠다. 그런데 그 청어 떼는 전방 100여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그물이 끌리고 있는 물층보다 10미터나 더 깊은데를 회유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급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미 그물운동물층표를 만들어

놓은 기철은 당황함이 없이 신심에 찬 얼굴로 권양기 조종대에 붙어선 태일에게 지시하였다.

〈해쑷는 바다, 303〉

물피난 ㉮ 물난리를 피하여 멀리 떠남. ㉮ 《... 한밤중에 불현 듯 고동 소리가 양양 울어대기에 잠결에 뛰쳐나가니 어서 물피난을 가야 산다고 온 거리가 호떡집에 불난 격이 아니겠어요. 수리조합 동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차! ... 아버지와 더불어 소낙비가 퍼붓는 어둠을 헤치며 사람들을 뒤따라 정신없이 장달음을 쳤했어요.

〈그들의 운명, 10〉

몹시대다 ㉮ 미적거리다. ㉮ 할머니는 사내의 등을 떠민다. 그러나 사내는 향옥에게 흑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한참이나 몹시대였다. 향옥의 눈은 무서운 분노와 공포를 담고 번뜩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435〉

민립대학 ㉮ 국가에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세운 대학.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11-14〉

민족대국상 ㉮ 북한에서, 김일성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 ㉮ 문헌집에는 위대한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83 1994년 7월부터 주체 88 1999년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와 논문등 12건의 노작들이 수록되어있다. 이 노작들이 발표되던 시기는 우리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민족대국상을 겪었으며 제국주의 연합세력을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그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던 때였다. 이와 함께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하여 우리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를 지켜가고있던 시련의 시기였다.

〈중앙방송 2002년 4월 2일 06:15〉

민지 ㉮ 낚시 바늘에 달린 미늘. ㉮ 《그이는 솔로 그 바늘을 달달 말아 거기에다 성냥을 그어대시였다. 솔이 타면서 바늘이 새빨갳게 달았다. 바늘이 식어 쇠가 물러진 다음 나무에다 대고 끝에다 민지를 일

주시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묘하게 휘여 낚시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달군 다음 물에 담구어 쇠를 강하게 하시였다. 나는 낚시를 만드시는 그이의 솜씨에 그만 경탄할수밖에 없었다.》(《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2권, 212페이지) 《민지》는 《미늘》과 같은 뜻의 말이다. 즉 낚시 끝부분에 있는, 물린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바늘끝과 반대방향으로 내민 뽕족한 끝이다.

〈문화어학습 1970년 1호, 9〉

밀기침 ㉠ 잔기침. ㉡ 설매가 남편의 소식을 몰라 불안속에 지내던 어느날이였다. 레년에 없던 지독스러운 돌림감기를 앓고난 아들에 룡이가 밀기침을 쿵쿵 낚기에 그는 수수엿을 사려고 사창장거리로 나갔다. 한낮이 가까워올무렵이였다.

〈성벽에 비낀 불길, 109〉

박막 ㉠ 비닐 등으로 작물을 덮거나 온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얇은 막.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난 기간 정리된 땅에서 첫해부터 높은 알곡소출을 낼수 있도록 성능 높은 트랙토르와 모내는기계, 화학비료, 박막을 비롯한 영농물자를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도의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1면〉

반간놀음 ㉠ 간첩 행위. ㉡ 요시라놈을 어떻게 생각해보나 반간놀음을 하는 적의 간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거늘 어찌 그놈의 말을 믿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을 잡을 계획이 적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병서에서도 보지 못했었고 듣지조차 못한 일이다.

〈리순신장군, 439〉

반미성전 ㉠ 북한에서 말하는 6·25 전쟁. ㉡ 미제와의 3년간에 걸치는 반미성전은 또 얼마나 준엄하고 간고했던가. 폐허로 된 이 땅우에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기까지에는 실로 많고 많은 고난과 시련의 고비를 넘고 헤쳐야 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1일 2면〉

발기우리하다 ㉸ *붉은 기운이 있다. ㉸ 제독이 그의 말을 재빨리 받고는 호기심에 찬 눈길로 바라보면서 군침을 꿀꺽 삼켰다. 공사 역시 남달리 발기우리한 주먹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은근한 기대속에 프레스톤을 바라보는데 벨링캠만은 그의 기색을 결눈질로 훑쳐보더니 표정이 근엄해졌다.

〈성벽에 비낀 불길, 209〉

발더듬질 ㉸ *발로 더듬어 보는 행동. ㉸ 경표는 내쳐 웃고말았다. 나이가 들면 저렇게 생활의 매 걸음을 재여보고 혹시 땅이 꺼지지 않겠는가고 발더듬질을 해보고야 내짚는단말인가? 정말 뜻밖의 생각들이다.

〈붉은 지평선, 218〉

방아궁치 ㉸ 방아의 궁둥이(물이 차는 부분). ㉸ 수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이른봄의 따듯한 아침대기속에 단조로운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드디어 방아궁치에 물이 가득찼다. 빼앙-쿵! 방아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가 놓는다.

〈붉은 지평선, 104〉

방조자 ㉸ 협력자. ㉸ 인민들이 사상적으로 동요하고 변질되면 노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지탱점을 잃게 된다. 당의 두리에는 시련의 시기에 도 끝까지 혁명의 기치를 호소하는 영원한 동행자, 어려움을 겪는 당에 힘을 주고 보탬을 주는 진정한 방조자가 많아야한다. 충신의 대부대를 가진 당은 패하는 일이없다.

〈중앙방송 2000년 5월 9일 07:25〉

방풍나래 ㉸ *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나무 및 도구. ㉸ 2월 12일부터 15일사이에 지휘부군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버팀대 400여대, 활창대 6천여대를 마련하여 2개 작업반에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활창대 2만 7천여대, 버팀대 1만 2천여대, 방풍나래 3천여m를 여러 협동농장들에 가져다 주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4일 4면〉

배북 ㉸ 배 안. ㉸ 아버지가 읽고있는것은 바로 아버지가 쓴, 어제밤

자기들이 5백매나 더 찍어 나누어준 바로 그 뼈라였다. 송치환도 그것을 알아차린듯 배북에 차고있던 권총을 급히 뽑아들려고 덤벼쳤다. 덤벼치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송치환놈은 권총이 잘 뽑혀지지 않아 헤덤뻬었다.

〈적후의 별들, 369〉

배설 ㉠ 배의 옆부분. ㉡ 그물이 어느새 다 풀리고 조임줄이 빠드등거리며 천여 메터의 둘레로 행하니 뚫린 그물 밑이 천천히 배설으로 죄여든다. 그것이 끝나자 그물추개가 고르로운 동음을 퍼뜨리며 육중한 그물묶음을 감아올리었다. 그전 같으면 쉼노야의 구성진 가락에 맞추어 손힘으로 천천히 끌려나와 더디고 굼뜬것이 성능좋은 기계들로 당기니 미구하여 보장가까이까지 그물이 무난히 올라왔다.

〈해쑷는 바다, 188〉

백두산3대장군 ㉠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을 가리키는 말. ㉡ 이 과정에 이들은 대동군에 어려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탁상교양자료들과 365일위대성자료, 365일은덕자료 등 353종에 3만 1천 170여건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5호담당선전활동에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3면〉

백두산상체육축전 ㉠ 김정일의 생일(2.16)을 기념하기 위해 1977년 2월부터 시작된 백두산상 체육대회는 평양과 백두산의 삼지연에서 농구, 권투, 레슬링 등 30여 종목에 걸쳐 20개 전문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를 갖는다.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지난 2월 11일에 개막되었던 체육축전 《백두산상》이 폐막되었다. 축전에 참가한 체육인들은 경기마다에서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종목별 기술수준을 새로운 단계에 끌어 올림으로써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백색고문 ㉠ 상처없이 가하는 고문. ㉡ 이런 말들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있는데 《백색고문》이 그런 말가운데 하나이다. 《백색고문》이

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피하기 위하여 제놈들이 고문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가하는 악착한 고문을 말한다.

〈문화어학습 1996년 1호, 60〉

백색지대 ㉠ 아직 측량이나 답사를 전혀 하지 못하여 지도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한 지대를 이르는 말.

〈문화어학습 1997년 2호, 17-18〉

벌손 ㉠ *돈을 벌어오는 사람. ㉡ 남의 집 사람을 데려오려면 풍습대로 거액의 레장갑을 치르어야 했었는데 경표네는 그럴만한 살림이 되지 못했다. 이 일대에서 밥술이나 먹는다고 하는 춘절이네는 벌손이 없었다. 양재철은 구장질을 구만두고 농사나 착실히 지어보려 했으나 나이도 나이려니와 일에서 손을 떼지가 오랫동안.

〈붉은 지평선, 103〉

벗겨쓰다 ㉠ 닳다. ㉡ 명진이와 같이 아이들의 방으로 올라온 철민은 한참동안 명순의 곁에 앉아 딸의 잠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검고 길다란 눈썹, 오뚝한 코, 도투름한 앵두입술... 명순의 모색은 신통히도 제어미를 벗겨냈다. 갓 피기 시작한 꽃봉오리처럼 방석이 열린 입가에 방시레 잠웃음이 어린다.

〈뜨거운 심장, 64〉

벼툼 ㉠ 각각 고르게 벌려주는 일. ㉡ 철이는 형님답게 무엇이 있으면 벼툼을 잘해서 동생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였다.

〈문화어학습 1969년 4호, 40〉

별결듯하다 ㉠ 별이 총총이 박이듯하다. ㉡ 혁명의 수도 평양의 밤거리를 내다보니 전등불이 별결듯하였다.

〈문화어학습 1969년 4호, 40〉

보따지동무 ㉠ ? ㉡ 《백두산 햇눈을 온몸에 뒤집어쓰고나면 기계들이 한층 솟구칠거요. 옳지, 마침 저기 보따지동무가 나타났구만. 동무네 런대하구 경위대가 붙어보지.》

〈압록강, 45〉

보탑공원 ㉠ 북한에서, 서울의 탑골공원을 이르는 말. ㉡ 그들은 이 운동은 일본정부가 최근에 역사적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심의 통과한데 대한 항의로 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고 소비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보탑공원에서 담배를 비롯한 일본상품을 불태웠으며 일본 역사교과서를 규탄하고 일본상품사용을 금지하는 서명활동을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한국정부가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하며 쌍무 문화교류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지난시기 전쟁죄행을 까밝 힘과 동시에 일본 문화를 거절하고 일본 상품사용을 금지하는 한국 국민들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북경방송 2001년 4월 9일 20:00〉

본디 ㉠ *알맹이. ㉡ 모두 들어앉아 키로 까불기 시작했다. 본디와 꺾끄러미가 뽀얗게 뻗다. 꺾끄러미가 눈에까지 날려들어가 눈물을 짜 냈다.

〈은하수, 77〉

봄시위물 ㉠ 봄에 얼음이 녹아 내리는 물. ㉡ 마안산을 향하여 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작은 흐름속에는 교하에서 통신연락을 받고 달려온 제2련대도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1936년 봄에 있는 자연의 눈 석이철과 일치한 그 력사의 눈석이철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친솔 부대로서 조직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단은 넘쳐나는 봄시위물마냥 엄청 나게 불어났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따라 림시로 무어 주시였던 대렬들을 정비하시여 정식으로 대렬을 편성하시였다.

〈백두산 기슭, 341〉

봉사기지 ㉠ *갓가지 편의 봉사 시설이 갖춰진 기지. ㉡ 더우기 인기를 끄는것은 종업원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이다. 실적이 오르고 군중 체육, 군중문화사업이 활발해 지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더 잘 확립되 니 일에서 성수가 난다. 부업기지, 봉사기지가 은을 내기 시작하니 생활에서도 윤기가 흐른다. 김경남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높은 충성심과 실적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을 맞이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6일 2면〉

부러져나오다 ㉸ 확실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다. ㉹ 로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탄복해버린 태혁이가 먼저 애익 모르겠다 하고 부러져나오는바람에 지성어도 더는 고집을 못부리게 되어 짐을 네쪽으로 가르기 시작한것인데 그때부터 산막안은 마치 명절날처럼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처럼 기뻐 허허거리며 돌아가는 두 로인을 보고 누이도 눈물이 글썽해졌으며 태혁은 그 소라같은 주먹으로 몇번이나 코등을 문질러서 가뜩이나 언 코가 벌거우리하게 물들어있었다. 일찌감치 점심점 저녁요기를 한 일행은 아직 해가 남아있어서 길을 떠났다.

〈고난의 행군, 268〉

부석썰 ㉸ *물 위로 드러난 바위 사이의 공간. ㉹ 천지의 물이 부석썰으로 솟아어나오며 그 원천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한여름철까지도 말기에 덮여있는 장설이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는 수원을 이루는지 백두산 서북쪽마루턱에서 새어나온 두 물줄기는 서북방으로 즐기치게 흘러내리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도송화강줄기를 이룬다.

〈백두산 기슭, 416〉

부업기지 ㉸ 국가 공급 규정량 이외에 부대 자체에서 부업을 통하여 육류, 계란, 과일, 감자 등을 유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곳. ㉹ 더우기 인기를 끄는것은 종업원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이다. 실적이 오르고 군중체육, 군중문화사업이 활발해 지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더 잘 확립되니 일에서 성수가 난다. 부업기지, 봉사기지가 은을 내기 시작하니 생활에서도 윤기가 흐른다. 김정남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높은 충성심과 실적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을 맞이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6일 2면〉

부조공농 ㉸ 로동자와 농민이 서로 도와주는 것.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11-14〉

부후물소리 ㉸ ? ㉹ 우등불연기가 아니라면 여기에 인적이 있으리라

고는 생각지도 못할 자연의 깊은 침묵이 깃들어있었다. 고지 좌우기슭을 감돌아흐르는 부후물소리가 들려왔다. 김석원은 고지밑의 다래나무 넝쿨과 넘어진 진대나무들사이에 보병참호들을 굴설하게 하고 그뒤에 박격포진지들을 잡게 하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512〉

분분가 ㉠ ? ㉡ 《그쪽에 가서 아마 전투를 큼직하게 하고 계속 적들을 달고다니며 족쳐서 두만강일대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자 합니다.》 재영이와 금숙이는 말할것 없고 미리 무슨 분분가를 들은듯한 장경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짐작할수 없어 그이의 안색을 우러러 살피보았다.

〈두만강 지구, 31〉

분지미떡 ㉠ 곡식을 가루내어 만든 떡. ㉡ 《임자처럼 증참도 아니아니 해야 옳겠나? 이제 경훈이 그 사람이 나오면 분지미떡처럼 시뻘뻘하게 피어난 임자를 봐야 기뻐하지 새들새들해져서 콜짜거리는 임자를 봐야 기뻐하겠나말이야. 아이도 그렇지. 친탁을 해서 그만하면 먹새가 좋은 편인데 젖만 잘 나면 매일같이 달라질게 아닌가.》

〈적후의 별들, 142〉

분틀구멍 ㉠ 국수를 뽑을 때 쓰는 틀의 구멍. ㉡ 《여보, 부산은 그만 피우구 물이나 끓ियो. 순탄이는 돛바늘을 가져오너라. 분틀구멍들이 뻗을게다.》 순탄이는 검은 질그릇머주기에 물을 담뿍 담아들고 나왔다.

〈붉은 지평선, 83〉

불길소독 ㉠ *가열 소독. 불소독. ㉡ 리종훈, 최현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수의방역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호동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 불길소독과 소식회에 의한 소독 등 토끼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3일 3면〉

불나래 ㉠ *불을 단 날개. ㉡ 날으자 조국이여 세기의 령마루로 / 번

개쳐 가자 조국이여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 장군님 가리키신 강성대국을 향하여 / 그대는 라남의 불나래를 펼쳤구나 //

〈로동신문 2002년 2월 4일 4면〉

불뭉이자리 ㉠ 불을 피우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뭉은 자리. ㉡ 이날 대표단 성원들은 백두산 지구의 여러 혁명전적지들을 참관했다. 먼저 청봉 숙영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 혁명군을 친솔하시고 국내에 진출하시어 맹렬한 군사 정치 활동을 벌이신 항일 대전의 사연을 전해주는 숙영지의 불뭉이자리와 작식터자리, 구호나무들을 비롯한 소중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이날 건창 숙영지를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시고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모든 혁명전적지들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귀중한 사적물들을 돌아 보았다.

〈북한위성 2000년 8월 10일 20:00〉

붉은기수호전 ㉠ *붉은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 붉은기는 원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깃발로 북한에서는 그 상징적 의미를 정치·사회적인 부문에 인입해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9년이 지나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붉은기수호전의 진두에서 사회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시대의 앞길에 휘황한 전도를 펼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말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3일 2면〉

붓대포 ㉠ 문필 활동을 통해 사회를 혁명 분위기로 만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분과위원회에서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

게 하기 위한 정치사상공세의 시작을 알리는 위력한 《붓대포》의 첫 포문을 열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3면〉

비가름 ㉮ 비를 피하는 것. ㉮ 《있으면 쳐놓소, 공연히 비맞을턱 있소?》 《그런데 어디 비가름을 하세요?》 권령감도 배간이 좁다보니 담배 한대 편히 피울데가 없어서 풍막생각을 안 한것은 아니다.

〈해쑷는 바다, 249〉

비길획 ㉮ 비스듬하게 그은 획. ㉮ 다음날부터 광성이는 놀음에 정신을 팔지않고 붓글씨 연습을 열심히 했다한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대로 내리획, 가로획, 비길획, 둥근획 이렇게 수십가지의 획과자무를 매일과같이 쓰고 또 써나갔어요. 나날이 쌓여지는 종이와 함께 광성이의 붓글씨 재간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북한위성 2000년 7월 4일 20:00〉

비끼다 ㉮ *나타나다. ㉮ 음악 하나를 사랑해도 누리며 사랑할 것이 아니라 창조하며 사랑하라는 것이 장군님의 예술에 대한 사랑관이다. 음악예술을 인간의 도락을 북돋아주는 도구나 아무 의미도 없는 애짱 짬한 애수의 눈물이 아니라 주체 음악을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무기, 우리의 행군길에 더 없는 기쁨과 활기를 부어주는 낭만의 무기로 화해주시고 음악을 귀중한 혁명의 자본으로 여기시는 여기에 우리 장군님식의 음악창조의 세계가 비껴있다. 일찍이 리상화는 한편의 시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그때라야 시인의 가치가 있다고 썼지만 우리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노래로 노동당 시대를 빛내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을 음악으로 세상에 떨치는 여기에 작곡가들도 그 음악도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중앙방송 2000년 10월 18일 20:15〉

비육직장 ㉮ 가축을 길러 고기를 생산하는 직장. ㉮ 김정일동지께서는 종금직장, 비육직장, 알낳이직장, 가공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도내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닭공장을 단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랑동고마다에 차고 넘친 먹음직스러운 닭고기와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달걀폭포의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평북도 인민들에게도 고기와 알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공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 공업부문의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도의 책임일군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중앙방송 - 20011217 06:00〉

빨사하다 ㉸ ? ㉸ 눈앞은 안개가 낀듯이 뿌옇게 흐려보이였다. 그런 가운데 해죽해죽 웃음이 넘쳐나는 까만 눈에 턱이 빨사한 동그런 얼굴이 눈앞에 우뚝이 떠오른다. 정말 어찌 되었을가?

〈승리자들, 180〉

빼대대하다 ㉸ ? ㉸ 방안의 사람들이 우르르 그들을 따라나왔다. 집안의 소동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사까이주사는 빼대대한 쥐눈을 뚱그렇게 뜨고 입술을 오무리며 밖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란투는 불가피하였다.

〈붉은 지평선, 131〉

빼또칼 ㉸ 주머니칼. ㉸ 외진데를 찾아서 두필의 말을 끌고가던 봉길은 밋밋하게 비탈진 산언저리에 이르러 맞춤형 새초밭을 찾아냈다. 마른풀을 뜯어먹게 말들을 놓아준 봉길이는 호주머니에서 칼집이 달린 빼또칼을 꺼내들고 새초를 베기 시작하였다. 자기한테는 새초를 베라는 과업이 차례지지 않았지만 길잡이 늙은이가 타는 말까지 합쳐 두필의 말먹이새초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자기가 결코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늘 어린애취급하듯하는 경의중대장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그들 못지않는 당당한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주리라는 배심이다.

〈백두산 기슭, 9〉

빼몰기 ㉸ 드리블. ㉸ 모란봉구역청소년체육학교 소년조 축구팀의 주

장인 12살난 한혁철의 경기장면들이 펼쳐 질 때면 관람자들의 입에서는 찬탄의 목소리들이 저절로 튀어 나오군 한다. 그는 주로 10번을 달고 중앙공격선에서 활약한다. 공다루기가 얼마나 좋은지 빼몰기를 할 때면 그의 발에 공이 묻어 다니는듯 하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8일 4면〉

뽕뽕하다 ㉸ 속이 가득차 있다. ㉡ 자기보다 어방어빰이 키가 큰 춘석을 올려다보는 조창봉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허리에 탄띠를 띠고 사냥총을 멘 박춘석은 등에는 배가 불러 뽕뽕한 룡사크를 짊어졌다. 그는 땀을 철철 흘리고있다.

〈붉은 지평선, 305〉

빠덩하다 ㉸ 뻑뻑하다. ㉡ 그 량옆에는 아아한 벼랑들이 치솟아서 에 돌아갈수도 없었다. 선이는 오를수 있었으나 영웅의 빠덩한 의족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앓은걸음으로 두어자국 옮겨디뎠다가는 쪽 미끄러졌다.

〈승리자들, 130〉

뿔탄 ㉸ 대량의 살상을 위해 만든 산탄형 폭탄. ㉡ 그들은 시약과 석탄에 온통 옷과 얼굴들이 어지러워져서 교반봉을 저었으며 쇠절구질을 하였다. 그런데 착화제 연구에서도 뿔탄제작에서도 좀해 전진이 없는 것이였다. 산화제를 리용하면 무연탄에 불이 쉽게 달릴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뿔탄을 만드는데서도 소성방법이나 수선편이 곧 탐구되지 않았다.

〈새로운 향로, 283〉

뿌죽뿌죽 ㉸ 뻐죽뻐죽 ㉡ 울적한 마음을 풀지 못한채 집에 오니 집은 또 집대로 부산하다. 나무 등걸이 여기저기에 뿌죽뿌죽 머리를 내민 트락에는 이영을 덮으려는 새초가 너저분히 널려있고 이끼로 짙은 귀틀집벽에서 누런 송진이 뺨에 맺힌 눈물같이 널려있고 여기저기에 드리워져있다.

〈붉은 지평선, 349〉

뿔구다 ㉸ 불리다. ㉡ 《제 모르는 소견에는 위장하구 다니더라두 아

편밀수업자루 변장할것 같진 않소다. 공산군이야 사자본반대자들이겠는데 하필 공산주의하구 제일 반대되는 사자본을 도적모양으로 빨귀보자고 하는 아편밀수업자로 가장할턱이 있겠소?》 산하조직에서 맑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약간 눈이 뜬 덕삼은 제법 자기류의 소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압록강, 116〉

빨대군 ㉠ 측량에 필요한 기둥을 잡아주는 사람. ㉡ 일대 난투가 벌어졌다. 측량기사, 기수, 빨대군 할것없이 뼈마디가 늘어나도록 매를 맞았다. 측량기수 한놈은 안경까지 박산이 났다.

〈혁명의 려명, 548〉

사까랍다 ㉠ ? ㉡ 재철은 씩씩히 인사를 받았다. 《원체 이 산림조합 일이란게 사까랍다니까요. 그새 면에 갔다오느라구 도와드리지 못했소다.》

〈붉은 지평선, 237〉

사도지 ㉠ *제도한 것을 그리는 용지. ㉡ 의진은 배우면서 하는 일이라 첫통에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T자며 삼각자, 오구콤폴스등 제도기구들을 잘 다룰줄 몰라 줄을 긋고 사도지를 버리기가 일쑤였으며 먹을 잘못 다루다 떨구어 오랜 시간이 걸려 사도한것을 버리고 또 새로 하기도 뜨문하였다.

〈새로운 향로, 198〉

사명 ㉠ 기능. ㉡ 건물 중심부를 이루는 가동은 약 7백석의 회의실을 중심으로 회담과 면담 휴식 등에 필요한 여러개의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남쪽측면을 이루는 나동은 돌출 노대가 없이 단형단일 물매로 1,2층을 구성한 3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큰 회의실을 중심으로 하고 집회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사명의 방들과 넓고 시원하게 구성된 현관홀, 휴게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북쪽측면에 이르는 다동은 약 8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지는 큰 연회장과 여러개의 중소 연회장, 소 영화관으로 이루어졌다.

〈평양방송 2000년 6월 24일 18:45〉

사회주의선경 ㉮ 신비스럽고 그윽한 사회주의적 이상향. ㉿ 봄철나무 심기가 시작되었다. 조국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것은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2일 2면〉

살맛다 ㉮ 화살을 맞다. ㉿ 그 고향소리 한마디가 무서웠다. 살맛은 토끼새끼들처럼 와르르 흩어져서 달아나버렸다. 희영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통일문학, 239〉

살찌우기못 ㉮ 고기를 살찌우기 위한 연못. ㉿ 이 메기공장일군들과 관리공들은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치는 뜻 깊은 올해에 맛 좋은 메기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메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다. 예로부터 가장 춥다고 한 소한, 대한추위가 겹치는 1월에도 그들은 메기양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도 이 메기공장의 새끼물고기못들과 살찌우기못들마다에서는 더운 김이 피여 오르고 메기떼들이 욱실거리고 있다. 살찌우기원형못들에는 팔뚝 같은 메기들이 자라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4일 3면〉

삼굿두리 ㉮ ? ㉿ 전중모가 삼단을 내리워놓고 삼굿두리에 빙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그랬는 모양입니다.》 럽성재가 근심스럽게 대답했다.

〈붉은 지평선, 374〉

삼흥사전 ㉮ 북한에서 개발한 정보검색 소프트웨어. ㉿ 컴퓨터 리용자들은 간단한 입력조작으로 해당한 올림말을 찾아 볼수있으며 성구나 속담까지 즉시 탐색할 수있다. 이밖에도 삼흥사전은 다른 사전과 구별되는 특징은 자체의 폰트를 차고있으므로 단군이나 내나라와 같은 조선글입력 프로그램들의 도움이 없이도 조선글입력을 실행할수있다. 또한 삼흥사전이 이전의 사전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탐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것이다.

〈북한위성 2000년 10월 13일 22:20〉

상도 ㉮ 장사꾼 무리. ㉮ 《아무래도 기계수들의 기량이 부족해. 성질 동무가 듣기 싫어하는건 알지만 상도들을 보내야 했어. 나는 사무실에 가겠네.》

〈붉은 지평선, 110〉

상발 ㉮ 출근. ㉮ 《쌍발》이란 중국말을 조선한자음으로 이룬 말이다. 본래말은 《상반》인데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사람들이 흔히 《출근》을 《상발(쌍발)》이라고 한다.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11-14〉

새오르다 ㉮ *숫아오르다. ㉮ 그러한 가운데 주체사상탑에 쌍무지개가 새올라 평양시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로동신문 1994년 10월 5일 1면〉

새초밭 ㉮ *새로 풀이 자란 풀밭. ㉮ 의진대를 찾아서 두필의 말을 끌고가던 봉길은 밋밋하게 비탈진 산언저리에 이르러 맞춤한 새초밭을 찾아냈다. 마른풀을 뜯어먹게 말들을 놓아준 봉길이는 호주머니에서 칼집이 달린 빼또칼을 꺼내들고 새초를 베기 시작하였다. 자기한테는 새초를 베라는 과업이 차례지지 않았지만 길잡이 늙은이가 타는 말까지 합쳐 두필의 말먹이새초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자기가 결코 어린애가 아니라는것을, 자기를 늘 어린애취급하듯하는 경의중대장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그들 못지않는 당당한 어른이라는것을 보여주리라는 배심이다.

〈백두산 기슭, 9〉

새형 ㉮ 새로운 형태.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들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이 새형의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총화하시였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1면〉

색날다 ㉮ 빛깔이 바래다. ㉮ 주창범은 통절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문턱안에 가리워선 종다리어방에 가 멧었다. 색날은 바지에 각반을 탄탄하게 감아올렸는데 각반틈사리에 길면지가 뽕양게 끼고 무릎우 후렁 후렁한 허벅다리어방에는 풀씨들이 매달려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250〉

색사탕 ㉠ 설당을 끓여서 색을 넣어 만든 과자. ㉡ 화월관의 다음 집은 색사탕이요, 치약, 치솔이요, 비누, 수건 따위 알락달락한 진렬장을 벌려놓은 왜놈황아전이였다. 삼성호정미소까지 가볼것인가 어쩔것인가 망설이는데 뒤에서 꺾 하는 트림소리가 나더니 만주오지에서는 드물게 보는 백고무신을 신고 조선바지저고리에 조끼를 받쳐입은 상고머리가 지나치다가 고개를 돌려본다.

〈대지는 푸르다, 348〉

색싯토리 ㉠ *방추형으로 잘라놓은 싯 몽당이. ㉡ 때가 새까만 무명수건을 머리에 가로 동이고 큰 지게를 진 옹기장사군들이 때목촌 뒤덕으로 다그쳐오르고 팔과 가슴에 울긋불긋한 색싯토리며 땀기를 단 행상군들이 뛰어들었다. 그뒤로 생선함지, 떡함지, 땅콩을 구워팔던 불붙는 풍로들이 잇닿아오르고 옛장사들의 등짐이나 약장사의 손짐이 꼬리에 묻어들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262〉

색천신발 ㉠ *색깔이 들어간 천으로 만든 신발. ㉡ 그런데 얼마를 못가서 풀밭은 끝나고 둘러보아야 뻗어나간건 좁은 논둑길뿐이다. 조포한 성미라 논둑길이라고 주저할 인간이 아니였다. 했건만 아직 논두렁 풀을 깎지 않은 풀속의 좁은 두렁길을 걸어나가자니 걸핏하면 발을 번디더 논창에 침병 빠지군했다. 신발안에 물이 들어가니 질벽거려 더욱 걸기가 말쑥다. 이제는 걸핏 내디디기가 바쁘게 빠져든다. 색천신발이 물을 탕탕먹어 어찌도 묵직한지 발목이 시여 그만 멧어서고 말았다.

〈성벽에 비낀 불길, 335〉

색텔레비 ㉠ 컬러 텔레비전. ㉡ 동무나 나나 다 같이 행정일군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일을 잘하도록 뒤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책임비서실에는 색텔레비가 없어도 지배인실이나 기사장실에는 그것이 꼭 있

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서야 한단 말입니다.

〈뜨거운 심장, 110〉

생목 ㉠ 익지 않은 목으로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비유적으로 쓴 말. ㉡ 군사에는 전혀 생목이어서 순라군으로 뽑는다 해도 기가 질릴판인데 더더구나 순라군들을 맡으라 하니 억이 막혔다. 말몰이군과 지게군노릇을 하던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소임을 맡기다니 너무나 황송해서 머리를 들수 없었고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12〉

서강막바지 ㉠ 서강의 끝부분. ㉡ 아직도 채 마르지 못해 녹신누긴한 촉감을 주는 가죽이었다. 분명 이 서강막바지의 깊은 숲속에서 짐승잡이를 해가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오돌막임에 틀림없었다. 《이 노루가죽이 채 마르지 않은걸 보니 주인이 집을 비운지가 과히 오랜것 같지 않습니다.》

〈압록강, 31〉

선군문학 ㉠ 2000년 말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선군정치에서 나온 개념. 특정한 문학작품을 일컫는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일 시대의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문학사적 구분방법이다. 모든 작가들이 수령, 사상, 군대, 제도 제일주의를 목표로 하여 탐구와 사색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 우리는 주체문학론의 요구대로 소설문학을 선군문학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성격문학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하며 묘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난 기간 소설문학창작에서는 낡고 굳어진것에 전면 도전하여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 우리 소설문학은 새 세기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자기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묘사가 없고 작가의 론리적해설로 제기한 문제를 해명하려는 경향, 총체적으로 인간의 성격이 보이지 않고 참다운 삶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해명이 없는 소설들이 아직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2면〉

선군사상 ㉠ 군대의 힘이 사회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생각

아래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체 당원 및 근로자들에게 군대를 위주로 따를 것을 호소하는 김정일 시대의 정치 사상. ¶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더없이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담력으로 전진하며 김정일동지식으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질이다. 조선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총 돌격전에서 비약과 혁신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는것보다 더 큰 공지와 영예는 없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5일 1면〉

선군시대 ㉠ 군대를 중심에 놓고 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시대. ¶ 다음으로 황해남도 연안군 풍천리 청년분조장 윤은하가 토론했다. 그는 초급단체가 동맹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노선으로 튼튼히 무장한 선군시대의 실농군으로 농장의 참된 주인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 높아진 그들의 사상정신적 열의에 맞게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 두벌농사에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한데 대해서 언급했다. 이 나날 초급단체는 청년전위 2중모범초급단체로, 청년분조는 영예의 2중모범청년분조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토론자는 자기들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새 세대 농촌 청년들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원의 본분을 다하자면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쌀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야 하며 그러자면 청년분조 동맹원들이 선군시대의 실농군, 사회주의 농업전선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평양 2002년 3월 21일 19:00〉

선군정치 ㉠ 군대를 위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하는 김정일의 정치. ¶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방식이 바로 선군정치라는데로부터 나온

말일것이다. 선군정치는 군대부터 강화하고 그것을 나라의 기둥,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3일 6면〉

선군혁명 ㉠ 선군정치 혁명. ㉡ 지난해에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피 난 긍지 높은 단결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절히 그리며 어려운 시련을 과감히 헤쳐 왔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1면〉

선군혁명실록 ㉠ 김정일의 정치적 업적과 풍모를 집대성한 대주민 교양사업용 자료집. ㉡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뜻 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엮으시며 강성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세차게 끓어 넘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4일 1면〉

선산부 ㉠ ‘선산(先山)’은 광산이나 탄광막장에서 ‘앞에 서서 채굴작업을 맡아하는 노동자’를 이르던 말. [先山夫]. ㉡ 《안해를 만나기 위한 준비삼아 한동안만 불장을 보다 가자는것이니 말하자면 즐거운 고역이나 다름없는셈이지. 형은 이미 그 일에 익숙된만큼 선산부가 된셈하고 잘 도와주게나.》 《그만두락카지 않노.》

〈그들의 운명, 120〉

선폭 ㉠ ? ㉡ 이때 삼현이가 그를 제지시켰다. 《가만! 오른쪽에 선폭을 한방 더 해야겠소. 곡괭이로 파내던가...》

〈시대의 기수, 118〉

설동하다 ㉠ 말로 선동하다. ㉡ 《그간놈 잘못 선도했다고 뒤에 목을 베겠으면 베라지. 내 한번 나서서 중영병사들을 설동해서 미국악당놈

들을 칠 생각인데 어땡소?》 그러나 권기진은 선뜻 찬동해나설수 없어 《글쎄요?》 하고 애매한 대꾸를 했다.

〈성벽에 비긴 불길, 367〉

성강의 봉화 ㉠ 북한이 2000년까지 사용해 온 경제 부흥 슬로건. 이후 '라남의 봉화'로 변경된다. ㉡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령도를 떠나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올라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영웅서사시로 수놓아 지고 있는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7일 2면〉

성립학교 ㉠ 중국에서, (나라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닌) 성(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에서 세운 학교.

〈문화어학습 1993년 3호, 5-7〉

세계축구선수권대회 ㉠ 월드컵. ㉡ 우리 인민군해군은 남조선해군함선들과 어선들이 최근에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 령해깊이 침범해 왔지만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그리고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모로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1일 4면〉

세목장 ㉠ 나무를 키우는 곳. ㉡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교양실, 침실, 취사장, 세목장, 일일창고, 체육장, 야외휴식장을 비롯한 부대의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이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 주시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7일 1면〉

세발구 ㉠ 세 꾸러미. ㉡ 《도천리에서 들어온 소들이요. 김정숙동무가 비상련락을 띄우면서 사령부가 밀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군물자를 세발구나 꾸러보냈소. 대단한 일이요.》

〈그리운 조국 산천, 280〉

세소반 ㉠ ? ㉡ 그러다가 작년봄부터 나이가 많아 뜨랄선에서 내려는데 그때 성규는 년로한 권영감을 한 기범선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후에 예비탐구를 위한 토의때 지배인 용택이가 선단에 기범선도 여러척 되는데다 권령감같은 오랜 어부들도 있어 잘 하면 자체로 세소반을 내와도 한몫 볼수 있는데 예비를 찾을줄 모른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권령감을 반장으로 립시로 세소반을 내왔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아무리 공정하게 보려고 해도 쌀에 뉘처럼 성차지 않는 성규였다.

〈해숫는 바다, 17〉

소매낙지 ㉠ 다리가 짧은 낙지의 일종.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희귀한 바다동물인 소매낙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보내신 2마리의 소매낙지는 열다리목 소매낙지과의 한종으로서 낙지류가운데서 제일 크며 다리가 몸통보다 짧고 누런 밤색을 띤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5일 1면〉

손가락글자 ㉠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글씨. ㉡ 마을처녀, 아낙네들처럼 모래가 담긴 모랭이를 앞에 끼고 앉아 모래에 손가락글자를 익히지는 않아도 역시 야학생이 되어 앉아 있군하는 윤로인은 등디목에 올라와 앉은 복둥이를 끌어주며 복둥이에게 일러주었다.

〈압록강, 216〉

손가시 ㉠ 손이 바늘처럼 돋는 병. ㉡ 이런 일은 며칠을 두고 계속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이 갈라지고 손가시가 하얗게 일어나서 아침저녁 물일을 하기조차 힘드시였다. 어느날밤 그이께서는 타리개에 맞쓸려 찢어진 상처자리가 이상하게 시원하고 장밤 쭈셔대던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미를 느끼고 눈을 뜨시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74〉

손갈구리질 ㉠ *손가락으로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 하는 일. ㉡ 박창우는 그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방안에 널린 짚검불을 손갈구리질로 굵어모아서 최승보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승보는 짚 녀대를 뽑아 끝을 조지더니 발뒤축에 눌러짚고 가는 새끼를 비비는데 마치 바줄이나 드리듯이 꾸꾸 힘을 쓰며 꼬아나갔다.

〈대지는 푸르다, 474〉

손밀차 ㉸ 손으로 밀고 다니는 차. ㉸ 운반조 아바이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공무직장 쪽으로 손밀차를 끌고 갔다. 최영준은 선걸음으로 자재 공급 지도원실에 들어갔다.

〈통일문학, 63〉

손세레 ㉸ 사람의 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 높은 산 능달쪽에까지 진달래가 빨갛게 피어났다. 사람의 손세레를 받아보지 않은 병풍동의 진달래는 제멋대로 키높이 자라서는 가지마다에 어린애의 주먹만큼 짙은 진분홍빛으로 떨기떨기 피어나서 이 땅의 새 주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붉은 지평선, 278〉

솔풀 ㉸ 묽고 점착성이 강한 흙. ㉸ 해발높이 1,200m이상 되는 지대들에는 가라지, 메귀리, 솔풀, 녕쿨메밀, 털향유가 많다. 이 지대에 나는 김들은 별방지대에 나는 김들에 비하여 잎, 줄기의 질량이 비교적 가볍지만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많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7일 3면〉

수령결사옹위정신 ㉸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하자는 정신. ㉸ 계획수행기간 이틀앞에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이 광산의 로동계급은 라남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나갔다. 지배인, 책임비서, 기사장이 3위1체가 되여 생산전반을 틀어 쥐고 혁신적으로 밀고 나갔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3면〉

수령송가 ㉸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하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노래. ㉸ 누리를 진감하는 조선의 수령송가는 위대한 령도자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된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들이 터치는 태양찬가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3일 2면〉

수령영생위업 ㉸ 김일성의 혁명역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

¶ 돌이켜 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 가시는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는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는 이 땅우에 실로 눈 부신 현실을 펼쳐 놓았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2면〉

수령형상 ㉠ 김일성 주석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그와 관계된 것을 표현하는 것. ¶ 우리의 주체문학에서 수령형상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조된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서 시작되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조국광복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 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2면〉

수령형상문학 ㉠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물. ¶ 우리 4·15문학창작단의 전체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 발표 10돛이 되는 올해에 라남의 봉화 따라 실력전의 된바람을 또다시 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명작창작으로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더 높이 쌓아 가겠다는것을 독자들앞에 굳게 결의 다진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3면〉

수리이 ㉠ 수컷. ¶ 《앙이 참! 그래두 새끼랑 낳을 피계가 값나가지 수리이는 무슨 수리이오다.》 중년이 받은 말이다.

〈붉은 지평선, 369〉

숙일사하다 ㉠ *숙이는 듯하다. ¶ 리경준은 적후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전우에게 한참이나 나무람을 하였다. 장기령은 그 말을 별로 뜨끔해하지 않고 머리를 숙일사해서 듣고만 있더니 히죽히죽 웃으며 이제 오래지 않아서 만나게 될터이니 그만 꾸짖고 사업이야기로 넘어가자고 말하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뿌렸다.

〈백두산 기슭, 310〉

숙임돌 ㉠ 추. ¶ 《선박공장엔 왜?》 《중충뜨랄을 하는데 100키로 짜리 숙임돌이 있어야 된대요.》 《뭘 숙임돌?》

〈해쑷는 바다, 36〉

송배심 ㉠ 송배하는 마음. ㉡ 지난기간 조선인민군 협주단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에서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이 노래를 독창과 방창, 합창, 기악중주등 여러 형식의 성악과 기악작품으로 형상해서 공연무대들에 올렸다. 만수대예술단과 인민보안성 협주단,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에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송배심에 바탕이된 노래에 사상적 내용과 정서적 감정을 어은금 가무와 어은금독병창, 어은금합병창, 기타병창, 바이올린독주와 관현악등으로 훌륭히 형상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우리인민의 철의 의지인양 온나라를 진감하며 강성부흥을 위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마당에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중앙방송 2001년 11월 4일 07:00〉

숫토리 ㉠ 숫 덩어리. ㉡ 반년전에 세상을 떠난 제 형을 대신하여 그 판에는 가정의 실한 장정답게 일한다고 식전에 숫가마로 떠나갔다. 오늘 빈 소발구가 면으로 가는 편이 있는데 그걸 빌려서 숫토리께나 실어보자고 어제부터 서둘고있는 령감이다. 그랬으면 제나 할것이지 똥진 오소리와 같이 이구멍 저구멍을 나들며 가정의 진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하는 원술이에게 시켜서 이렇게 배를 풀리게 할것은 무엇인가, 글썄 원!

〈붉은 지평선, 2〉

쉬쭉쉬쭉 ㉠ 벌레가 우는 것처럼 나는 소리. ㉡ 상철이가 달려나가니 다시금 숲속은 괴괴한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벌레소리만 쉬쭉쉬쭉할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숲속은 결코 숨죽인 심연은 아니었다.

〈두만강 지구, 504〉

시글다 ㉠ ? ㉡ 《하긴 눈통이 시글게는 군단말이야.》 쓰거운듯 렴성재는 랑소를 짓는다.

〈붉은 지평선, 67〉

시려나다 ㉠ 몹시 시리다. ㉡ 백두산의 눈이라는 의식때문인지 북만

에서 가끔 속이 달 때 맛보시던 눈과는 달리 무어라 이름지을수 없으나 조국땅의 향기, 조국의 정갈한 물맛이 느껴지는듯싶은 눈맛이었다. 슬며시 갈마드는 향수에 젖어드신채 손바닥에서 녹기 시작하는 햇눈송이들을 이윽히 감상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출구자락을 내려놓으시고 부지중 시려나는 두손을 맞비비시며 눈가래삼아 쓸만한 것이 없을가 하여 천막안을 둘러보시었다.

〈압록강, 39〉

시시부레하다 ㉸ 시시하다. ㉡ 원술이는 장거리를 나서자 혼자소리로 두덜거렸다. 돈냄새에 노랑게 절을 장사군은 옷을 사고 남은 거스름을 줄대신에 잔돈이 없다면서 손거울이며 기타 시시부레한 잡동사니를 손에 쥐여주며 야살을 부린것이다. 더 시비질을 하기도 싫고 번잡한 장거리의 분위기가 도대체 자기의 체질에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았다.

〈붉은 지평선, 191〉

식료상점 ㉸ 식료품점. ㉡ 그가 식료상점앞을 지나가려 할 때였다. 그 상점옆으로 난 골목길에서 잠자리날개같은 하르르한 하늘색머리수건을 쓰고 연곤색작업복을 가뜰히 차려입은, 몸매가 날씬하고 아리잠 직해보이는 젊은 녀인이 종종 걸어나왔다.

〈뜨거운 심장, 68〉

식사질 ㉸ 밥먹는 일. ㉡ 《그런데 동무네 병실두 습기가 몹시 차?... 식사질이랑은 어떤가?》 그러자 수화기에서 곧 불평이 터져나왔다.

〈승리자들, 71〉

신수놀음 ㉸ 신선놀음. ㉡ 《그런데 대차를 타고 가다가 내림받이에서 하도메가 먹지 않아 두어차판 굴러팡개쳤소다. 이거야 신수놀음이 지 나나 이 사람이 제 죽고 싶어서 그노릇을 했겠나요. 그래도 구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만강 지구, 59〉

신파장 ㉸ 새로 생긴 장. ㉡ 목청을 돋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청어비린내가 풍겼다. 갈퀴장사, 조리장사, 빗장사, 술장사... 신파장에서는 아예 시세가 공인녹거리들이 골목을 쏘다녔다. 덜컹덜컹 바퀴소리

를 올리면서 나무를 쳐실은 밤달구지가 지나갔다.

〈그리운 조국 산천, 120〉

실거품 ㉠ *실처럼 길게 뿔어져 나오는 거품. ㉡ 유격대원은 사납게 날뛰는 말을 멈춰세우려고 고삐를 힘껏 뒤로 잡아챘다. 말은 지독한 땀냄새를 풍기며 권일균의 둘레를 돌았다. 말주둥이에서 날려오는 실거품이 그의 얼굴이며 목에 선뜩하게 휘감겼다. 말 위에 유격대원은 숨이 턱에 닿아 부르짖었다.

〈근거지의 봄, 413〉

실두렁짓기 ㉠ 논이 바닥이 기울어졌을 때 수평이 되도록 두렁을 지어주는 일. ㉡ 우리는 농장의 작업정량표나 농장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것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모내기철에 많이 쓰이는 《논판 고르기, 논두렁짓기, 논두렁매질, 실두렁짓기, 모뜨기, 모꼴기...》란 말을 비롯하여 《나래엮기, 뜰엮기 (벼)모뭉치기, 도랑치기, 논물대기...》 같은 말들을 수많이 들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를 널리 해왔고 일찍부터 모내기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한 말들이 매우 풍부히 발전했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심란증 ㉠ 마음이 어수선한 병. ㉡ 놀메기같은 금이박이놈이 생각날 때면 버릇같이 진저리가 쳐지는 한편 따벌처럼 독을 쏘아 놈의 손목쟁이를 병신으로 만들어놓고도싶었다. 때로는 우울증에 못이겨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란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언가 입속말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별치도 않은 일에 신경이 썩여지고 가시가 돋히군했다.

〈그들의 운명, 171〉

쌍침재봉 ㉠ 두 개의 바늘로 바느질을 하는 일. ㉡ 재봉직장에서도 현대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직장에서는 인민들에게 맵시 있고 질 좋은 신발을 보내주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 나섰다. 이곳 생산자들은 여러가지 색깔의 무늬를 장식하고 쌍침재봉을 기술적으로 잘하면서도 생산적양양을 일으켜 종전보다 2배나 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2일 1면〉

썰림견딜성 ㉠ 마찰을 견디는 특성. ㉡ 최근 로씨야와 뿔스까의 과학자들이 강도가 금강석과 류사하고 썰림견딜성이 금강석을 룡가하는 새로운 복합재료를 합성해 냈다. 과학자들은 미세한 흑연알갱이가 들어있는 폭약을 폭발시키면 이때 생겨나는 높은 압력과 온도로 하여 흑연미립자들이 순간에 약 10mm크기의 금강석미립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금강석미립자와 분말상태의 탄화규소를 고리형고압실에 넣고 실내압력을 80억Pa, 실내온도를 2,000℃로까지 올리면 구조가 치밀한 새로운 복합재료가 생성된다고 한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8일 4면〉

썩드러지다 ㉠ 쓰러지다. ㉡ 몸에 무엇인가 싸늘한것이 지나갔다. 치안대 사무실안에는 얼굴이 발바리처럼 생긴 미제장교놈 뺨스가 치안대장 신정삼의 책상에 걸터앉고 그옆에는 거의 썩드러지는 걸상에 신정삼의 오랜 사환군으로 있던 허진풍이 앉았다. 허진풍의 오른편에는 마을사람들이 후퇴를 끝마친 그날 석양에 토굴에서 게나온 와룡동에 사는 상투바위아들이 서있었다.

〈승리자들, 278〉

썩실안내기 ㉠ 옷감을 짤 때 가로방향에 놓이는 실을 생산하는 기계. ㉡ 리성중동무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낸 무복직기, 썩실안내기는 수지료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새롭게 창안제작한것이다. 하여 대전현상이 없어 지고 천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5일 2면〉

썩썩 ㉠ 어떤 일을 기세좋고 빠르게 하는 모습 .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은을 내고 있다.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회전식 틀보습으로 감자밭을 썩썩 갈아엎고 있다. 신흥, 서두, 농사동, 백산, 홍암농장의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 있는 영광의 땅을 나라의 이름난 감자산지로 빛내일 한마음 안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있다.

〈중앙방송 2001년 10월 31일 21:00〉

아닌보살 ㉸ ? ㉸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닌보살을 할터이요?》 한성옥은 눈에 불을 달고 따지기 시작하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425〉

아래학년 ㉸ 하급생. ㉸ 《형님, 탄원을 축하해요.》 아래학년 학생들이 저저마다 달려가 형님들에게 꽃송이를 안겨 준다. 아니 앞가슴이 환하게 척 달아 준다. 꽃송이 단 가슴을 쪽 펴고 어깨를 으쓱이는 졸업반학생들, 그들의 피 끓는 심장의 불 타는 맹세를 담아 탄원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다. 얼마전 평양인흥고등중학교에서 있는 조선인민군입대탄원모임의 한순간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아름다운 소행 ㉸ 아름다운 행동. 남한에서 소행은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 이들은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 군인들을 위함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문화용 기재들을 보내주는 등 원군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인민군대를 위하는 아름다운 소행은 4월8일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속에서도 높이 발양되었다. 또한 인민군대의 총대위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조국의 강성부흥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11월28일 공장 지배인 김경화와 그의 가정은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다.

〈중앙방송 - 20001025 07:00〉

아브로라 ㉸ ? ㉸ 맨뒤에 선실로 내려오신 그이께선 선실의 두칸방을 돌아보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물우에서 한바탕 싸움을 시작해봅시다.》 그이께서 크게 웃으시였다. 강창수는 인제야 좀 마음이 놓이여 우스개소리로 아브로라의 포성을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은하수, 171〉

아양하다 ㉸ ? ㉸ 자기의 꿈꿈이질이 일단 부락에 알려지는 날이면 제가 쏘였다는 땅벌의 집을 해집어놓은만큼이나 아양할것도 예견은 했으나 대번에 들어오는 전중모의 주리경에 그만 억이 막혔다. 더 대면

하고 앉았대야 화해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이다.

〈붉은 지평선, 336〉

안간 ㉸ ? ㉸ 올봄 간도쪽에서 폭동을 겪고 이사를 해온 정삼이 어머니의 말이다. 이 고장에서는 함경도사람이 드물어서 그의 말투가 늘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지만 워낙 드살이 센 안간이라 누가 뭐라고해도 굽어들줄을 몰랐다. 《아니 안간은 또 무슨 안간?》

〈대지는 푸르다, 94〉

안준하다 ㉸ 차분하다. ㉸ 그런데 처녀의 걸음새는 몹시도 날렵했다. 사뿐사뿐 옮겨짚는데 늦은 걸음걸이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성미가 안준하면서도 다기찬 기상이 풍기는듯싶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37〉

안탁 ㉸ ? ㉸ 그는 달리며 맞다드는 병사에게마다 《백락연중군님이 어디 계시오?》 하고 물어대면서 마침내 백락연중군이 자리잡고있는 지휘처에 찾아갔다. 그곳은 방수성앞 언덕 안탁이었는데 오탄여울쪽은 흐늘어진 실버들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턱진 언덕말이여서 놈들의 총포탄만은 피할수 있는 안전한곳이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415〉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다 ㉸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고 주체님께 굴다. ㉸ 여기에 그누가 끼어들어 간참할 권리도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일본은 앉을 자리 설자리도 분간하지 못하고 분수없이 여기에 끼어들어 격에 맞지않게 훈시질을 하고있다. 바른대로 말해서 일본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의 자주권행사에 간참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외활동에 비추어 자신을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중앙방송 2000년 11월 12일 13:53〉

알모 ㉸ 직파. 모내기를 아니하고 논밭에 직접 씨를 뿌리는 일. ㉸ 《여우리》나 《자갈넣다》와 같은 말은 지금 우리의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쓰이고있는 말들이다. 《여우리》란 마른논에 벼씨를 뿌려서 밭곡식처럼 기르다가 물을 대여주는 모기르기방법을 말하는데 지금 흔히

쓰는 《건직파》란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벼모를 내지 않고 무논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것은 《자갈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수직파》하는것을 말하는것이라고 본다. 벼모를 내는 대신 벼알을 모내듯이 놓아나간다는데서 《수직파》를 《알모》라고 하는데도 있다. 《여우리》, 《알모》, 《자갈넣다》와 같은 말은 전날부터 써왔거나 농장원들속에서 새로 쓰이고 있는 우리 말들인만큼 찾아낸 이 말들을 적극 살려 써나간다면 《건직파》, 《수직파》와 같은 한자말을 쓸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알쓸다 ㉠ 산란하다. ㉡ 그리고 낚시질에 여념이 없다보니 번거로운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 더욱 좋았다. 《정말 큰 놈들이요. 이제 알쓸기 전이니까 살도 쪼군.》 성규는 흐뭇해서 눈알이 머룩머룩한 놈들을 들여다보고나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해쑷는 바다, 38〉

알용닭상자 ㉠ *달걀을 담은 상자. ㉡ 리병찬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완전히 자동흐름식으로 된 알용닭상자들에서 닭알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그날을 그리면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정녕 강성대국의 그날은 멀지 않았습시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2일 2면〉

에마르다 ㉠ 애타다. ㉡ 성규가 이렇게 혼연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일이 선뜻 믿어지질 않았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런 시각을 애마르게 바랐던가. 그런데 성규는 지금 저의 손을 싸쥐고 뜨거운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해쑷는 바다, 378〉

에물두상 ㉠ ? ㉡ 만강은 주춤거리다가 입구쪽으로 물러갔다. 스스로 말아나선 임무를 수행하려고 물러나가면서도 김주현이 에물두상을 어떻게 휘여잡는지 옆에서 구경하고싶었던 모양이다. 김주현은 어둠에 눈이 익을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압록강, 93〉

약크림 ㉸ *바르는 약. ㉸ 바다바람에 우리 처녀들이 얼굴이 텃다고 가슴 아파 하시며 어제는 사랑의 약크림과 고약을 보내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녀성해안포병들이 나를 기다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초소 다시 찾아 오시여 잠자리도 보살펴 주시고 옷깃도 여며 주시였다고 감나무중대 녀병사가 터뜨린 그런 감격의 목소리들.

〈로동신문 2002년 3월 3일 2면〉

어림수 ㉸ *속임수. ㉸ 《착하기두, 마음을 놓구 우리 집에 다니라구. 내 새애기하군 어림수를 안쓸터이니.》

〈그리운 조국 산천, 40〉

어미모판 ㉸ 싹을 처음 길러내는 모판. ㉸ 포태산마루에 솟아 오른 아침해가 태양열온실에 흘러 들 때면 어미모판에 돌아 난 감자싹들이 유난히도 푸른 빛을 내뿜는다. 어서빨리 싹을 잘라 가식모판에 옮겨달라는듯 어미모판을 짹 채운 감자싹들을 바라보는 김창호동무를 비롯한 이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쁨은 더없이 크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3면〉

어석버석하다 ㉸ 어색하다. ㉸ 《동문 워낙 감자바우니까 그렇지 뭐.》 《체, 감자바우가 어때서?》 실없이 주고 받는 소리가 두사이의 어석버석하던 공기를 풀어주었다. 《나도 좀 도와줄가?》 장호가 소랭이옆으로 다가앉았다.

〈준엄한 전구, 92〉

어은금 ㉸ 북한에서 자체개발한 현악기의 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시절인 1962년 8월 중순부터 40여일간 평양 용성구역 어은동에서 군사야영훈련 중 처음 만들었다는 악기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철선과 오동나무를 이용해 4도 조현악기(調絃樂器)를 만들었는데 만든 장소의 이름을 따 어은금으로 명명했다. 현재 북한에서 개량악기의 효시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 그래서 어은금, 옥류금과 같은 세계적인 민족악기들이 세상에 태어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다. 어은금은 우리 장군님께서 영광스러운 김일성종합대학 시절에 친히 만드신 민족악기이다. 이 악기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주체 51 1962년이다. <평양방송 2001년 10월 20일 19:47>

어프덩 ㉠ 얼른. ㉡ 《사람이 살든사 백년을 살며, 백년을 살아도 나처럼 살든 무시기 사는셈매, 일흔두살을 먹구두 더 살겠다구 저 악귀같은 미국놈을 따라가려 했으니... 흑... 어프덩 가라이, 원쑤놈들이 달려들기전에.》 할머니는 창욕이를 더 불안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지 가볍게 밀었다.

<적후의 별들, 371>

어휘정리사업 ㉠ 북한에서, 옛말과 외래어와 사회주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빼버리고, 고유어에 기초하여 어휘를 정리하는 사업. ㉡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말과 글을 정리할데 대한 이론은 언어 발전을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룩하며 언어 생활개선에 기본고리를 인민대중의 능동적인 활동에서 찾을 데 대한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한 위대한 학설이다. 어휘정리사업은 우리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기본 문제로된다. 어휘정리사업은 민족어의 체계적인 발전, 언어생활의 개선을 담보하는 기본 문제 중심 과업으로된다. 《평양방송 - 20010514 09:00》

엄지녕에 ㉠ ? ㉡ 과연 그 때야 엄지녕에의 무서운 소리가 잠잠해졌다. 《녕에란 여느뎌 순한 놈인 줄로만 알았는데 꽤 용을 쓰누만.》 창수가 새삼스러운듯하는 말에 성룡이 《생김새나 몸통에 비해선 순한놈이지. 그런데 녀에란놈이 제 새끼만은 끔찍이 아낀다네》 하고는 덧붙였다.

<해쑈는 바다, 311>

엇드레질 ㉠ ? ㉡ 그 과정에 그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작업반초급 일꾼들이 안된다고, 좀 엇드레질을 하면 욕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5일 3면>

영글서 ㉠ 어설프게. ㉡ 아니 씨름군답지 않았다. 씨름군이라면 살바를 단단히 끼웠는데 영글서 잡았다가 곧 버리고나서 마치 산짐승이나 다루듯 상대편의 목덜미를 눌러서 나뺌채는것이였다. 중군은 혹시 강

계포수라도 나타난것이 아닌가싶었다.

〈성벽에 비긴 불길, 7〉

여가 있다 ㉸ 여유 있다. ㉡ 리순신이 두무릎을 꿇고 부복하고있는 농군사나이에겐 눈길을 던지며 《쌀한섬을 나라에 바치려는 그 애국지성이 놀랍긴 하나 식솔은 몇이나 되고 농사를 몇마지기나 짓는데 쌀을 것처럼 여가 있게 저축했다가 바치려 하는고?》 하고 묻는다.

〈리순신장군, 501〉

여물구다 ㉸ 끝을 잘 매듭짓다. ㉡ 《그래두...》 예숙은 벌써부터 속이 떨리는지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허허... 이제 자식을 키워보라구. 그러면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거네.》

〈적후의 별들, 160〉

연덩이 ㉸ 납덩이. ㉡ 노예로동에 시달리다 못해 도주를 기도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코에 쇠줄을 꿰여 끌고 다니다가 사품치는 물속이나 콩크리트혼합물에 처박아 죽이고 산 사람의 잔등을 칼로 찌고 그 속에 불에 달군 연덩이를 집어 넣는 등 과거 일제는 별의별 극악한 만행을 다 저질렀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3일 6면〉

연로보장나이 ㉸ 북한에서, 남자 61세 이상 여자 56세 이상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 ㉡ 새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복구건설의 나날 할머니는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 농사를 지었으며 연로보장나이가 지난 후에도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고 로동이 그대로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중앙방송 2001년 11월 7일 15:20〉

연로보장자 ㉸ 북한에서, 연로보장나이가 된 사람. ㉡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어디서나 희열에 넘쳐 제힘껏 재간껏 나라와 인민을 위해 흥겹게 일하고있다. 연로보장자들도 실지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자진하여 공로자협회를 무어가지고 사회와 집단을위한 유익한 일감을 찾아 상조조로동을 계속하고 있다.

〈중앙방송 2002년 4월 10일 23:50〉

연전띠 ㉮ ? ㉮ 직장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 간 공장의 당행정일군들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노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 들고 있다. 열과 증기생산이자 곧 연전띠와 전숨생산성과임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은 공장의 심장부인 보이라 작업반에서 더 많은 열과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한편 준비, 제면, 정방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생산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잘하여 능률을 최대한 내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20일 1면〉

열다리목 ㉮ 다리가 열 개인 동물 목.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희귀한 바다동물인 소매낙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보내신 2마리의 소매낙지는 열다리목 소매낙지과의 한종으로서 낙지류가운데서 제일 크며 다리가 몸통보다 짧고 누런 밤색을 띤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5일 1면〉

염전염군사상 ㉮ 전쟁을 싫어하고 군사복무를 싫어하는 사상.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7-9〉

영예감 ㉮ 영예를 느끼는 감정. ㉮ 물길굴뚝기에서 많은 뭇을 맡은 평안남도안의 각대대들에서 사갱굴진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각 대대 전투원들도 독특한 관계방식으로 될 개천-태성호 물길의 물길굴뚝기를 맡아나선 책임감과 영예감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갱굴진을 담차게 들이대고 있다.

〈중앙방송 2000년 12월 26일 06:00〉

옆틀 ㉮ ? ㉮ 며칠전 주강공장에서 축합, 옆틀, 완충기체 등 10여종에 수십개의 주물품을 짧은 기간에 생산하여야 할 긴급한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로동신문 1994년 9월 4일 3면〉

예비집합 ㉮ 미리 모이는 일. ㉮ 끝내 아귀를 짓지 못한 가운데 주인

집에서 아침상이 올라왔다. ...마을에 해살이 비쳐들무렵 류랑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출발준비를 위해 예비집합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였다.

〈백두산기슭, 86〉

예비총 ㉠ 만일에 대비해 미리 갖춰놓은 총. ㉡ 무기가 좋다면 무엇 때문에 예비총이 필요하겠는가. 석준이는 갱장의 명백치 못한 립장에 거의 불안을 느꼈다.

〈발파소리, 35〉

예술선동대 ㉠ 북한에서, 주로 노래와 춤, 재담 같은 예술소품을 가지고 선동하는 단체. ㉡ 평양시 직맹 전쟁노병예술선동대원들은 준엄한 전하의 나날에 발휘했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해 나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 교양사업에 기여하는 예술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전쟁노병들은 주체84(1995)년 1월부터 예술선동대를 문고 평양방직공장과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검덕광산 그리고 청년영웅도로건설장,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 등 인민경제 중요 부문과 건설장들에 달려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동활동을 벌여왔다. 예술선동대는 930여개 단위에서 1,030여회의 예술선동활동을 진행했다.

〈중앙방송 2001년 10월 28일 06:00〉

오가리박죽 ㉠ *말린 채소로 만든 죽. ㉡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종잡을수 없는 소리다. 오가리박죽같이 달라붙은 귀에 코허리까지 잘록해서 답답스레 보여서인지 속통 역시 트이지 못하고 막힌것 같은 인상이다.

〈성벽에 비긴 불길, 23〉

오동군도 ㉠ 군인들이 차던 일본도의 일종. ㉡ 모든 일은 예견한 그 대로였다. 얼마후 찰막한 오동군도를 찬, 입에다 밥을 떠넣어달라는 말은 못하느냐구 하던 사카이산림주사가 몇몇 간수들을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물푸레나무몽둥이를 끌고다니며 불을 놓고 밭을 일구자고 든 사람은 나서라는것이였다.

〈붉은 지평선, 14〉

오자바람 ㉮ ? ㉮ 구광훈은 작업반장이 되면서부터 소문없이 충실한 윤덕용의 일생을 빛나게 총화지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말없이 품고 있었다. 구광훈이 오자바람으로 난공사로 제기된 배풍장철굴뚝조립을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말그대로 기적적인 시공안을 구상해낸데도 그런 사정이 작용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배풍장철굴뚝으로 말하면 강철전로장에서 나오는 연진과 가스를 완전히 환연기로 정제하여 날려보내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참대마디처럼 수십개의 토막을 연결하여 높이 백여미터이상을 이루게 된다.

〈시대의 기수, 167〉

옥감 ㉮ *좋지 않게 맺힌 감정. ㉮ 지난날 〈백마건〉을 책잡아 자기와 둘째아들 춘권을 반주검이 되도록 치죄케 하고 목장에서 내쫓았을뿐아니라 딸 춘희를 노비로 끌어간 그 철천지 원수와 이처럼 공교롭게 맞다들려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고 저러났지만 어찌겠는가. 나라령을 받들고 가야 하는 길이니... 《나라의 중한 명령을 받았은즉 지난날의 사사로운 옥감은 버리구 각별히 근신해서 큰일을 그르치는 망령된 소행이 없도록 하라. 한양배길을 잘 마치면 후히 생각해줄것이니 그리 알라.》

〈성벽에 비긴 불길, 87〉

웃뚜럼히 ㉮ ? ㉮ 차역만이 항아리안에 손을 밀어넣어보니 야속하게도 승어는 한꼬리도 없었다. 그는 강가에 몸을 돌리고 웃뚜럼히 서있는 춘희를 띠여보며 말했다. 《승어가 한꼬리도 없으니 어쩐다?》

〈성벽에 비긴 불길, 137〉

응급다 ㉮ 순순하다. ㉮ 《거기 앉으라.》 놈은 책상앞에 놓여있는 절상을 가리키며 벌써부터 응급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네가 바로 정태진인가?》

〈새로운 항로, 49〉

옹군애민사상 ㉮ 군인을 옹호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 ㉮ 우리는 뜻깊은 올해를 옹군애민사상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군민대행진

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1면〉

와내다 ㉸ 오다. ㉸ 지도에 표시된 미혼진에 눈길을 멈추신채 거기 와야 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머리속으로 더듬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혼자 말씀으로 외우시였다. 화룡산골의 한 외진 산전막에서 상처를 치료받고있다는 그가 이번에 꼭 와내겠는지 은근히 걱정되시였던 것이다. 강세호는 장군님께서 오가자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실 때부터 친히 키우신 전사의 한 사람이였다.

〈백두산 기슭, 5〉

왕별 ㉸ 북한에서, 장령들의 견장 같은 데 다는 '대성'을 달리 이르는 말. ㉸ 의거자들중에 남흥동무와같은 조선인민군 고위군관 김영주동무와 같은 이름난 과학자 예술가도 많고 국가기관에 간부들도 많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유종, 박영주 선배들처럼 공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노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국군대대장이었던 강태무, 송무원선배들처럼 어깨에 왕별을 단 조선인민군 장령들도 있다. 또 게다가 강태무 선배 또 나라 정사를 논하는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고 믿음입니까.

〈평양방송 2001년 4월 16일 09:00〉

외발기 ㉸ *외발로 타는 썰매 ㉸ 이 놀이터는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련해 준것이라는것, 놀이터가 아닌 강가에서 놀면 안된다는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그 때부터 아이들은 강가로가 아니라 유치원마당에서 썰매와 외발기를 타며 재미나게 노는데 점차 습관되기 시작하였다. 인민반에서는 여기에 만 그치지 않고 동생들을 잘 일깨워 데리고 노는 학생들을 적극 내세워 그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였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24일 4면〉

요골요골하다 ㉸ ? ㉸ 리호철은 회쭙은 얼굴에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스즈끼는 어쩐지 자식이 놀아나는것이 목이 요골요골해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굶었다.

〈두만강 지구, 98〉

요문 ㉸ 중요하고 요긴한 소식.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7-9〉

용지벌거리다 ㉸ ? ㉸ 설매가 쥐여박을듯이 엄포를 놓자 푸접좋은 룡이는 냉큼 피해서 고모의 품에 가 안겼다. 그리고는 용지벌거렸다.

《엄만 각쟁이야. 고모가 온다 온다 하면서 소내포랑, 두부랑 나두 못 먹게 물속에 넣었다가 쉬었다면서 버리군했다.》

〈성벽에 비낀 불길, 115〉

용활무쌍하다 ㉸ 활달하고 거칠 것 없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담겨진 이 로작이 발표되자 세계의 관록있는 출판계는 앞을 다 투어 김정일총비서 미국 정부를 강렬하게 비판, 북조선위협론 속심가 리위기 위한 궤변 등으로 대답 내용을 일제히 널리 보도했다. 우리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자들에게는 된매를 안기시며 자주적인 대외활동을 용활무쌍하게 폭넓게 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기상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따라 어지러운 광풍을 헤가르며 자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을 보았다. 세계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에 탄복하고 있으며 그이의 자주정치를 따르고 있다.

〈중앙방송 2001년 12월 20일 20:40〉

우그그 ㉸ 말이 우는 모양. ㉸ 주막점 주인이 그 소리를 맞받아나갔다. 센다이산 밤빛의 늘씬한 군마는 자갈을 물린 입가장자리에 우그그 거품을 물고 걸음을 늦추었다가 주막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잔등에 탄 주사에게 인사를 드리는 바로 그앞에 와서 멈추어 섰다. 이마가 땅에 닿게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 허리를 펴는 찰나에 산림주사 사까이마사스께는 벌써 말잔등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붉은 지평선, 126〉

우뚜림이 ㉸ ? ㉸ 춘권은 그와 헤어져 ‘샤만’호가 도사리고있는 한사정앞 강가로 나갔다. 그는 강가에 이르자 풀밭에 걸음을 멈추고 우뚜

럼이 섰다. 괴물같이 거만 몸뚱이를 도사리고 ‘샤만’호는 리암도 웃기
습에 치우친곳에 그적 머물러있었다.

〈성벽에 비긴 불길, 365〉

우틀부틀하다 ㉸ 울통불통하다. ㉡ 산막은 말 그대로 초막이다. 벽은
토피를 빗어서 쌓고 대충 사벽질을 했는데 군데군데 밖으로 트인곳도
있었고 더우기 천정은 싸리를 엮어서 서까래우에 펴고 흙진세를 쳤지
만 집 안쪽에서는 손을 전혀 대지 않아 찻찻한 흙덩이가 우틀부틀하게
빠여져 달려있고 산자위는 싸리그루와 회초리들이 얼기설기 처져있었
다.

〈성벽에 비긴 불길, 128〉

울뻘 ㉸ 목에 튀어나온 뻘. ㉡ 박홍범은 대답을 못하고 군침을 꿀꺽
삼킨다. 강마르고 긴 그의 목에서 울뻘이 오르내린다. 전등모는 눈물을
참느라 그러는 박홍범의 심중을 헤아리고 나직이 화제를 돌리었다.

〈붉은 지평선, 77〉

울장 ㉸ ? ㉡ 그는 지척지척 울바자앞으로 다가가 꺾질을 벗기지 않
은 터실터실한 울장을 휘여잡았다. 어디에 기대서지 않고는 몸의 중심
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수년세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직업적혁명가로
간난신고를 헤치며 싸워온 무수한 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리운 조국 산천, 373〉

웅건장중하다 ㉸ 웅대하고 건장하며 장엄하고 무게있다.

〈문화어학습 1995년 1호, 7-9〉

웅지다 ㉸ 무리지어 있다. ㉡ 그러면서도 용택은 벌써 오류월이 되었
는데 이러다가 그냥 여름철 성어기를 훌 넘기지 않겠느냐 하는 초조감
에 사로잡혀서 큰 고기떼 오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었다. 그러
던 어느날 좀 남쪽에 있는 마섬앞에 나갔다가 남쪽으로 되돌아나오는
웅진 멸치떼를 만나 한물에 80여톤을 둘러쌌다. 두척의 운반선에 실어
보내는 한편 성규한테 대기하고 있는 운반선들을 곧 마섬앞으로 보내
라는 지시를 전파로 날려보냈다.

〈해쫄는 바다, 177〉

원간방 ㉮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 ㉮ 어쩐지 어리둥절한듯싶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기는 벌써 아버지의 마음에 의문과 그늘을 던져주고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이내 돌아서더니 원간방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이 온듯 대돌우에는 아버지의 신발외에도 구두와 고무신이 두켤레나 더 놓여있었다.

〈새로운 향로, 140〉

원군미풍 ㉮ 군인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조. ㉮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여 온 개풍군도시경영사업소 로동자 배인호는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고향으로가 아니라 특류영예군인처녀가 있는 개풍군에 찾아 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그와 결혼하였으며 황해남도육아원 보육원 황명희, 배천군 금성리 안정순은 특류영예군인청년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 남편들을 따듯이 보살펴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받아 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빛내이기 위한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에서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8일 1면〉

위력경기 ㉮ 북한에서,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들을 겨루는 경기. ㉮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브에서는 정일봉, 향도봉 등 12개 태권도 구락부 선수들이 참가한 태권도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가이아나의 조지타운에서는 수많은 관람자들이 모인 가운데 틀경기, 맞서기경기, 위력경기 등 여러 종목의 태권도 종합경기가 조직되었으며 찰스타운 고등중학교와 골든그로브 초등학교 교원학생들은 운동회를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가이아나에서는 이름난 경찰군악대가 출연하는 텔레비전경축 음악연주회를 조직하였다.

〈중앙방송 2000년 10월 30일 07:00〉

위탁상점 ㉮ 대신 맡아서 하는 가게. ㉮ 아버지의 위탁상점과 그옆의

남한의 집은 형체도 없이 재만 남아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리풍우가 시꺼멓게 재티가 오른 코트자락을 펄럭거리면서 화재구역을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운 조국 산천, 269〉

유저 ㉸ 방아쇠. ㉡ 그러는 사이 말파리들은 목책앞으로 바투 다가오고 있었다. 《오-이 세우라- 세워. 다가오면 쏜다-》 유저를 당기며 땅딸보경찰대원이 새된 소리를 질렀다. 《워-워-》 하는 마부의 목소리와 함께 마차는 덜컹거리며 멈추어섰다.

〈준엄한 전구, 59〉

유훈교시 ㉸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남긴 교시를 가리키는 말. ㉡ 올해 상반기에만보아도 우리 소금연합회사에는 소금생산을 119.1% 넘쳐 수행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그 생산량은 128.8% 늘어났다. 일찍이 동해안에 소금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수령님의 유훈교시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인민은 지난 몇년간 동해안 지구에 많은 소금밭을 건설했고 또 지금도 건설하고있지 않은가.

〈중앙방송 2001년 7월 5일 07:00〉

으흠으흠 ㉸ 기침을 하는 모양. ㉡ 《그렇습니다. 미곡상이야말로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미곡상은 으흠으흠 기침을 낚으며 바지피춤을 추슬러올렸다. 허인해는 약간 고개를 기웃하고 술렁대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운 조국 산천, 406〉

은물주리 ㉸ ? ㉡ 월드는 말없이 돌아서서 은물주리에 (그안에 백금고리가 있었다.) 담배를 끼워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지하도는 매우 복잡하다는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적후의 별들, 276〉

의미심중하다 ㉸ 의미심장하다. ㉡ 청년은 놀라운듯 럽성재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 순박한 눈길에 의혹과 기쁨이 뒤엉켜 빛나고있다. 럽성재는 그의 눈을 똑똑히 들여다보며 의미심중한 미소를 입가에 띠웠다. 《정말 그렇소다.》

〈붉은 지평선, 174〉

이룩이룩 ㉸ *일어서는 모양. ㉡ 정학은 얼굴을 싸권채 어깨를 들먹거렸다. 들먹이는 정학의 어깨너머 끝없이 펼쳐진 동편하늘이 새벽을 걸어안고 이룩이룩 일어서고 있었다.

〈적후의 별들, 35〉

이물머리 ㉸ 배의 맨 앞부분. ㉡ 눕쇠는 쥐고 있던 배줄을 이물머리에 사려놓았다. 총각애는 샷대로 굴강 기둥을 떠밀었다.

〈통일문학, 253〉

이물벌림 ㉸ 배의 맨 앞부분을 벌리는 것. ㉡ 여러 갑판부분들을 뜯어내고 그 밑의 일부 전동장치들이 해체되어 좌현에서 양망작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시 조립되는 한편 이물벌림, 판걸개의 각종 안내장치와 축들이 더러 좌현으로 넘어왔다. 온 배간이 한사람같이 설비개조에 달라붙었다.

〈해숫는 바다, 331〉

이물어지다 ㉸ ‘이물다’는 ‘(다치거나 헐거나 하여) 살갓밑으로 퍼지다’의 뜻. ㉡ 선아는 문가에 나와서서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숙인 이마전아래에서 살땃하게 꺼져들어간 눈확이 어쩐지 퍼렇게 이물어져보였다. 《수고를 했습니다.》

〈대지는 푸르다, 130〉

이상되다 ㉸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게 되다. ㉡ 《8월 29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는 나보다 썩 이상되는분인 선생이 더 잘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대통령감은 행군대렬에 끼여있다는것조차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순간 멈춰서버리고 말았다.

〈압록강, 24〉

이악쟁이 ㉸ 곧세고 끈덕진 사람. ㉡ 《모내기기계가 벌써 움직여요.》 《고것들이 이악쟁이들이거던. 해내구야말걸...》

〈붉은 지평선, 124〉

익측 ㉸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좌우의 측면. ㉡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 7연대 칭호 쟁취 운동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수령

결사 용위의 결정체,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이 확고히 선 무적의 강군, 항일 유격대식 기풍이 차넘치는 불패의 혁명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천리방선을 지켜선 때 군인들의 익측은 피로서 맺어진 혁명전우들이며 중심은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인민들이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관병 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감으로서 모든 전투대오를 익측이 튼튼하고 중심이 무한대한 강철의 대오로 다져 나가야 한다.

〈중앙평양 2001년 1월 1일 09:00〉

인간수업 ㉮ *인간에 대한 공부. ㉮ 《허허허... 시골새님이 갖은 풍파를 만나 짙은 달아다니는군. 그 소위 랑만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수업이라도 하자는건 아닌가?》 럽성재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며 대답이 없다.

〈붉은 지평선, 58〉

인민보안성 ㉮ 북한에서, 치안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정무원 산하기관. 남한의 경찰기구에 준한다. 사회안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나 2000년 4월에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었다. ㉮ 교육법과 대외경제중재법 민영항공법이 승인됨으로서 우리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과 대외경제중재정책 항공운수 정책을 옹호 고수하고 그것을 강성대국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빛내어 나갈수있는 법적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의 이름을 없애고 새로 인민보안성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보안 기관이 혁명의 보위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와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였다.

〈중앙평양 2000년 4월 6일 18:00〉

인민보안원 ㉮ 북한에서, 인민보안성에서 일하는 사람. 남한의 경찰에 해당한다. ㉮ 인민의 보안원된 자각을 안고 그는 기차를 맞아 달려나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어린이 모두를 구원하는 높은 희생정신을

발휘했다.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던 주민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키우신 인민보안원이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강도 인민보안국처장 리영철은 지난 3월 강얼음판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즉시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었다.

〈중앙방송 2001년 8월 4일 06:00〉

인발구 ㉠ 사람의 힘으로 끄는 수레. ㉡ 어깨에 실리는 통나무무게는 점점 더해서 아래다리가 바르르 떨린다. 한자국을 옮기기가 십리걸음 맞잡이로 힘이 든다. 원술이는 지금 인발구를 끌고 올리막길을 뚫아오르는것이다. 참나무로 레루를 대신한 인발구길이 아득히 령우로 뻗어 있다.

〈붉은 지평선, 30〉

인찍다 ㉠ 도장찍다. ㉡ 《때문에 우리는 길림사건을 반혁명이 혁명을 상시적으로 탄압하는 그러한 사건과 같이 리해할수는 절대로 없다. 이것은 놈들이 만주의 심장부에 칼을 박고 아세아의 전토우에 피묻은 발을 인찍으려는 첫 신호의 악독한 총성이다.》 김성주동지께서는 눈을 지나시여 버들방천을 멀리 걸어나가시였다.

〈은하수, 148〉

임진조국전쟁 ㉠ 임진왜란. ㉡ 조선인민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싸움들에서 언제나 용맹하였다. 수나라 태종이 직접 이끈 수십만대군을 숨씨있는 청야수성전술과 역습으로 물리친 645년 전쟁, 세차례나 쳐들어오는 거란군을 그때마다 강경하면서도 능란한 군사외교전과 재치있는 매복전으로 물리친 993년, 1010년, 1018년 전쟁, 아세아대륙을 거의 다 차지하고 동구라파에까지 진출한 몽골군의 6차례나 되는 침략을 영웅적인 항쟁으로 물리친 1231~1254년 전쟁, 15만 8,000여명의 륜군과 수만명의 수군으로 불의에 쳐들어온 왜적을 바다와 물에서 물리친 1592년부터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 등은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싸운 이 나라 인민의 슬기로운 반침략투쟁사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조선개관, 44〉

있어보다 ㉠ ? ㉡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이 아침은 몹시 행복

하였다. 그들의 가정에서 화목이 깨질 순간은 영원히 있어볼것 같지 않았다. 호성골로….

〈먼 길, 320〉

자가릉 ㉠ 마차 소리. ㉡ 어서 갑자기 어디에 몸을 숨길데도 없었다. 언덕에 가리워 들리지 않던 마차 소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자가릉 튕겨내는 소리를 지르며 덮칠듯이 따라온다. 《재간이 없소.》

〈두만강 지구, 449〉

자갈넝다 ㉠ 벼씨를 무논에 직접 뿌리는 일. ㉡ 《여우리》나 《자갈넝다》와 같은 말은 지금 우리의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쓰이고있는 말들이다. 《여우리》란 마른논에 벼씨를 뿌려서 밭곡식처럼 기르다가 물을 대여주는 모기르기방법을 말하는데 지금 흔히 쓰는 《건직파》란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벼모를 내지 않고 무논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것은 《자갈넝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수직파》하는것을 말하는것이라고 본다. 벼모를 내는 대신 벼알을 모내듯이 놓아나간다는데서 《수직파》를 《알모》라고 하는데도 있다. 《여우리》, 《알모》, 《자갈넝다》와 같은 말은 전날부터 써왔거나 농장원들속에서 새로 쓰이고 있는 우리 말들인만큼 찾아낸 이 말들을 적극 살려 써나간다면 《건직파》, 《수직파》와 같은 한자말을 쓸 필요도 없게 될것이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자갈쇠 ㉠ 말에 물린 자갈에 연결된 고리. ㉡ 말은 큰 원을 그리며 돌아치면서 두 사람에게 누런 흙먼지를 들썩웠다. 그 먼지구름 속에서 최진동이 뛰어나와 말의 자갈쇠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내리시오!》 그의 팔뚝힘에 말은 투레질을 하면서 뒤걸음질쳤다.

〈근거지의 봄, 73〉

자갈터 ㉠ 자갈밭. ㉡ 동녘 산마루에 달이 떠올랐다. 너그러운 그 달이 너인의 가슴허비는 괴로움을 감싸주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자갈터로 흘러들었다. 두리는 잠잠해졌다. 접동새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부성례는 고마운 달빛에 진짜 위안을 느꼈던지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상자안에서 잠들어버렸다.

〈그들의 운명, 167〉

자고자대병 ㉮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는 병. ㉮ 그러나 림영택이 보기에 그의 사업방법과 작풍에는 심중한 결함이 있었다. 차병진은 야금공업부에서 오래동안 일한것만큼 이 부문에 대한 물게도 밝았고 경험도 많았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는데로부터 언제부터인가 자고자대병에 걸려 사업하는데서도 주관주의적편향이 심하였다.

〈뜨거운 심장, 150〉

잠웃음 ㉮ 자면서 짓는 웃음. ㉮ 갓 피기 시작한 꽃봉오리처럼 방석이 열린 입가에 방시레 잠웃음이 어린다. 무슨 재미나는 꿈이라도 꾸는것인가 꿈속에서 그림던 어머니의 품에라도 담쑥 안긴것인가? 딸의 귀여운 잠웃음이 눈앞에 스치자 철민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다 주지 못한 측은한 생각에 가슴이 알싸지근했다.

〈뜨거운 심장, 64〉

잡태기 ㉮ *잡스러운 사람들. ㉮ 《많지 않네. 저애하고 일호구것은 한배친데 그것들과 거래가 있고 그 아래 잡태기 십여놈 있기는 하나 그것들과는 거래가 없네...》

〈통일문학, 485〉

잣검불 ㉮ 잣나무 잎 검불. ㉮ 그러나 주위에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도, 우중충한 나무숲도, 희끗희끗한 눈무지도 보이지 않았고 불을 찌르는 잣검불도, 뼈속까지 스며드는 랭기도 없었다. 눈 닿는데마다 귀틀벽들이 둘러막혀 있고 잠자리밑은 따끈따끈한 온기가 들었다.

〈백두산기슭, 77〉

장식불바다 ㉮ 장식불의 바다. 북한에서 '바다'는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물건이나 어떤 현상이 넘쳐나도록 매우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 시에서는 김일성광장, 평양체육관, 당창건기념관, 평양역을 비롯한 시안의 중요 장소들에서 방송선전차와 여러가지 음향설비들을 이용해서 정치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고있

다. 뜻깊은 2월에 밤하늘을 꽃바다로 물드릴 대형불꽃장식준비가 착실히 준비돼서 장식불바다를 이루고 있다. 네거리 꽃대들에 장식할 김정일화가 망울을 터친지 오래다.

〈중앙방송 2002년 2월 6일 15:30〉

장식옷빈침 ㉮ 브로치. ㉮ 목도리인 경우에는 볼품없이 둘둘 감거나 치렁치렁 내리드리우지 말고 단정하게 둘러 곱게 매거나 장식옷빈침으로 고정시킬수 있다. 우리 녀성들은 뺄스나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지하철동차를 비롯한 러객수단을 리용하면서도 머리수건을 바로 사용하여 고상한 도덕품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9일 4면〉

재간기둥 ㉮ 잣간에 세워진 기둥. ㉮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재간기둥에 기대놓은 지게 등태를 밟고 서서 편별장아근을 눈이 빠지게 살펴보고있던 안해는 회나무지팡이를 몽둥이처럼 끌면서 지척지척 집으로 돌아오는 령감이 뒤 울바자기숨을 돌아 험문을 스쳐가는것을 띄워보고 집을 지나치는것 같아 대문통으로 내달아 나왔던것이다.

〈그리운 조국 산천, 248〉

저가치 ㉮ *젓가락. ㉮ 방금까지 활기를 띠였던 텅텅한 사람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사판을 앞에 놓고 모래를 반듯이 고루어놓았다. 저가치같은 나무꼬챙이로 그 모래우에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붉은 지평선, 354〉

저려나다 ㉮ *매우 저리다. ㉮ 하기는 눈물로도 말로도 회억하기에는 너무도 사무치는 추억이였다. 흥치도는 갑자기 눈시울이 저려나는것을 느끼며 주먹을 눈굽에 가져갔다. 강기슭에 이르렀다. 철썹철썹 멀기를 뒤채이며 밀려나온 물결이 기슭을 친다.

〈준엄한 전구, 132〉

저좁하다 ㉮ ‘저좁’은 ‘저만큼 떨어진 곳에’의 뜻. ㉮ 《하기는 금천동이나 청지동에서 기업을 벌리자면 저좁한 군대가 있어주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교제비를 따지면 유격대를 겪는것이나 비슷이 맞먹을거요.》

〈두만강 지구, 428〉

적세계 ㉮ 붉은 색의 계통이라는 뜻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계통을 이르던 말.

〈문화어학습 1993년 2호, 11-14〉

적작하다 ㉮ *잘 재배하다. ㉮ 《맞춤한 땅에 알맞는 곡식종자를 골라서 알맞는 때에 심어야 곡식이 제대로 싹이 돋고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적작해야 한다고 농사꾼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무들이 오래전부터 열망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진군작전도 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압록강, 314〉

전승절 ㉮ 북한에서, 휴전협정 조인일. ㉮ 경연은 국방성과 기타 중앙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진행되게 되며 여기에는 텔레비존 및 라디오방송, 출판 보도 기관들의 창작 집단들도 참가하게 된다. 2002년 5월9일 전승절에 즈음해서 경연 총화와 시상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중앙방송 2001년 11월 6일 10:00〉

전연선 ㉮ 최전방 경계선. ㉮ 미제는 저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조작한 후 군사기지화 책동에 더욱 미친듯이 날뛰었다. 임진강 일대로부터 동두천, 춘천, 동해안에 이르는 주요 지역에 반영구적 군사시설을 꾸리고 3.8도선 전연선에 걸쳐 전호 및 참호들을 팠다. 미제는 침략적인 남조선·미국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침략군 사령부가 도사리고 있는 서울 용산의 여러 지대를 저들의 소유지로 만들고 남조선을 영원한 군사기지로 틀어쥐기 위한 발판을 닦았다.

〈평양방송 2001년 11월 26일 11:50〉

전쟁죄행 ㉮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행한 죄. ㉮ 그들은 이 운동은 일본정부가 최근에 역사적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심의 통과한데 대한 항의로 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고소비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보타공원에서 담배를 비롯한 일본상품을 불태웠으며 일본 역사교과서를 규탄하고 일본상품사용을 금지하는 서명활동을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한국정부가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소

환하며 쌍무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지난시기 전쟁죄행을 까밝힘과 동시에 일본 문화를 거절하고 일본 상품사용을 금지하는 한국 국민들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북경방송 2001년 4월 9일 20:00〉

정치난쟁이 ㉠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국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늘 국제사회계는 일본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일 경계심을 더욱 높이고있다. 이것도 생각지않고 상임리사국이되려고 너털대는것을 보면 일본은 확실히 정치난쟁이가 옳은것같다. 일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자리를 넘겨다보기전에 죄많은 과거부터 깨끗이 청산하는것으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얻어야 한다.

〈중앙방송 2001년 11월 13일 17:55〉

제빠두하다 ㉢ ? ㉡ 보매 둘 다 힘꼴이나 씹직한게 이런판에 부러먹기는 제격일것 같다. 그러나 일부러 거드름을 부리며 제빠두해서 물었다. 《예, 일공군입지요.》

〈두만강 지구, 59〉

젠년 ㉣ ? ㉡ 《젠년보다 돈벌이를 못한데다 소까지 이 모양이 됐수다.》 듣지 못하는 그는 역시 대답이 동문서답이다.

〈붉은 지평선, 47〉

조건을 쥐여주다 ㉤ 조건을 제공하다. ㉡ 세상에 자란높은 정일봉과 그 일대는 백두산지구치고 다양하고 독특한 동식물 자원으로해서 또한 천하절승이다. 심묘한 기형과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소백수의 흐름으로 정일봉 일대는 비교적 동식물의 성장에 좋은 생태학적 조건을 쥐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인민생활에도 이로우며 보기에도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이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

〈평양방송 2001년 3월 22일 09:00〉

조겨보다 ㉥ 마구 두들겨 패보다. ㉡ 《흠, 그놈인가? 지금 조금이라도 수상한 눈치만 보이면 엄단하라는 토벌본부의 지시니까 ‘이시가와

구미'의 요청을 받고 잡아넣기는 했다는데 본시 그런놈이었군. 그렇다면 단단히 조겨봐야지.》

〈두만강 지구, 99〉

조선국민회 ㉮ 1915년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이 몰래 만든 항일 비밀 결사단체. ㉮ 그날은 동무들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였다. 조직을 못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이 떠오르고 조선국민회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조선국민회를 무으려고 여러해동안 수만리길을 걸으면서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세기와 더불어1, 165〉

조선글 ㉮ 한글. ㉮ 컴퓨터리용자들은 간단한 입력조작으로 해당한 올림말을 찾아 볼 수있으며 성구나 속담까지 즉시 탐색할 수있다. 이밖에도 삼흥사전은 다른 사전과 구별되는 특징은 자체의 폰트를 차고있으므로 단군이나 내나라와 같은 조선글 입력프로그램들의 도움이 없이도 조선글 입력을 실행할수있다. 또한 삼흥사전이 이전의 사전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탐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북한위성 2000년 10월 13일 22:20〉

조선반도 ㉮ 한반도. ㉮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은 올해에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5일 5면〉

조선혁명 ㉮ *독립. ㉮ 나는 살아야 한다. 기어코 살아서 한별동무를 지키는것이 곧 우리 조국을 지키는것임을 단 한마디라도 더 웨치고 죽어야 한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별동무를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온 우리는 저 반만년민족사의 총화인 이 엄숙한 진리를 말하며 실천해야 한다!

〈대지는 푸르다, 545〉

조심을 두다 ㉞ 조심하다. ¶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저 지주 사가놈에게 2.8제를 먹이고 그것을 다른 지주놈들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바탕 해보자는건데 오가자사람들이 그런 투쟁을 할 용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고 최만득은 조심을 두며 그이의 눈치를 살폈다. 지금 농민동맹에서는 지주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혁명군대원들도 나가고 청년동맹의 간부들도 나가서 선전사업을 들이대고있으니 최만득이도 들은 소리가 없지 않았다.

〈대지는 푸르다, 510〉

종금직장 ㉞ 가금류를 키워 고기와 알을 얻는 직장. ¶ 김정일동지께서는 종금직장, 비육직장, 알낳이직장, 가공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도내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닭공장을 단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랭동고 마다에 차고 넘친 먹음직스러운 닭고기와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달걀폭포의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평북도 인민들에게도 고기와 알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공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도내 공업부문의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도의 책임일군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중앙방송 2001년 12월 17일 06:00〉

종자잔알감자 ㉞ 종자로 쓰이는 알이 잔 감자. ¶ 김덕현동무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몇해전부터 자체로 건설한 무비루스감자조직배양온실에서 비루스에 오염되지 않은 종자잔알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5일 3면〉

좌경망동 ㉞ ? ¶ 무엇때문에 죄없는 농민들이 이 까닭없는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것은 종파분자들의 좌경망동에 대한 일제와 반동

군벌의 직접적탄압때문만이 아니라 폭동의 파괴적양상을 리용하여 조중인민사이에 불화의 쐈기를 박으려는 일체의 간교한 책동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수 없다고 판단하시였다.

〈대지는 푸르다, 222〉

죄겨대다 ㄷᄇᆞ 마구 두들겨 패다. ¶ 《선물은 맑소. 그러나 전쟁이라고 할 때 이건 성차지 않소. 우리가 포를 쏘듯이 좀 쿵당쿵당 죄겨댔으면 좋겠소.》 열변을 토하는듯한 씩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승리자들, 9〉

주체문학론 ㄷᄇᆞ 북한의 문학 이론 및 저서명. 1990년대, 특히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북한 문예 이론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김정일의 저서 제목이다. ¶ 20세기 90년의 첫 기슭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를 받아 안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1(1992)년 1월 2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하여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백과전서적으로 밝힌 주체문학의 대강이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2면〉

주체철 ㄷᄇᆞ 북한에서 생산되는 강철의 한 종류. ¶ 철의 기지 성장에서 철강재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주체철에 의거한 강철생산이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 섰다. 강철생산에서 주체철의 리용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 지고 그 질도 훨씬 개선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2일 3면〉

죽탕망탕 ㄷᄇᆞ 흥청망청. ¶ 어느 기생년이 부르는지 《여기는 조국을 떠나서 몇천리...》 하는 애조를 띤 노래소리가 간드러지게 들려왔다. ‘영빈관’은 제강소의 과장, 계장류의 내로라고 하는 인간들이 밤이면 의례히 모여들어 죽탕망탕 먹어주고 계집을 끼고 춤을 추며 돌아가는

놈들의 유흥장이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일본놈들이라 하더라도 전혀 얼굴을 들여밀지 못했고 ‘직원’급도 담이 실한놈들만이 과장, 계장놈들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며 끼여드는곳이었다.

〈새로운 향로, 23〉

줄기발 ㉠ 한 줄로 잇대어 달아 놓은 깃발. ㉡ 설맞이공연장소인 중앙로동자회관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주체91》, 《2002》, 《강성대국》, 《라남의 봉화》라는 글발들, 축등, 줄기발, 줄전구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4면〉

줄전구 ㉠ 한 줄로 잇대어 달아 놓은 전구. ㉡ 설맞이공연장소인 중앙로동자회관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주체91》, 《2002》, 《강성대국》, 《라남의 봉화》라는 글발들, 축등, 줄기발, 줄전구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4면〉

쭈절다 ㉠ 머뭇거리다. ㉡ 그러나 가로등은 환상속에서와 같이 그 눈발속에서 더욱 밝아지는것만 같았다. 명주가 한참 쭈절던 뒤에 고개를 한결 꺾으며 생각깊은 어조로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저는 사범학교를 다니기에 졸업한 다음에 할 일은 다 정해져있어요.》

〈새로운 향로, 196〉

쭈죽해지다 ㉠ ‘쭈죽하다’는 ‘어떤 일이 있는 뒤 일정한 시간이 흘러 조용하다’의 뜻. ㉡ 주먹만하게 뭉친 유글유글한 수치감이 명치끝까지 치밀어올랐으나 눈무지를 파헤치며 콩튀듯하는 기관총알속에서 고개를 쳐들만큼 그렇게 강력한것도 못되었다. 한동안 머리를 처박고있으니 총소리가 쭈죽해졌다. 정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 마스크를 벗어던져버린 불편이 얼어들어 못견딜 지경이었다.

〈고난의 행군, 261〉

증빙품 ㉠ 증거가 되거나 증거로 삼을만한 물품.

〈조선어문 1999년 2호, 30〉

지렁지렁 ㉠ 찌렁찌렁. ㉡ 《아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네놈들

에게 로동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 꼭 보여줄테다!》 그의 웨침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는듯 지하도안이 지렁지렁 울렸다. 메아리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어데선가 《웁소! 웁소!》 하고 지지를 보냈다.

〈적후의 별들, 31〉

지식판 ㉠ 지식의 수준을 알리는 게시판. ㉡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지는데 맞게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여 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학년별 지식판을 리용한것이 실효가 컸다. 학교의 여러 곳에 학년별 지식판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기 위한 물음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그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답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부쩍 돋구어 주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21일 1면〉

지심 ㉠ 땅의 중심. ㉡ 대피장소에 나와 굵은 절두목을 깔고앉아 그닥 즐기지도 않는 담배를 피우며 정운진은 초조한 심정으로 어서 발파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였다. 그가 지심을 들었다놓는 요란한 폭음이 울리기를 이렇게 안타까이 기다려보기는 처음이였다. 이번의 발파소리는 막장에서 오래동안 관습되어온 낡은 작업질서를 마스고 비약하는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작업방법이 태어나는 새기록창조의 고고성으로 될것이다.

〈시대의 기수, 89〉

직외해설강사 ㉠ 북한에서, 기본 직무 외에 사회적 분공으로 당과 일터에서 임명을 받고 활동하는 강사. 김일성 교시와 북한의 정책에 대한 해설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 모임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농근맹 중앙위원회 승상섭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농근맹 해설강사 김영숙,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농근맹 직외해설강사 홍애란, 안악군 남정리 농근맹 직외해설강사 권영옥이 결의토론을 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평양에서 전국리농근맹 직외해설강사들의 강습을 진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여 이번 강습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을

보다 힘있게 벌이며 농근맹 해설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말했다.

〈중앙방송 2000년 12월 18일 06:00〉

직일기자 ㉠ *숙직이나 일직을 하는 기자. ㉡ 《보은동무를 흔들기는 어려워요.》 눈에, 입가에 야릇한 뜻이 담긴 미소가 사라질줄 모르는 직일기자였다. 틀림없이 이 여성기자는 중열이가 보은을 찾아온 곡절을 제나름으로 해석하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먼 길, 76〉

진결 ㉠ ? ㉡ 아닌게아니라 만석이네 집 앞마당에서는 통차기가 한창이었다. 범이 된 만석이는 진결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이골목 저골목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벌써 포로가 된 아이들이 대여섯명 되는데 그들은 금을 그은 동그라미안에 갇혀있었다.

〈찔레꽃, 15〉

째들째들 ㉠ *꼬질꼬질. ㉡ 그 집 헛간안에 며칠째 세수를 하지 않아서 얼굴에 때가 째들째들 낀 사병 두놈이 숨어 있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니나 다를가 해천이가 잃어 버린 그 대대의 사병들이었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8일 4면〉

째임하다 ㉠ *검토하다. ㉡ 태진은 일람표를 다 만들어놓고도 혹 자기가 사람들을 잘못보지는 않았을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는가, 미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째임해볼 작정으로 남들이 다 퇴근한 저녁시간 강철직장에서 오래 일해온 연공 장준혁을 자기 방에 불러왔다.

〈새로운 향로, 17〉

쩍지 ㉠ ? ㉡ 사무실에서나 창고에서의 그와는 전혀 딴사람으로 느껴진다. 다리도 팔도 허리도 놀랍도록 가볍고 재빨랐으며 눈도 코도 입도 얼굴의 모든 릿곽이 명백해졌고 이마와 눈언저리의 깊은 주름살조차 든든한 로목밑등의 굵은 찍지처럼 그 자신을 더 완강하게 보이게 하였다. 《이 포전의 래력을 아나?》

〈지평선, 18〉

쩍하면 ㉮ 걸핏하면 ㉮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의 테러행위는 덮어두고 있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테러문제를 꺼들면서 못되게 놀고 있다. 미국이 켉하면 인권이요 테러요 하는 문제들을 들고 나오는 목적은 만데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이것을 구실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해서 세계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중앙방송 - 20020123 13:00》

쪼박나다 ㉮ 쪼개지다. ㉮ 세찬 불길로 하여 10m 밖에 있는 야외위생실에까지 불이 달리고 퇴마루에 있던 망동리 열을 받아 탕탕 쪼박나는 정도였다. 더우기 조금만 있으면 집천장까지 불 타 무너질 시작이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5일 4면〉

쪼짱 ㉮ ? ㉮ 물을 주는데는 선후차를 선정해서 메마른 포전부터 또 가물이 타는 강냉이밭부터 먼저 주어야 한다. 강우물을 비롯해서 고랑관수, 굴포, 쪼짱 등을 최대한 물원천과 설비들을 동원해서 가물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 농장 현 실태를 볼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강우관수와 고랑관수로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북한위성 - 20000710 20:00》

쪼병쪼병하다 ㉮ 물이 떨어지는 소리. ㉮ 동기와지붕 처마끝에서 떨어진 고드름인듯 하였다. 환한 창문지에 고드름 그림자가 언뜻거리고 뒤미처 쪼병쪼병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눈이 다 녹아버리면 새 움이 트고 꽃피는 계절이다.

〈백두산 기슭, 65〉

찌글사하다 ㉮ *찌그러진 듯하다. ㉮ 늪이 가리키는대로 헌병대의 한 어둡시그레한 북향방에 들어서니 소좌견장을 단 한놈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방안에 들어서는 태진을 꼬리드리운 찌글사한 눈으로 맞잡지 않게 바라보고있었다. 뽕죽한 아래턱에 어딘가 쥐상을 런상시키는, 몸집이 땅따무레한놈이었다. 《거기 앉으라.》

〈새로운 항로, 49〉

찌까다비 ㉮ ? ㉮ 죄다 험잡군들이고 부랑배같은놈들이다. 이래가지

고야 무슨 제국의 복리에 보탬을 주겠는가? 요시하라는 각반친자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서 발목에서 찌까다비를 내려다보았다. 《발목에 장식한 쇠조각은 뭐가?》

〈그리운 조국 산천, 16〉

젓개나물 ㉠ 나물의 일종. ㉡ 묵은 잡초의 떡잎을 헤치고 파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청취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옆에 무수해도 있고 젓개나물도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이 빛나시었다.

〈두만강 지구, 12〉

짱내다 ㉠ 짜증을 내다. ㉡ 그는 제혼자 일찌기 장가든것이 창피스러워 긴긴 겨울밤 마실을 가서 같은또래들과 화로를 끼고 앉아서는 어제 녀편네가 나무를 패주지 않는다고 짱내길래 주먹으로 단매에 꺼꾸러뜨렸다는등의 대포를 곧잘 놓았다. 그리고는 기고만장해서 녀자들은 미물이 돼서 주먹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췌쳤다. 그러면 화로가에 둘러앉은 그의 또래들은 그 말을 끝이듣고 가슴마다에서 사나이의 자부심이 설레여 흥성거리면서 그를 눈이 게슴츠레해서 녀편네곁을 떠나지 못하는 추물이 아니라고 믿어주었으며 장가는 들었어도 창억이는 역시 창억이라고 머리를 끄덕였던것이다.

〈근거지의 봄, 28〉

차단봉 ㉠ 통행을 막는 막대. 봉. ㉡ 독사는 때려 잡아야 하고 독초는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한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의 개가 되어 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지르는 리희창폐거리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력사의 교수대에 매달아야 한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4일 5면〉

차부 ㉠ 차비 = 채비. ㉡ 인관은 대답없이 영남의 의젓하고도 인정있게 생긴 얼굴을 정답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기쁘네. 한테 이봐 영남 동무. 나두 사실 방금 영남이를 만나러 갈 차부였지.》 《왜요?...》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저하구 말입니까?》 영남은 인관을 의아쩍게 보았다.

〈준엄한 전구, 316〉

책임일군협의회 ㉮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성원들로 조직된 협의회. ㉮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7월 6일 몸소 경제 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7일 2면〉

천만락심하다 ㉮ 매우 크게 낙심하다. ㉮ 정천은 문을 열어젖히고 실신한 사람처럼 사랑채로 휘적휘적 걸어나갔다. 정지천을 말리려고 따라나갔던 리풍우가 빈몸으로 돌아와 천만락심하여 중얼거렸다.

〈그리운 조국 산천, 194〉

천만심장 ㉮ *여러 사람의 마음. ㉮ 원수의 머리위에는 불소나기를 쏟아붓고 온강산에 최고사령부의 선군혁명 북소리를 울려주는 군인가족예술은 우리군대와 인민의 힘을 백배로 강하게 해주고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준다. 위대한 혼연일체의 박동이 천만심장을 팡팡이 두드려 준다. 어찌하여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을 이처럼 중시하시며 그리고 또 보시는가.

〈중앙방송 2001년 7월 11일 11:00〉

천통구리 ㉮ 천 뭉치. ㉮ 이때 출입구로부터 하얀 천을 말아든 장준혁이가 다름없는 밝은 얼굴로 모두 모여선 전기로앞으로 다가오는것이 눈에 띄였다. 장준혁은 로동자들이 모여선 앞에 와 발을 멈추더니 손에 말아든 천통구리를 내여들었다. 《프랑카드요. 두개데 하나는 출입문우에 달고 하나는 이 상공에 달기요.》

〈새로운 향로, 114〉

철봉비행 ㉮ 북한에서, 철봉을 중심으로 펼치는 교예 종목. ㉮ 출연자들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온나라 인민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균형적인 조형미와 부드럽고 섬세한 곡선미를 그리며 우아하고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는 원조형과 남녀 2인조형, 민활하

고 능란하면서도 활력이 넘친 재주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훌륭히 펼쳐보인 널뛰기와 철봉비행 등 여러 종목의 교예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 속에 진행되었다.

〈북한위성 2001년 9월 9일 20:00〉

체약쌍방 ㉮ 조약, 계약, 협약 같은 것을 맺은 양쪽.

〈조선어문 1999년 2호, 30〉

첸신못하다 ㉮ ? ㉮ 《최상이라야 시래기소금국이네. 바른 소금마저 떨어지면 소금국도 첸신못하구 찻절한 느릅나무재에 군감자를 찍어먹지, 입성이라는건 또 어떤가? 지금은 솜옷들을 얻어입었네만 며칠전까지만 해두 자네들이 무얼 입구 지냈나?》

〈압록강, 188〉

초아진 ㉮ ? ㉮ 어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한손에는 몽당비자루를 담은 풀남비를, 다른 손에는 여라문장 되는 뼈라를 들고 밖에 나섰다. 초아진에 서쪽하늘에 잠간 얼굴을 내밀었던 초생달은 이미 진지 오래고 삼태성도 퍼그나 기울었다. 밤도 어지간히 깊은것 같다.

〈적후의 별들, 161〉

총대가정 ㉮ 가족 전체 또는 부자나 형제, 남매가 모두 군에 입대, 복무하는 등 일가족 모두가 총대를 쥐고 나선 가정. ㉮ 이제 머지 않아 우리 집의 막내딸도 초소로 떠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총대가정》으로 된다. 《총대가정》, 이 영예롭고 성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살고 싶은것이 자식들을 초소에 내세운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총대중시사상 ㉮ 군대를 중시하는 사상. ㉮ 시당위원회 교육사업부 책임일군들은 여러 학교들을 담당하여 내려 갔다. 그들은 학생교육사업을 직접 맡아 안은 교원들도 만나고 학부형들을 찾아가 담화도 하면서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겨 안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1일 4면〉

최경지 ㉠ 가장 높은 경지.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여 인류사상사의 최경지를 마련해 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인류는 자기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갈 영원불멸할 기치를 가지게 되었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20일 1면〉

최중증 ㉠ 가장 심한 상태. ㉡ 지난해 9월 말 상원군에 사는 36살의 김순희녀성이 심장병으로 차에 실려 이 과에 들어 왔다. 환자의 병세는 최중증상태였다. 몸이 툭툭 붓고 혈압은 짚이지도 않았으며 숨은 자주 멎군 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미 소생을 포기하고 맥을 놓았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7일 4면〉

추겨 내리다 ㉠ 무릎까지 내리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낮에 시찰한 군부대에서 예술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가서 보아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에 펄쩍 뛰었다. 밤이 께이나 깊은데다가 밖에서는 주먹같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고 무릎을 추겨내린 눈으로하여 온통 길이 막혀 버렸기 때문이었다. 머나먼 눈길을 헤치고 부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신 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일신의 피로를 잊으신듯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연을 보아주셨으며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중앙방송 2000년 12월 24일 07:20〉

충성동이 ㉠ 충성스런 아이. ㉡ 소년단원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준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후대들의 행복을 지켜 주시고 미래를 가꾸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끝없이 우리러 따르는 충성동이가 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6일 3면〉

치닥질 ㉠ 성가신 일. ㉡ 《하지만 기생을 끼고내려와 배를 부르는데

야 어찌겠나. 그래서 처음 몇번 응해주었더니 이걸 재미가 들어서 너 두 나두 허구 밤 2경이 될무렵까지 그 치닥질을 받아야 하니 골이 나서 견디잖나?! 그래서 하루밤에는 배놀이를 시켜 주구나서 기슭가까이 왔을 때 배를 흘렁 뒤집어버렸네, 그러니 별수 있겠나.》

〈성벽에 비긴 불길, 254〉

치때리다 ㉸ 마구 때리다. ㉸ 불빛도 유정한 밀림속에 깃들집 뜻깊은 경사를 마중해 가는 역사의 2월 만민의 축복을 담아 저멀리의 백두광야에서 눈서리가 쏘아져 내리는가 하늘을 치받으며 쏘아 오른 정일봉 마루에서 타래쳐 오르던 흰안개도 붉은 눈보라로 씨뿌려지고 박달나무를 터치우는 사나운 폭풍도 주먹만한 우박이되어 떨어진다. 눈파도위에 더 거세찬 눈파도를 말아 올리며 우우 밀려오던 눈보라가 금비 나무들을 마구 치때리는 소리가 밀림을 뒤흔든다. 온백두산발을 들부실 것처럼 요동치는 회오리 바람에 산같은 눈더비들이.

〈중앙방송 2002년 2월 5일 11:00〉

치레식사 ㉸ 치레로 먹는 식사. 북한에서 치레란 〈꾸미거나 손질하여 모양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 동짓날에 동지팔죽을 쑤면서 가정주부들은 큰 동근해 넓게 만들어서 죽에 넣곤하였는데 이것은 큰 동근해가 차려지면 복을 받는다고하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웃사람들을 공경하도록 마음쓴 어머니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팔죽은 동짓날 뿐만아니라 정월 보름이나 철에 따라 별식으로 또 치레식사로 쑤어 먹기도 했다. 평양지방에서는 팔죽을 해가 떠오르기전에 쑤어먹는 풍습이 오늘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평양방송 - 2000년 12 월21일 08:25〉

친일주구 ㉸ ? ㉸ 《뭘얏!》 이윽고 조폭하고 파렴치한 친일주구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른 서광재는 군중을 헤가르며 진태앞으로 갔다. 《임마, 너 그따위 버릇을 어디서 배웠니? 엉?》

〈붉은 지평선, 244〉

철철모 ㉸ ? ㉸ 논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방법으로 모를

기르고, 모를 내는 새 농사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과정에 거기에 따르는 새말들도 많이 만들어쓰게 되었다. 지금 농촌에서 널리 쓰고있는 《문덕식모기르기》나 《칠칠모》, 《륙륙모》 같은 말들도 이렇게 되어 새로 쓰이기 시작한 말들이라고 본다. 최근년간 우리 농촌경리부문에서 쓰이고있는 새말들을 살펴보면 거의다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들이다.

〈문화어학습 1969년 2호, 28-30〉

카툼의 언덕 ㉮ ? ¶ 두만강물결우에 낚시대를 드리우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인류를 향도하는 영원한 빛발로 되게 하실 위대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 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가 빛발치던 그날의 우리 장군님 모습은 카툼의 언덕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다.

〈로동신문 2002년 2월 5일 2면〉

칼날질사하다 ㉮ *칼날의 형상을 하다. ¶ 정말 크고 부드러운 눈도 그렇고 볼이 둥근것도 형제간같다. 그런가위에 정임이의 모습이 약간 칼날질사해보여서 그게 도리어 시집살이의 흔적을 가진 성숙한 형같아 보였다. 웃방으로 들어간 한윤은 활기에 넘쳐서 한참 감옥살이이야기를 했다.

〈은하수, 341〉

커하다 ㉮ ? ¶ 그도 오래간만에 온 장모를 빨리 만나보고싶었다. ‘장모사위’라고 무던히도 그를 커하는 장모였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집에 달려가고싶었다.

〈뜨거운 심장, 197〉

타개피죽 ㉮ *타개나무 껍질로 끓인 죽. ¶ 그는 선생님댁을 찾아갔다가 때로 저녁끼니에 맞다들기도 했는데 소작살이 살림이 어찌도 웅색한지 타개피죽이거나 시래기죽으로 저녁끼니를 에우시는것이였다. 적은이네가 하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뜨자는것이 아닐가하고 생각하니 춘권은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벽에 비낀 불길, 23〉

타격하다 ㄷᄇ 적의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전투 행동을 하다. ㉡ 보도들에의하면 17일에도 미국과 나토는 유고슬라비아의 여러도시들을 야수적으로 공습했다. 나토 비행기들은 이날 새벽부터 3개의 세르비아도시들을 타격했다. 베오그라드에서 남쪽으로 110킬로미터 떨어진 공업도시이며 자주 타격대상으로 되어온 차치아크 근처에서는 10여차례의 폭음소리가 들렸다고 타뉴그 통신은 전했다.

〈중앙방송 1999년 5월 19일 06:15〉

탁상교양자료 ㄷᄇ 실내용 교육 자료.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김정일 위상화를 시키기 위해, 주로 김정일의 저작이나 신문과 방송 등에 게재된 외국인들의 김정일 칭송 등을 이용하여 편찬한 자료. ㉡ 이 과정에 이들은 대동군에 어려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탁상교양자료들과 365일위대성자료, 365일은덕자료 등 353종에 3만 1천 170여건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5호담당선전활동에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7월 4일 3면〉

탁상문학 ㄷᄇ 책상 앞에서 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문학. ㉡ 지금 일부 시들은 사실을 라렬하거나 길게 늘어 놓으며 해설하거나 생활과 동떨어진 상념적이고도 추상화된 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끔 우리 시단에 사실을 라렬하거나 해설하는 등 생활을 떠난 추상화된 시들이 나타나고 있는것은 일부 시인들의 시의 본도를 망각하고 서정을 높이기 위한 피 타는 탐구와 창작적사색을 게을리하는데 있으며 《탁상문학》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2면〉

탕쳐놓다 ㄷᄇ 썰어 놓다. ㉡ 그러고도 대흥나벌에서는 한패씩 달려나간 ‘토벌대’무리들이 한참을 못가서 탕쳐놓은 물고기 대가리모양이 되어 또 새로운 송장을 질질 끌고 물러나오군하였다. 왜놈들이 그렇게 무수히 쓰러지고 죽어너부러지는것을 보니 귀청이 멍멍하도록 자지러지는 총소리뒤로 가면 유격대를 만날수 있을것 같았다.

〈두만강 지구, 221〉

탕침 ㉠ 달여먹는 약. ㉡ 가곡대추는 붉은 밤색이 나는데 살이 단단하고 물이 알맞춤하여 맛이 좋다. 가곡대추나무는 심어서 3~4년이면 열매가 달린다. 9월말~10월초에 따들이며 생과실로 먹기도 좋지만 예로부터 대추밥, 탕침을 해먹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대추에는 약효성분이 많아 여러 가지 강장제와 보혈제로도 널리 쓰인다.

〈조선개관, 364〉

태양 ㉠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을 태양으로 부르고 있다. ㉡ 그날 대동강반에 붉게 솟구쳐 오르는 태양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었고 그 햇빛속에 찬란한 휘황찬 조국의 내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터져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들은 또 한 분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궁지와 자랑을 온 세상에 대고 막 소리쳐 외치고 싶었다. 그때로부터 40년 세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기 대동강반과 용남산 마루 등에서 다진 그 맹세대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이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펼쳐가고 있다.

〈평양방송 2000년 7월 16일 20:00〉

태양국 ㉠ 북한에서, 수령의 나라 북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하다. 천하제일의 위인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우리 민족 그 품에서 평범한 사람도 신념의 승리자, 불굴의 투사가 되어 세계를 경탄시키는 태양의 나라 태양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평양방송 2000년 9월 6일 11:25〉

태양궁전 ㉠ 북한에서, 수령이 사는 거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녕 그분의 탄생은 우리민족의 대경사일뿐아니라 인류의 영광이기도하였다. 우리 모두 이자리에서 구세제민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태양궁전을 우러러 영원한 삶의 노래를 부르자. 그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북녘 하늘을 우러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절절한 그리움에 젖어 숭엄하게 부르는 노래소리는 한라의 산발을 타고 멀리로 메아리쳐 갔다.

〈중앙방송 2001년 4월 20일 15:15〉

태양기 [태] 북한에서, 북한의 국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를때마다 공화국기는 그의 곁에서 휘날렸다.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에 자기 발자국 따라 세우며 공화국기는 태양기라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 국가이시라고 격정터치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않는다. 공화국기는 김일성민족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는 희망의 깃발이다.

〈평양방송 2002년 4월 10일 23:15〉

태양민족 [태] 북한에서, 한민족을 김일성, 김정일의 민족으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태] 이 노래 심장으로 부르고 부르며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동지애로 단결되고 수령 숭배 정신으로 강대한 태양민족은 필승 불패할 것이다. 우리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 위대한 김정일 강성대국이 솟아오른다.

〈중앙방송 2001년 4월 4일 11:00〉

태양산 [태] 북한에서, 백두산을 김정일의 출생지라는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태] 새세기 첫해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저는 인간만세의 밝은 태양을 우러러 깊은 감회에 잠겨 백두산을 생각하며 꿈결에도 백두산에 올라본다. 백두산은 참으로 21세기의 태양을 올린 태양산이며 역사의 성스러운 뜻이 쌓이고 쌓인 하늘의 성악이다. 저는 백두산을 처음보는 첫순간 저도 모르게 아 한울림하며 마음속으로 외치며 웃기를 여미였지만 백두산이야말로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산이다.

〈중앙방송 2001년 2월 18일 13:00〉

태양상 [태] 김일성 사망 100일을 맞아 세워진 초상화. 김일성의 사진 중 가장 환하게 웃는 사진, 즉 서해갑문 준공식(85년)때 촬영한 사진을 선정, 초상화로 제작한 것이다. [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조선혁명과 온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훈장과 메달들을 돌아보았다.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은 이어 울음holes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동부각상들을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이땅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 세움으로써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펼쳐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북한위성 2001년 9월 9일 20:00〉

태양서체 ㉮ 북한에서, 김일성의 서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신문은 3면에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려 21세기 첫해 계획을 선참으로 수행한 3월26일 공장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남조선 국제소식들을 실었다. 평양신문은 4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필체 태양서체의 서예학적 특징에 대해 쓴 글을 실고, 신석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 풍습을 소개한 기사와 평양의 이름난 4대 음식의 하나인 평양온반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사회문화 기사를 편집했다.

〈북한위성 2001년 7월 25일 17:20〉

태양성지 ㉮ 북한에서, 김정일의 탄생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체조선의 장엄한 해돋이가 찬란한 빛을 뿌리고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황홀한 은빛 눈가루가 날리고있던 이날 아침 8시 20분경 북포태산과 남포태산 사이의 상공에 비낀 반원형의 무지개는 9시 40분경까지 아름다운 빛을 뿌렸다. 겨울철인 1월에 들어와 태양성지의 하늘가에 무지개가 비낀 것은 이번까지 3번째이다. 이 특이한 현상을 목격한 삼지연군 인민들은 정초부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21세기의 태양이 솟아 오른 혁명의 성지 하늘가에 신비한 무지개가 연속 비끼는 것은 자연도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김일성민족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 같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다.

〈중앙방송 2002년 1월 24일 06:00〉

태양위인 ㉮ 북한에서, 김정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대의 선두 민족이 된 자궁으로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평양열풍은 태양위인의 존함으로 위상떨치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바람이다. 자연계에 태양열풍을 거스릴 바람이 없듯이 이 행성에 위인의 열풍, 평양열풍을 압도할 바람은 없다.

〈평양방송 2001년 12월 28일 09:00〉

태양절 [태]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부르는 말. 97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3주기때 주체연호 사용과 함께 채택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74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민족최대의 명절』로 지정한데 이어 3년 탈상과 때맞춰 또다시 한층 격상된 태양절로 제정했다. [공] 공장의 일군들은 약생산에 드는 원료, 자재들을 원만히 갖추고 기대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 새해생산준비를 미리부터 빈틈없이 하였다.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새해에 들어와 공장은 시작부터 기세 좋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공장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까지 상반기계획을 넘쳐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 나섰다. 만족을 모르는 일욕심, 이것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이 공장 노동계급의 불 같은 열의이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12일 4면〉

태양조선 [태] 북한에서, 수령의 나라 북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이 시간에는 새로 나온 노래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과 본방송위원회 기자가 나눈 좌담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양조선의 밝은 미래를 그려주는 통일의 노래.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따뜻한 이 봄 계절에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이며 우리 조선민족의 숙원이고 염원인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노래 하나가 새로 창작되어 지금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방송 2002년 4월 11일 21:40〉

태양찬가 [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누] 누리를 진감하는 조선의 수령송가는 위대한 령도자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된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들이 터치는 태양찬가이다.

〈로동신문 2002년 3월 3일 2면〉

태양화 [태] 북한에서, 김일성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김일성화는 김일성에게 바쳐진 남방산지의 꽃이다. [4]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

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열망을 안고 한민전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애국운동 단체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기념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보고회와 강연회, 연구토론회, 출판물 특집 등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 진행했으며 남녘의 정의투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아버지 수령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과 충성의 결의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다. 뜻깊은 태양절에 평양에서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접한 남녘 인민들은 김일성화 전시회는 이 세상에 유일한 태양화 전시회라고 하면서 겨레의 뜨거운 심정이 담긴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 다음해의 전시회에는 꼭 참가하여 태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절절히 토로했다. 서울과 부산 목포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노래하세 태양절, 4월 있어 봄이라네, 영원한 사랑의 품을 비롯한 칭송의 노래들이 녹음테이프의 선율을 타고 수많은 보급되어 사람들을 무한한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속에 태백산 중턱의 천연바위에는 태양절 4·15 김일성 주석님은 민족의영원한 태양이십니다 라는 글발이 씌어진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보는 사람들을 깊은 감동에 젖어들게 했다.

〈평양방송 2001년 12월 17일 17:20〉

턱장 ㉠ ? ㉡ 최기사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자를 벗어 책상우에 흘던지며 볼부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허참, 턱장이 없어서...》 박정호는 의아쩍은 얼굴로 그를 지켜보며 물었다.

〈뜨거운 심장, 247〉

털천 ㉠ *모직 천. ㉡ 겨울철에 우리 녀성들은 여러가지 재질의 털실이나 편직천, 털천 등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 있다. 녀성들은 머리수건을 리용하는데서 고상한 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19일 4면〉

텔레비죤련속소설 ㉠ 텔레비전 연속극. ㉡ 어느 한 텔레비죤련속소설에서 보여 준것처럼 안해는 신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고 집에서는 어

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꼬부리고 자는 정상을 생각하면서도 강심을 먹고 실험실에서 밤을 밝히며 고달프게 지내는것이 과연 선군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인 생활이겠는가.

〈문학일보 2002년 1월 19일 제2호 4면〉

통결먹다 통 *통채로 먹다. ¶ 《자네 그 실없는 소릴랑 좀 작작하게 나, 군말 말구 그대루 해두는게 좋아. 이건 수월찮은 일이야, 통결먹단 걸린단말이요.》 《10여일 앞당길 예비와 로력이 나옵니다.》

〈시대의 기수, 43〉

통말 통 ? ¶ 리형삼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가 통말로 한 ‘통보원’이란 신철민이 지배인의 병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내과과장에게 과업을 준것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지배인의 우스개소리에 신철민이도 웃음이 나갔으나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응수를 했다.

〈뜨거운 심장, 306〉

통보원 통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 리형삼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가 통말로 한 ‘통보원’이란 신철민이 지배인의 병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내과과장에게 과업을 준것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지배인의 우스개소리에 신철민이도 웃음이 나갔으나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응수를 했다.

〈뜨거운 심장, 306〉

툭아오르다 툭 숨가쁘게 오르다. ¶ 생전에 수령님 / 것처럼 사랑하신 군대와 인민이였다고 / 그이 사생결단으로 / 열번씩이나 넘고넘으신 / 철령의 아아한 고개길에 물어 보라 / 한치한치 땀을 쥐고 툭아오르던 / 북방의 6천여리 얼음길에 물어 보라 / 백두의 강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 그이 과감히 걸어 가신 / 무봉의 10리 눈보라길에 물어 보라 //

〈로동신문 2002년 2월 7일 3면〉

퇴폐호텔 툭 북한에서, 남한의 러브호텔을 일컫는 말. ¶ 특히 대화동 주민 1500여명은 학교 주변 호텔 설립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송은 이처럼

주민들이 집단적인 항의행동을 벌이기까지에는 그 지역 행정관청의 무분별한 퇴폐호텔 허가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현재 일산시내에서 영업중인 호텔 등은 11곳인데 여기에 새로 건설중이거나 허가를 받아둔 곳까지 합치면 35군데나 된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전염병처럼 퍼져 부산시 강서구에서는 일반 주택이 들어서기도 전에 도로 옆 등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설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주민들은 벌써부터 자녀들 걱정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송 2000년 9월 2일 20:25〉

튀어질사하다 ㉸ *튀어나올 듯하다. ㉡ 조창봉은 능글맞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놓는다. 둥글고 교만하게 생긴 얼굴에는 그 역시 지어낸 웃음이 어리어있고 약간 튀어질사한 눈에는 얼굴의 웃음과는 달리 경계하는빛이 어리어 있었다. 《호호호... 러인속에 두고왔소다.》

〈붉은 지평선, 149〉

특류 ㉸ 특수한 부류 ㉡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여 온 개풍군도시경영사업소 로동자 배인호는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고 고향으로가 아니라 특류영예군인처녀가 있는 개풍군에 찾아 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그와 결혼하였으며 황해남도육아원 보육원 황명희, 배천군 금성리 안정순은 특류영예군인청년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 남편들을 따뜻이 보살피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받아 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빛내이기 위한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에서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 나갈 불 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로동신문 2002년 1월 8일 1면〉

틀경기 ㉸ 북한에서,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들을 겨루는 경기. ㉡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브에서는 정일봉 향도봉 등 12개 태권도 구락부 선수들이 참가한 태권도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는 수많은 관람자들이 모인 가운데 틀경기, 맞서기

경기, 위력경기 등 여러 종목의 태권도 종합경기가 조직되었으며 찰스타운 고등중학교와 골든그로브 초등학교 교원학생들은 운동회를 특색 있게 진행하였다. 가이아나에서는 이름난 경찰군악대가 출연하는 텔레비존경축 음악연주회를 조직하였다.

〈중앙방송 2000년 10월 30일 07:00〉

틀동작 ㉠ 북한에서, 태권도의 기본동작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 ㉡ 특히 체육교원 강현철 동무는 학년별 개인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세우고 태권도 교육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학생들속에서 태권도 기술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태권도 소조원들은 틀동작은 물론 맞서기와 같은 태권도 기술 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기간 국내 청소년급 태권도 경기들에서 여러번 우승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있게될 정일봉상 체육경기대회 태권도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결의에 넘쳐있다.

〈북한위성 2000년 6월 20일 20:00〉

파리찌 ㉠ 파리똥. ㉡ 안해도 자기를 사랑하였다. 시비가 많고 피뻘스러운 늙은 어머니의 눈을 피해 사이문을 닫고 고방에 들어박히면 그것은 비록 파리찌가 까맣게 묻은 낡은 벽지에 둘러싸인 좁고 컴컴한 방이긴 하였지만 세상과 아주 격려된듯한 자기들의 세계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95〉

판판백지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얼마나 명철하신 말씀이신가! 군사에 대하여 판판백지인 권학식은 지금이 전투를 앞둔 모임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고난 후의 유쾌한 모임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게까지 되었다. 권학식은 자기도 이번 싸움에 꼭 참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었다.

〈백두산 기슭, 354〉

팡가치다 ㉠ 팡개치다. ㉡ 《아닐세, 자네들은 나를 원망하구있는거네. 나는 가려네. ‘형제계’구워구 다 팡가치구, 우린 벌써 형제간의 의리를 버리기 시작했네.》

〈그리운 조국 산천, 127〉

펼대 ㉠ *긴 막대. ㉡ 《참 고난의 행군이 대학맞잡이란 말들을 하더니 비슷한 소리같군.》 장경수는 펼대에 달고다니는 리발결상에 다리를 꼬고앉아 곰방대를 뻘뻘 뻘뻘 빨며 실눈을 해가지고 중얼거렸다. 《그건 무슨 소리요?》

〈두만강 지구, 455〉

평꽃거리다 ㉠ ? ㉡ 참모장은 분노하였지만 상급인지라 어쩔수 없었다. 피가 진 부석부석한 눈구석에는 무서운 양심의 불꽃이 평꽃거리고 있었다. 돌격선은 은밀히 산중턱으로 기여올랐다.

〈그리운 조국 산천, 518〉

편지전달계주단 ㉠ 북한에서, 이른바 편지전달이어달리기에 참석하는 단체. ㉡ 준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 항일혁명투사들 조선로동당 창건 55돌경축 대표들, 경축대표들인 통일애국투사 비전향 장기수들,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했다. 재일본조선인 축하단과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준공식에 참가했다. 준공식에는 당이 안겨준 믿음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운 청년들 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 지원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다.

〈중앙평양 2000년 10월 11일 19:00〉

편지전달이어달리기 ㉠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을 위한 대표적인 충성행사의 하나. 각지의 군중집회에서 채택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를 여러 지역을 계주형식으로 경유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일성·김정일부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이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을 경축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드리는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 출발모임이 조선인민군 김창역 소속부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 대열 성원들이 발표되었다. 이어 충성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북한위성 2000년 8월 17일 20:00〉

평양열풍 ㉮ 북한에서, 김정일을 바람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시대의 선두 민족이 된 자궁으로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평양열풍은 태양위인의 존함으로 위상떨치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바람이다. 자연계에 태양열풍을 거스릴 바람이 없듯이 이 행성에 위인의 열풍, 평양열풍을 압도할 바람은 없다.

〈평양방송 2001년 12월 28일 09:00〉

포전카드 ㉮ 논밭의 상태를 적어놓은 카드. ㉮ 성질은 무슨 래력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면서 포전카드를 뒤적였다. 65호포전, 해하성 몇가지 미량원소가 부족하고 산도도 높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붉은 지평선, 18〉

푸르락거리다 ㉮ 화가나 어쩔줄을 몰라하다. ㉮ 춘석이는 성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수수팔떡상이 된 그는 억이 막혀서인지 말을 못하고 푸르락거린다. 《어른이 귀하거던 공손히 사정이야기를 했다면 몰라두었? 이놈.》

〈붉은 지평선, 130〉

푸초밭 ㉮ 채소밭. ㉮ 민족음식뿐만아니라 매일 1만개의 교즈를 봉사하기 위하여 자체로 마련한 1,000여평의 푸초밭을 새해에 들어와 배로 늘이고 땅을 걸굴 자급비료도 10여t이나 마련하였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8일 3면〉

풀먹는집짐승 ㉮ 초식을 하는 가축. ㉮ 그것은 우선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풀먹는집짐승을 위주로 여러가지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것이다. 특히 염소분조에서는 수백마리의 염소와 많은 닭, 오리, 게사니, 토끼 등 여러가지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다.

〈로동신문 2002년 5월 6일 3면〉

풀엄 ㉮ 풀의 움. ㉮ 해빛이 따뜻해지고 가냘픈 훈풍이 음침했던 골목골목으로 부드럽게 불어들었다. 골목의 땅들도 죽신죽신 녹고 풀엄이 머리를 들었다. 거리는 봄비여졌다.

〈은하수, 346〉

품들이다 ㉠ 공들이다. ㉡ 용감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도 없는 실력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랫동안 품들여 키우시고 고난의 행군에서 검열된 췌소리나는 일군들이 많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것처럼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매해 어김없이 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우리가 남보다 못해서는 안된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 세우고 한그람의 수입자재도 쓰지 않고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자재를 생산함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단히 치하하신 실력있는 일군이며 생산을 팡팡 내미는 것은 물론 수도의 극장같은 문화회관도 멋지게 일떠세우고 구내에 단뻗거리도 형성해 놓았으며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유명한 구호도 벽체에 큼직하게 붙여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만족해 하시도록 해드린 자강도의 한 기업소 책임일군, 지방이지만 대담한 구상과 실천으로 농업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실현한 안주시 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대오를 믿음직하게 통솔해 가고 있다.

〈중앙방송 2001년 3월 12일 11:00〉

꽃밭 ㉠ *처음 본 얼굴. ㉡ 이렇게 어로과에 홀로 핀 꽃처럼 남게 된 정림은 오히려 남동무들의 티없는 사랑을 받아왔으며 어로과의 자랑처럼 떠받들리었다. 기철이와는 같은 학년도 아니어서 꽃밭이나 아는 정도로 지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 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에 허물없이 지내던 다정한 동무처럼 안겨왔으며 봄바람과도 같이 훈훈한것이 가슴을 스치는것이였다.

〈해쑥는 바다, 14〉

피곤했다 ㉠ 피나무. ㉡ 한촌을 떠나 얼마를 걷지 않아 구릉처럼 누워넘어간 산밭이 나타났다. 가독나무가 우거지고 간간이 물푸레, 피곤했다 나무 무대기들도 무성했다. 새가 우짖고 다람쥐가 기었다. 뉘엿한 산마루들을 순식간에 넘으니 잔등들이 또 척척히 젖었다.

〈은하수, 12〉

피곤했다 ㉠ ? ㉡ 잠시라도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동구밖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만 듣고도 문을 열고 나서던 어머니, 밤이 이슬토록 자새질

을 하며 피곤투를 드리다가 짐승이 나오는데 밤길을 다닌다고 꾸짖군 하시던 할아버지는 벌써 잠드셨는가.

〈두만강 지구, 81〉

피계 ㉠ 암컷. ㉡ 《앙이 참! 그래두 새끼랑 낳을 피계가 값나가지 수리이는 무슨 수리이오다.》 중년이 받은 말이다.

〈붉은 지평선, 369〉

피찌 ㉠ ? ㉡ 연구소성원들은 누구나 찬동했으며 그 연구에 비상한 정열들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간단한 송풍장치같은것은 모두 달라붙어 자체로 만들기로 했으며 뿔탄에 들어가게 될 피찌를 얻기 위해 시청의 토목과에 찾아가 사정한 끝에 도로공사에 쓰던 나머지를 손수레에 싣고 오기도 하였다.

〈새로운 항로, 283〉

하도매 ㉠ 제동기, 브레이크(일어). ㉡ 《그런데 대차를 타고 가다가 내림받이에서 하도매가 먹지 않아 두어차판 굴러땡개쳤소다. 이거야 신수놀음이지 나나 이 사람이 제 죽고 싶어서 그노릇을 했겠나요. 그래도 구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만강 지구, 59〉

하오리 ㉠ 웃 우에 덧입는 짧은 웃웃(일어). ㉡ 요시하라는 풍막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오리를 입은 살집좋은 일본인이 정면으로 눈에 띄었다. 그옆에 머리를 수그리고 열성스레 바닥을 들여다보고있는 대여섯명의 실직한 사내들이 보였다.

〈그리운 조국 산천, 15〉

하칠소 ㉠ ? ㉡ 이웃집 물동지기령감네와 삼수집에서는 두 량주가 다 오고 봉식이며 치갑이또래 정섭이의 동무들도 찾아왔었다. 밥집에는 기왕에 하칠소에 있다가 먼저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앞세우고 목재판로동자들도 우르르 밀려들어 밤이 깊도록 이야기판을 벌리다가 정섭이네 집 형편이 손님들을 다 치르기 어렵다고 해서 남정네들은 옆집인 ‘이시가이구미’ 밥집으로 옮겨앉았다.

〈두만강 지구, 89〉

한뉘때 ㉸ ? ㉸ 편벌장(뗏목 만드는 곳임)에 때들이 쌓이는것자체가 벌써 큰 사고다. 한뉘때를 타고 강바람에 시달린 때군들조차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것을 구장누이가 생각해내다니...

〈그리운 조국 산천, 327〉

한방통 ㉸ ? ㉸ 《도면에 손때만 좀 묻혀두 그렇게 야단을 하더니 왜 여태 소개시키지 않구 남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소개를 안시켜, 화차로 옹근 한방통이나 소개시키구 남은게 그렇네.》 《그때 다 소개시켰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옥야벌로 갔을게 아니요.》 담배를 붙여문 박경훈이가 끼여들었다.

〈적후의 별들, 1〉

한초 ㉸ *짧은 순간. ㉸ 주창범은 불기에 지지우는것 같은 가슴을 가 까스로 누르고 단숨을 내뿜으면서 기름땅에 눈구석마저 쓰러나는 얼굴 을 들어 초조하게 그이를 지키고있었다. 지금은 한초가 급하다. 김정숙 동지께서 어떤 지략을 펼치시며 양판우에 달구는것 같은 이 급한 고비 를 무사히 넘겨주시겠는가?

〈그리운 조국 산천, 361〉

한초한초 ㉸ *짧은 순간. ㉸ 곧게 세운 길다란 관속같은 수직갱도를 따라 우로우로 몸을 움직였다. 썩어가는 나무사다리, 미끄러운 가름대, 천장이 뿌려주는 으쓱으쓱한 이슬... 이발을 앓다문 그는 순간마다 생명을 덮치려는 위험의 악조건들을 아들과 남편에게로 달리는 본능에 가까운 사랑의 힘으로 한초한초 이겨나갔다. 드디어 꼭대기에 올라섰다.

〈그들의 운명, 215〉

할기작거리다 ㉸ ? ㉸ 《오랑캐와 꿩꿩이를 하는 놈들은 즉석에서 처죽이기로 된걸 모르지 않을테지. 엉?!》 춘권이 노기에 차서 천둥같이 소리를 내지르자 첩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발발 떨었으나 요사스러운 눈만은 여전히 할기작거리더니 퇴매하게 종알대었다. 《령감이 미국선교사와 한짓이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벽에 비낀 불길, 148〉

해명률 ㉠ 해결된 비율. ㉡ 2001년 11개월동안에 10대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건수는 그전해 같은 기간보다 4.7% 더 늘어 나 12만 6,137건에 달하였다. 고등학교학생들이 교내에서 저지른 폭력행위는 무려 74%나 늘어 났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 난 반면에 그 해명률이 훨씬 줄어 든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개월 동안에 발생한 범죄 총 건수에서 범죄를 해명했다는것은 20.2% 밖에 안되었으며 중범죄해명률은 그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8.4%나 떨어 졌다고 한다.

〈평양신문 2002년 1월 6일 3면〉

해발딱하게 ㉠ 쉽게. ㉡ 사실 현집권자와 김영삼은 오랜세월 친구관계가 아닌 숙적관계에 있었다. 대통령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없이 벌여온 개싸움이 그들 두사람을 숙적관계에 놓이게 했던 것이다. 현집권자는 때아닌때에 문민 괴수에 대한 아부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검은 속심을 너무나도 해발딱하게 드러냈다.

〈평양방송1999년 2월 14일 20:07〉

해발서체 ㉠ 북한에서, 김정숙의 서체를 가리키는 말. ㉡ 토론회에서는 백두산 3대 장군의 명필체를 태양서체, 백두산서체, 해발서체로 뜻깊게 명명한 것은 주체서에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아로새긴 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민이 먼저 토론했다. 그는 새 세기 첫 태양절을 인류 공동의 명절로 기념한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필체를 태양서체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활달하신 필체를 백두산서체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원숙하신 필체를 해발서체로 명명하고 뜻깊은 토론회를 가지게 된데 대해서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 의의깊은 경사는 인류 서예 사상 있어본적 없는 특기할 사변으로서 걸출한 위인들이신 백두산 3대장군을 높이 모신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양방송 2001년 4월 27일 07:00〉

해하성 ㉠ *바다물의 성질. ㉡ 성질은 무슨 래력을 말하는건지 잘 모

르면서 포전카드를 뒤적였다. 65호포전, 해하성 몇가지 미량원소가 부족하고 산도도 높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붉은 지평선, 18〉

행금 ㉠ ? ㉡ 명주는 학생들에게 애써 아까와도 다른 정에 겨운 밝은 얼굴로 눈인사를 보낸 다음 교단을 내려서 교실을 나와버렸다. 명주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내내 행금줄같이 팽팽한 가슴을 간신히 가누며 교무주임 마가에게 학적부며 기타 문건을 넘기고 교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다음 학생들이 다 교실로 들어간 조용한 시간을 타 학교를 나왔다.

〈새로운 향로, 67〉

행전끈 ㉠ 바지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묶는 끈. ㉡ 그이께서는 다가서시여 장태준의 허리에 띠 혁띠를 잡아보시였으나 어떻게 꼭 졸라맸는지 손가락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허리를 굽히시며 행전끈을 당겨보셨다. 그것도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펴시고 좀 불안한 표정이 된 장태준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준엄한 전구, 374〉

허리어방 ㉠ 허리 가까이. 허리 근처. ㉡ 땅바닥에 가슴을 대고도 그는 필사적으로 기었다. 그러나 성립은 모습이 허리어방에 얼쩡하자 방금 죽어가던놈답지 않게 화닥닥 몸을 뒤채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괴춤에 가져갔다. 그놈의 손에서 시퍼런 비수가 번쩍 하고 묻어나오는 순간 성립은 몸을 날려 놈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두만강 지구, 70〉

허리치다 ㉠ 허리까지 차다. ㉡ 량강도림업연합기업소, 자강도림업연합기업소, 함경남도림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라남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본 받아 모진 추위와 허리치는 생눈길, 겹쌓인 난관을 뚫고 립철기관차와 자동차, 트랙또르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고 통쏘이와 끝바, 소발구 등을 적극 받아 들여 보다 적은 연유로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였다.

허망 ㉠ 어이없고 허무함. ㉡ 《분옥이 너 어제밤 야학에서 배운 글

허망을 냈니?》 배운 글을 암송했는가고 묻는것이다.

〈붉은 지평선, 340〉

허벼내리다 ㉸ 남의 결점을 헐뜯다.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다. ㉸ 《산문이가 밥을 넘길게 뭐요. 술 한잔도 입에 넘기지 못하오. 가까스로 숨을 쉬고있는 사람을 자그만치 허벼내리오.》

〈그리운 조국 산천, 303〉

허부러지다 ㉸ ? ㉸ 잠시후에는 저쪽 구부러진 퇴창안에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것이였다. 식전 걸음으로 이십리 남짓한 길을 단참에 잇대이고 보니 앞이 허부러지는 느낌도 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락지빵 한두개로 요기나 하고 떠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며 차일을 들치고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제법 호령조에 가까운 림원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운 조국 산천, 21〉

허이허이 ㉸ 가쁜 숨을 내쉬는 모양. ㉸ 그늘 한점 없는 띄약별아래에서 허이허이 허덕이던 철도공사판에 하루해가 마지못해 저물어간다. 한쪽에서는 산을 깎아내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로반을 닦고있다.

〈붉은 지평선, 409〉

허허통사 ㉸ ? ㉸ 《허허 허어-》 경표가 허허통사를 한다. 골짜기가 드렁드렁 울린다.

〈붉은 지평선, 35〉

해판데 ㉸ *영똥한 곳. ㉸ 《그러나 김정학이와 같은 오랜 기능공과 함께 일하러 들어갔던 신입로동자가 소변을 보러갔다가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판데를 해매서 공장적으로 소동이 일어났던 일은 저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월드는 말없이 돌아서서 은물주리에 (그안에 백금고리가 있었다) 담배를 끼워물었다.

〈적후의 별들, 276〉

해발다 ㉸ *해매다. ㉸ 《오늘 근무를 책임진 오중흙동무가 작식대에 데리고가서 간단한 요기를 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밀영을 알지 못해 여러날동안 산중을 해발며 꽤 굶주렸습니다.》 《그럼 됐소.》

〈압록강, 181〉

혁명무용 ㉠ 집단 체조의 일종. ㉡ 우리 시대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무용들을 만들어 낼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무용예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무용예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무용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섬세한 예술적 룰동이 현대적 미감에 맞게 창조되고 집체적인 조화와 개별적인 기교가 잘 결합된 매혹적인 조선의 민족무용은 내외무용애호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조선개관, 205〉

혁명적군인정신 ㉠ 1996년 제1단계에 이어 2000년 10월 완공된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이 악전고투 속에서 발휘했다는 투혼을 일컫는 것. ㉡ 돌이켜 보면 지나간 한해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온 나라에 라남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오른 보람찬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창작에서는 이 벽찬 시대의 숨결이 담겨져 있지 못했으며 필봉은 시대의 전진과 함께 원고지우에서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시대의 선구자들을 형상할수 없었습니다.

〈문학일보 2002년 1월 12일 제3호 3면〉

호불좋다 ㉠ ? ㉡ 《소장, 암이라는게 무슨 병인지나 아는가?》 노자끼는 이렇게 물으며 후루가와의 팔자수염 달린 호불좋은 얼굴을 경멸에 찬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걸리면 죽는 병이라더군요...》 후루가와는 어리둥절하여 중얼거렸다. 《흠, 잘아는군.》 한마디 하고 노자끼는 입을 다물었다.

〈준엄한 전구, 15〉

호상부조하다 ㉠ 상부상조하다. ㉡ 《도중원 제위여! 서로 근로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두팔로서 우리의 생활을 개척하여가자. 그리고 무용한 허비를 절약하며 호상부조하여 나갈것을 우리는 맹세한다.》 ‘석목’ 외에 길다란 규칙이 있었다. 그것을 다 읽은 럽성재는 백로지를 둘둘 말아 원술이에게 넘겨주었다.

〈붉은 지평선, 68〉

호상비판 ㉮ 상호비판. ¶ 한 여성당원이 풍금을 치자 다른 여성당원들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신이 나서 흥겹게 불렀다. 회의가 또다시 시작되자 당원들은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에도 성근하게 참가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을 주의 깊게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중에야 당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3면〉

호추알 ㉮ ? ¶ 《어서 빨리 나와요.》 인순이는 문앞에 서서 호추알 같은 소리를 질렀다. 《가만 있거라. 내가 인순이의 일을 좀 도와주지.》

〈은하수, 100〉

화면음악실 ㉮ 화면음악을 만드는 곳. 북한에서 〈화면음악은 영화의 해당 장면이 요구하는 사상주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래와 음악〉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음악, 정황음악, 효과음악으로 나눈다. 장면음악이라고도 부른다. ¶ 우리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컴퓨터센터 화면음악실의 창작가들이 영화음악의 컴퓨터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화음악부문에서 컴퓨터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강길 조성철, 배정숙동무를 비롯한 화면음악실의 창작가들은 영화 및 방송음악단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우리식의 컴퓨터음악을 창조하기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북한위성 2001년 3월 18일 20:00〉

환등화하다 ㉮ 환등기로 볼 수 있도록 만들다. ¶ 지금 우리 조선미술박물관에서는 태양절을 앞두고 미술작품들을 형상한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에 대한 해설 선전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다. 우리 박물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한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모시고 있다. 우리들은 불멸의 영상을 통한 위대성 선전사업을 보다 힘있게 벌이기 위하여 백두산 3대 장군의 위인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환등화하여 위대성 선

전물을 만들었다.

〈중앙방송1999년 3월 27일 06:04〉

황점 ㉸ 누런 점. ㉸ 하루밤사이에 그 녀자의 얼굴은 전혀 판모습으로 변하였다. 얼굴은 희다못해 푸르스름해졌고 눈언저리는 황점이 낀 듯이 거밋거밋해졌다.

〈그리운 조국 산천, 24〉

흑닥시 ㉸ ? ㉸ 《좋은 동무야, 그렇다구 해서 암코양이처럼 지내 곱다곱다 하구 쓰다듬어주기만 해서두 안돼. 그러다간 발톱에 코끝을 할 키워. 적어두 한달에 한번쫘은 흑닥시를 먹여야 해. 눈물이 쑥 나오게 말이야.》

〈뜨거운 심장, 451〉

홀렁질 ㉸ ? ㉸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인이 짐달구지를 돌려세운건데 저 장교란 사람이 나리에게 무슨 앙심을 품고있었던지, 아니면 무슨 역모를 꾸미려는 엉큼한 속심을 품고있었던지 도사나리에게 와서 홀렁질을 해서 도사나리가 무람하게도 사또께서 내리신 령을 거역하도록 꾀였으니 이런 발칙하고 두려운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놈에게 오라를 지우려던...》

〈성벽에 비낀 불길, 296〉

휘갈마들다 ㉸ 휘감아들다. ㉸ 땀을 움켜쥔 춘권은 눈썹리가 곤두서고 가슴이 쿵당거리며 숨도 들이그을수 없는데 선생님은 탄알이 사람을 피하는 법이라고 믿는것인지 끄덕 안하신다. 적탄만이 아니라 떼배에 지퍼놓은 불길이 또한 화산처럼 타올라 선생님을 휘갈마들건만 아랑곳 앓으시고 노대를 랑껏 내미시는바람에 몸이 그대로 강물속에 박힐듯하다가 뒤로 노대를 채며 허리를 제끼시는데 안중에는 오직 원한에 사무치는 미국오랑캐배만이 비껴드는상싶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426〉

휘여깎다 ㉸ 휘어서 바닥에 깎다. ㉸ 하기야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있으랴! 담가를 들고 온 청년들이 새초를 휘여깎고 담가우에서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를 들어내려서 눕혔다. 그이께서는 또한번 놀라시었다.

〈은하수, 412〉

흙진세 ㉸ 흙을 바르는 것. ㉡ 산막은 말 그대로 초막이다. 벽은 토
피를 빚어서 쌓고 대충 사벽질을 했는데 군데군데 밖으로 트인곳도 있
었고 더우기 천정은 싸리를 엮어서 서까래우에 펴고 흙진세를 쳤지만
집 안쪽에서는 손을 전혀 대지 않아 찻찻한 흙덩이가 우툴부툴하게 뻐
여져 달려있고 산자위는 싸리그루와 회초리들이 얼기설기 처져있었다.

〈성벽에 비낀 불길, 128〉

흙모가요 ㉸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바치는 가요. ㉡ 종합된 자료에의
하면 최근년간 해마다 평균 2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장군
님의 노작들을 수백여차에 걸쳐 보도했다.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경
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혁명활동모습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흙모가요들을 함께 편집
했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들을 세계혁명적 인민들
의 삶과 투쟁의 지침 자주시대 당건설의 귀중한 교과서 사회주의 역량
의 위대한 사상이론적 무기, 진보적 인민들의 영원한 고무적 기치라고
지적했다.

〈평양방송 1999년 4월 7일 07:00〉

흥충거리다 ㉸ 울렁거리다. ㉡ 어머니는 얼른 병글썩하게 열린 새문
을 꼭 닫았다. 《난 요새 경사를 앞에 놓고 맘이 흥충거리어서 이렇다
네.》 《무슨 경사입니까?》

〈은하수, 8〉

희극판 ㉸ 부정적 의미로 웃기는 장면을 이르는 말. ㉡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16대 괴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때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남조선의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새로운 총재
단을 선출하게 될 5월말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선거전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희극 아닌 희극판이 벌어져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 지난
15일 이 패당안에서 총재단 선출을 위한 그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조작되고 사전 선거운동 금지 불법 선거운동 규제 후보들의 기탁
금 지정, 투개표의 관리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는 광고된

사실 등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평양방송 2000년 5월 22일 17:00〉

색 인

2중영예붉은기	가물투쟁	강시울
365일위대성자료	가새당꽃	강철수리개
365일은덕자료	가식모판	강탈범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가싯대	개개움
4·15문학창작단	가정도구	개념마당
5호담당선전	가죽멜띠	개눈깔잔
6월4일문학상	가풀	개마대산
80년대속도	간즈메	개부리
트.ㄷ	갈치락거리다	개싸다니다
트.ㄷ 열혈투사	감옥생	개장변
가구라	감옥어혈	개찰가위
가금기지	감자바우	쟁기사
가깍증	감자쪽	쟁내물
가대다	감장메고양이	거드러지다
가독누에	감정론리	거리뜨다
가독잎담배	갑신하다	거머틱틱하다
가랑잎고깔	강계정신	거인성
가로뜨다	강구롤	거폭
가름옷	강력책	건승
가물전투	강성대국	건승건승

건승스치다	고생꾸러기	교예체조
검들김치	고속도사격체계	교즈
검부럭지	고속도자동어선	교통보완원
검신원	고속도제진기	구급소생과
검신원실	고압전주	국기훈장
겉다듬	고음성대	국민모
게바라나오다	고치장포	국제대사령
게투덜거리다	고잡다	국제친선전람관
격점내기	곡률바로잡기	굽각질하다
격점모	곱벨	궁출하다
격점술	공동시설	굴단물
격점웃	공동재부	그루빠활동
결속짓다	공땅	그물운동물충표
결으다	공중들리다	그물추개
결의기일	공중땀	급양봉사
결정으로 박다	공중배기	기계바다
계란탕수	공화국기	기념돌
고기맥	과학정책	기본집책
고랑관수	관원료	기술개건사업
고려병원	광복성전	기술동작
고려약	광포벌	기양제
고려의학	교반봉	길먼지
고르고고르다 쥐고르다	교양하다	길흙타기

길회선	나무활차	논물관리공
김일성민족	나부르다	놋나들이
김정일세기	낙지바로	논물집
김정일식	낚은 사회	눈을 뜨다
김정일화춤	남남경제관계	느르끼레하다
김치밥	남박	느슬느슬하다
깃또구두	납패서	늑늑히
까부러붙이다	낫물	늘직늘직하다
깡패국가	내기슭	능개비
깨까사다	내려쫓지다	다부산자
깨꼬생각	내배이다	단기다
깡깡이통	내부예비	단우
격쇠발톱	내외량심	단조기
꼬물	내용 있다	달 건너 소식
꼭다리모자	넌발테기	달갈폭포
꽃수건춤	넌퍽지다	달웃
꽃체조	넙석	닭고기쟁반
꿩저넣다	넝쿨메밀	닭볶이
깼	넌로보장금	담화를 조직하다
나래엮기	노랑풀	담부리칸
나릅잡이	노래바다	담혼서
나무허덕	노래폭탄	당꼬바지
나무화대	논두렁매질	대갈받기놀이

대망	들먹이	로력혁신자
대문통	들이조기다	로런
대용열차	등가지	록음소설
대용자동차	등싯하다	룩태고
대중고려약	땅굴막	룽같이
대청결	땅따무레하다	류행옷
대학맞잡이	떠지다	리발결상
덜먹총각	뚜꾸다	마감나르기
덜컬	뛰쳐나다	마꼬
델룽하다	뜨거워나다	마당거우
덴굴하다	튼모	마당리론
도리우찌	뜸배	마세
도막궁이	뜸엮기	막낭딸
도중대고 묻다	뜻갈래사전	막사리
도투똥	라남의 봉화	만몽
도투름하다	량안관계	만전쟁
독보할내기다	련공인사	말자손
동저매다	련락갱	할먹이새초
된탕	련락공작	말발
두루마기쟁이	련락로	말짱
뒤곳	련락쪽지	말총건
뒤동갱이	로력전선	맞서기경기
뒤매	로력전투	말아 안다

매샘이	민립대학	보탑공원
매심하다	민족대국상	본디
매칠하다	민지	봄시위물
머리부버리	밀기침	봉사기지
메사구	박막	부러져나오다
모개비	반간놀이	부석짬
모두라지다	반미성전	부엌기지
모랭이	발기우리하다	부조공농
목갈린 소리	발더듬질	부후물소리
몸나다	방아궁치	분분가
몸바투	방조자	분지미떡
무리벌	방풍나래	분틀구멍
무비루스	배북	불길소독
무비루스화되다	배설	불나래
무움	백두산3대장군	불문이자리
문가림보	백두산상체육축전	붉은기수호전
문예방침	백색고문	붓대포
물계	백색지대	비가름
물관리공	벌손	비길획
물원천	벗겨쓰다	비끼다
물층	벼툼	비육직장
물피난	별결듯하다	빨사하다
몽싯대다	보따지동무	빼대대하다

빼또칼	색실토리	손갈구리질
빼물기	색천신발	손밀차
뽕뽕하다	색텔레비	손세레
뼈덩하다	생묵	솔풀
뿔탄	서강막바지	수령결사용위정신
뿌죽뿌죽	선군문학	수령송가
뿔구다	선군사상	수령영생위업
뿔대군	선군시대	수령형상
사까랍다	선군정치	수령형상문학
사도지	선군혁명	수리이
사명	선군혁명실록	숙일사하다
사회주의선경	선산부	숙임돌
살맞다	선폭	숭배심
살찌우기못	설동하다	숯토리
삼굿두리	성강의 봉화	쉬쪽쉬쪽
삼흥사전	성립학교	시글다
상도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시려나다
상발	세목장	시시부레하다
새오르다	세발구	식료상점
새초발	세소반	식사질
새형	소매낙지	신수놀음
색날다	손가락글자	신파장
색사탕	손가시	실거품

실두렁짓기	어림수	오동군도
심란증	어미모판	오자바람
쌍침재봉	어석버석하다	옥감
쓸림견딜성	어은금	옷뚜럼히
씨드러지다	어프덩	옹굽다
씨실안내기	어휘정리사업	옹군애민사상
쌍쌍	엄지넝에	와내다
아닌보살	엇드레질	왕별
아래학년	영글서	외발기
아름다운 소행	여가 있다	요골요골하다
아브로라	여물구다	요문
아양하다	연덩이	용지벌거리다
안간	연로보장나이	용활무쌍하다
안준하다	연로보장자	우그그
안탁	연전띠	우뚜럼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간 하지 못하다	열다리목	우틀부틀하다
	염전염군사상	울빠
알모	영예감	울장
알쓸다	옆틀	웅건장중하다
알용닭상자	예비집합	웅지다
애마르다	예비총	원간방
애물두상	예술선동대	원군미풍
약크림	오가리박죽	위력경기

위탁상점	자갈터	조선반도
유저	자고자대병	조선혁명
유훈교시	잠웃음	조심을 두다
으힘으힘	잡태기	종금직장
은물주리	잣검불	종자잔알감자
의미심중하다	장식불바다	좌경망동
이룩이룩	장식옷빈침	죄겨대다
이물머리	재간기둥	주체문학론
이물벌립	저가치	주체철
이물어지다	저려나다	죽탕망탕
이상되다	저쫂하다	줄기발
이악쟁이	적세계	줄전구
익촉	적작하다	쭈절다
인간수업	전승절	쭈즉해지다
인민보안성	전연선	증빙품
인민보안원	전쟁죄행	지렁지렁
인발구	정치난쟁이	지식판
인찍다	제빠두하다	지썸
임진조국전쟁	젠년	직외해설강사
있어보다	조건을 쥐여주다	직일기자
자가룻	조겨보다	진결
자갈넝다	조선국민회	썰들썰들
자갈쇠	조선글	썰임하다

쩍지	추겨 내리다	태양서체
쩍하면	충성동이	태양성지
쪼박나다	치닥질	태양위인
쫄짱	치때리다	태양절
쫄병쫄병하다	치레식사	태양조선
찌글사하다	친일주구	태양찬가
찌까다비	칠칠모	태양화
찢개나물	카륜의 언덕	턱장
짱내다	칼날질사하다	털천
차단봉	커하다	텔레비존런속소설
차부	타개피죽	통걸먹다
책임일군협의회	타격하다	통말
천만락심하다	탁상교양자료	통보원
천만심장	탁상문학	툭아오르다
천통구리	탕쳐놓다	퇴폐호텔
철봉비행	탕침	튀여질사하다
체약쌍방	태양	특류
첸신못하다	태양국	틀경기
초아진	태양궁전	틀동작
총대가정	태양기	파리찌
총대중시사상	태양민족	판판백지
최경지	태양산	팡가치다
최중증	태양상	펼대

평끗거리다	해명률	황점
편지전달계주단	해발딱하게	흑닥시
편지전달이어달리기	해발서체	홀렁질
평양열풍	해하성	휘갈마들다
포전카드	행금	휘여갈다
푸르락거리다	행전끈	흙진세
푸초발	허리어방	흙모가요
풀먹는집짐승	허리치다	홍충거리다
풀엮	허망	희극판
품들이다	허벼내리다	
푯낫	허부러지다	
피결나무	허이허이	
피결바	허허통사	
피계	헤판데	
피찌	헤발다	
하도매	혁명무용	
하오리	혁명적군인정신	
하칠소	호불좋다	
한늬때	호상부조하다	
한방통	호상비판	
한초	호추알	
한초한초	화면음악실	
할기작거리다	환등화하다	

국립국어연구원 2003-1-12

담당 연구원: 전수태(학예연구관, 어문실태연구부)
연구 보조원: 송민규
노석은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2003년 12월 15일 인쇄

2003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남기심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 2669-9721

팩스: (02) 2669-9727

인 쇄: 크리옹보(주)

대표전화: (02)737-5377

<비매품>